

SDU

디지털문학

2009 / 제3호

| 교수문단

- [시] 이재무/오봉옥
- [소설] 정도상/이명량
- [동화] 임정진
- [평론] 임현영

| 학생문단

- [시] 강정숙/곽다영/김경훈/김형출/노정숙/류제희/박병식
/박훈/손선옥/심희수/안민숙/엄치현/유시경/유원희
/이주영/정건우/한필애/허소미
(동시) 곽미영/김미영/안장수
- [소설] 김수진/목미정/박인해/진수지/허광웅
- [수필] 노정숙/정애령/최경호/한성희
- [동화] 김경훈/박민서
- [시나리오] 김명자
- [사이버문학상] 성백선/유원희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공모】

주최 : 서울디지털대학교(SDU)

주관 : SDU 문예창작학부

문학 계간 『시작』

후원 :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1세기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인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을 공모합니다.

한국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참신한 상상력을 기다리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응모요령

▶ 접수기간 : 2009년 월 일 ~ 2010년 월 일

▶ 보낼 곳 ①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사이버문학상 담당자(우편번호 120-040)

보낼 곳 ② : writing@sdu.ac.kr

▶ 입상작 발표 : 2010년 월 일 서울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밝혀진 작품은 입상 결정 후에도 취소됩니다. 원고 첫 장에 주소, 성명(필명일 때는 본명을 필히 기입),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써야합니다. 원고가 든 봉투에도 ‘사이버문학상 응모작’ 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역시 마찬가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보낼 곳 ①과 보낼 곳 ②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보내주시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공모부문

시 : 5편 이상

3. 공모대상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전 국민

4. 당선 상금 및 특전

당선작 - 5백만원, 계간 『시작』에 작품 게재, 등단시인으로 인정

가 작 - 2백만원, 계간 『시작』에 작품 게재, 등단시인 인정 여부 작품 심사 후 결정

SDU

•

디지털 문학

•

제3호

•

2009



SDU
SEOUL DIGITAL UNIVERSITY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 차례 ||

|| 발간사 이명랑 교수 · 8

|| 교수문단

| 시

- 이재무 몸살 · 13
라면을 끓이다 · 14
깊은 눈 · 16
오봉옥 거미와 이슬 · 18
편지 · 20
나를 만지다 · 21

| 소설

- 정도상 겨울, 압록강 · 22
이명랑 사령 · 38

| 동화

- 임정진 봄꿈을 꾸는 개구리 · 62

| 평론

- 임헌영 제도적 문학과 반제도 · 67

|| 학생문단

| 시

- 강정숙 물의 집 • 87 / 진도 완창 • 88
곽다영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한 • 89 / 서른 살 해바라기 • 90
곽미영 바람폭포 • 91 / 동자꽃 • 92
김경훈 떠도는 떡구름 • 93 / 바다를 건너는 칭기즈칸 • 94
김형출 접시 • 96 / 기다림의 순간 • 97
노정숙 경의를 표함 • 98 / 향기行 • 99
류제희 불혹 • 100 / 가을 산 • 102
박병식 이제 그만 살고 싶어 • 103 / 불의 나라 • 104
박 훈 떠나고픈 가랑잎 • 105 / 늦가을 산을 오르며 • 107
손선옥 하루 • 108 / 당신 • 109
심희수 밥의 무게 • 110 / 완두콩 어머니 • 111
안민숙 마리화나를 위하여 • 112 / 그믐 • 113
안장수 태봉胎封에서 • 114 / 소백산 • 116 / 다시 삼강주막에서 • 118
엄치현 증발해 버린 지난날 • 120 / 어머니 • 122 / 헐벗은 이웃들에게 • 123
유시경 가을, 수덕사 • 124 / 눈물의 여왕 • 126
유원희 걱정의 빛깔 • 127 / 행운이발관 • 128
이주영 그녀에게 • 129 / 병 속의 시간 • 130
정건우 평화여인숙 • 131 / 거룩한 방뇨 • 132 / 절벽 • 133
한필애 진실의 순간 • 134 / 인간시장 • 136
허소미 밤길 • 138 / 겨울날의 안부 • 139

(동시)

- 김미영 냇물이 • 140 / 진곤이 • 141

| 소설

- 김수진 내 아들의 장례식 • 145
목미정 초록불에서 멈추다 • 148
박인해 그 눈빛 • 152
진수지 여름 • 157
허광웅 석양 무렵 • 160 / 어느 수채화 전시장 풍경 • 174

| 수필

- 노정숙 모든 죽음에는 타당성이 있다 • 179
정애령 활주 • 182
최경호 희망의 언덕 • 184
한성희 신발 • 194

| 동화

- 김경훈 하늘 궁전 • 199
박민서 하니와 두니 • 206

| 시나리오

- 김명자 그림일기 • 215

| 사이버문학상

- 성백선 분합문 • 224
에어리엄낭거미 • 226
독살꽃 • 228
뚜껑 • 230
아침, 모네의 정원 • 232
바퀴 • 234
갈릴레이 망원경 • 235
유원희 별을 파는 여자 • 236
1-day • 238
담벼락 병동 • 239
작업복 이력서 • 240
구로동엔 펭귄이 산다 • 241
심사평 • 242
당선소감 • 244

발간사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즈음이면 반성과 각오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지난 한 해 나는 내가 진정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반성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나를 기쁘게 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도 나를 지켜보며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불행이나 행복은 전염성이 강해 내가 불행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고,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나’는 어떻게든 행복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예창작학부의 학우들이야말로 이 단순한 진리, 그러나 삶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야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쫓아 지위와 돈과 명예를 탐할 때, 우리 문예창작학부 학우들은 책에 밀줄을 긋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한 걸음 멀찍이 물러서서 우리네 사는 모습을 관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늘 그 가슴 속에 물음표를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쉽 없이 고민하고, 밤을 벗 삼아 글을 씁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말이지요.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지난 한 해에도 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우가 시인으로, 소설가로 등단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으며, 책도 발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권의 문집을 엮어냅니다. 이번 디지털 문학 제3호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위협하는 모든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흘러야했던 여러분의 땀방울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작품과 학생들의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비평에 이르기까지, 여기 실린 글들에는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스스로 많은 것들을 도려내야했던 아픔 또한 스며있습니다. 올 해로 제2회를 맞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당선작도 수록되어 있는 바, 한 편 한 편 밥알을 씹듯 꼭꼭 잘 씹어 드시고, 문학 아닌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주린 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교수 이명랑

교수문단

이재무 (시)

오봉옥 (시)

정도상 (소설)

이명랑 (소설)

임정진 (동화)

임헌영 (평론)

教授 文壇

몸살 外 2편

이재무

감기와 사랑, 구두에 달라붙는 진흙 같은 집착
저만큼 밀어내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슬그머니 스며와 생활을 물고 흔든다
지천명 코앞에 두고 찾아온 바이러스
벼르고 왔는지 가난한 집에 들른 식객처럼
좀체 나갈 줄 모른다 바이러스도 진화를 한다
요즘 것들은 성깔이 지랄 같아서
질긴 살가죽 잘근잘근 씹기도 하고
성긴 이빨로 뼈마디 갉아대기도 한다
몸에 장기투숙하며 긴한 약속 깨뜨리고
식욕도 의욕도 뿌리째 흔들어놓는다
덜컹한 나를 쓰러뜨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스리고 주무르는 동안
아, 아무도 미워하거나 시기할 수 없고
누구도 간절히 그리지 않다
몸살에 치를 떠는 동안 나는, 축축한
이불 훌훌 털고 일어나 그저
밥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것만 소원한다
생활이 피우는 애증의 불꽃 가물가물 시들 때에야
활동을 끝내고 몸을 나가는,
그러나 사는 동안 도가 넘치면 다시 찾아와
허황된 욕심 또 아프게 채찍질할 것이다

라면을 끓이다

늦은 밤 투덜대는, 집요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신경 가파른 아내의 눈치를 피해
주방에 간다 입다문 사기그릇들
그러나 놈들의 침묵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극보다 반응이 훨씬 더 큰 놈들이다
물을 끓인다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실업을
사는 날이 더 많은 현 냄비는 자부가 가득한
표정이다 물 끓는 소리 요란하다
한 여름 밤의 개구리 소리 같다
모든 고요 속에는 저렇듯 호들갑스런 소음이
숨어 있다 어제 들린 숲 속 직립의 시간을 사는
침묵 수행의 나무들도 기실은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소리를 감추고 있을 것이다
찬장에서 라면 한 봉지를 꺼낸다
라면의 표정은 딱딱하고 각이 져 있다
그들이 짠 스크럽의 대오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끓는 물 속에서

그들은 금새 표정을 바꿔
각자 따로 놀며 흐물흐물 녹아내릴 것이다
저 급격한 표정 변화는 우리 시대의 슬픈 기표다
얼마 후 나는 저 비굴 한 사발로 허겁지겁 배를 채울 것이다
도마 위 양파, 호박, 파 등속을 가지런히 놓아두고
칼을 집는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다 그의 눈빛은 매섭고
날카롭다 그는 세상을 나누기 위해 나타난 자인 것이다
놓여진 것들을 다 자르고도 성이 안찬 노여운 그는
늦은 밤을 이기지 못한 내 불결한 식욕을, 지난한
허기의 관성을 푹 찢어올는지 모른다
냄비 속 부글부글 끓는 것은 그러므로 라면만은 아닌 것이다

깊은 눈

마을 회관 한 구석 고물상 기다리며
한 마리 늙고 자찬 짐승처럼 쭈그려 앉은,
흙에서 멀어진 적막과 폐허를 본다
젊어 한때 쟁기가 되어 수만 평의 논 갈아엮을 때마다
무논 젖은 흙들은 찰랑찰랑 얼마나
진저리치며 환희에 들떠 바르르 떨어됐던가
흙에 생 담궈야 더욱 빛나던 몸 아니었던가
눈일 끝나면 밭일, 밭일 끝나면
읍내 장터에, 잔치집에, 떡방앗간에, 예식장에, 초상집에
공판장에, 면사무소에, 군청에, 시위 현장에
부르는 곳이면 가서 제 할 도리 다해온 그였다
눈 많이 내렸던 그해 겨울밤은 만취한 주인 실고 오다가
멀쩡한 다리 치받고 개울에 빠져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저 또한 팔 다리 빠지고 어깨와 허리 크게 상하기도 했던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노동의, 그 오랜 시간을
에누리 없이 오체투지로 살아온 그가 오늘은
바람이 저를 다녀갈 때마다

저렇듯 무력하게 검붉은 살비듬이나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몸의 기관들 거듭 갈아 끼우며
겨우 오늘에까지 연명해온 목숨 아닌가
올 봄 마지막으로 그가 갈아 만든 눈에
실하게 뿌리내린 벼이삭들 달디 단 가을 별
쪽쪽 빨아 마시며 불어오는 바람 출렁, 그네 타는데
때 늦게 찾아온 불안한 안식에 좌불안석인 그를
하늘의 깊은 눈이 내려다보고 있다

이재무 : 시인, 1983년〈실천문학〉통해 작품활동시작

시집《위대한 심사》외 다수, 계간 시작 편집주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거미와 이슬 外 2편

오봉옥

거미의 적은 이슬이다
끈끈이 점액질로 이루어진 집은
이슬의 발바닥이 닿는 순간
스르륵 녹기 시작한다
녹녹해진 거미줄로는
그 무엇도 붙들 수 없어
허공을 베어 먹어야만 한다

거미는 숙명적으로
곡마단의 곡예사가 된다
가느다란 줄에 매지어 매달리는 이슬을
곡예사가 아니고선
다 털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의 삶은 공처럼 부드럽다
곡예사는 이슬을 발가락 끝으로 통
통 통겨보기도 하고
입으로 빨아들여 농구공처럼 툭
툭 내쫓기도 한다
작은 물방울들을 눈덩이처럼 굴러
크게 만들어놓은 뒤
새총을 쏘듯이 거미줄을 당겼다 놓아
다시금 새하얀 구슬들로 쏟아지게도 한다

이슬을 다 걷은 거미는
괜시리 한번 거미줄을 튕겨본다
오늘도 바람이 불면 그물망 한 가닥
기둥처럼 붙잡고 흔들릴 것이다
그 뿐인가,
팽팽한 줄이 퍼덕이는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짓기도 할 것이다

편지

옛날에 끈날에 방귀끼나 끼는 사람들은 머슴을 시켜 서찰을 전달했다. 머슴은 서찰을 품고 불알에서 핑경소리 나듯 달렸다. 궁정에서는 말馬이 말을 신고 달리게 했다. 채찍이 휘휘 말의 옆구리를 휘감을 때마다 핑경소리는 더 요란했다. 딸랑딸랑딸랑, 말 목에 달린 방울이며 말과 과발꾼의 불알이 하모니로 울려대는 소리였다. 불을 뿜는 기차가 등장하자 핑경소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사람들은 다음날 화살처럼 날아온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세상에나! 요즘엔 문자로 총을 쏘는 아이들이 많다. 새파란 처녀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친구랑 조잘거리며 화면도 보지 않고 문자를 쓰고 날린다. 손가락으로 톱, 이 세상 이야기를 넘겨주고 손가락으로 톱톱, 저 세상 이야기를 되받는다. 총알처럼 빠르다. 안녕, 하는 순간 ‘안녕, 내일 봐’ 까지를 읽어내고 ‘그래’ 하는 말을 날린다. 세상에나! 잠시 즐다가도 그녀는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딸년의 거둬지는 총질에 핸드폰부터 치켜든다. 여보세, 라고 말하려는 순간 ‘됐어’ 라는 문자가 다시 가슴에 와 박히고 나는 죽는다.

나를 만지다

어둑발 내리고 또 혼자 남아 내 몸을 가만히 만져보네. 얼마만인가. 내가 내 몸을 만져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그래, 기계처럼 살아왔으니 고장이 날만도 하지. 기름칠 한번 없이 돌리기만 했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이제 와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 몸 곳곳의 나사들은 붉은 눈물을 줄줄 흘릴 뿐이네. 필사의 버티기는 이제 그만, 급기야 나사 하나를 바꿔볼까 궁리 하네. 나사 하나쯤 중국 산이나 베트남산이면 어때, 벼락 맞을 생각을 하기도 하네. 어둠 속에서 난 싸늘하게 굳은 나사 하나를 자꾸만 만져보네.

오봉옥 : 시인, 1985년 창비 신작시집으로 등단,

시집 《나 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겨울, 압록강

정도상

집안(集安)에 가서 여자를 찾아야만 했다.

영하 25도의 아침이었다. 칠보산 호텔 주변을 산책하는데, 만주 봉천의 칼바람이 옷자락을 마구 헤집고 들어왔다. 귀는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고, 코끝은 빨갱게 얼어 따끔거렸다.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 가시처럼 마음을 쿡쿡 찔렀다. 어제 밤, 단골 안마사인 미나한테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좋았을 걸. 언제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이 먼저 방정을 떠는 것이 문제였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미나가 덜컥 같이 가겠다고 해버렸다. 아차, 싶었지만 주위 담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키도 작고 몸매도 가녀린 미나는 집안이 고향인 조선족 처녀였다. 곧 미나가 호텔 앞으로 올 시간이었다.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 가방을 썼다. 가방을 끌고 호텔을 나오자마자 후회가 칼바람처럼 밀려왔다. 그 여자의 전화번호는커녕 심지어는 주소도 모르고 있다는 게 영 찝찝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여자가 집안에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는데, 그것도 지난 초가을의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쪽지에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그걸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이다. 칠보산 호텔 앞에서 인민해방군의 어린 병사들이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을 무심히 보면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

다. 미나가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나를 불렀다. 미나는 칠보산 호텔 이라면 칠색팔색이었다.

집안행 버스를 타는 곳은 상상 밖의 장소에 있었다. 버스터미널이 아니라 여기저기 골목에 장거리 버스들이 행선지별로 드문드문 서 있었다. 가방을 질질 끌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다가 간신히 집안행 버스를 찾았다. 차장한테 돈을 치르고 버스에 올랐더니 공중변소에 들어온 듯한, 큼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이방인이었다. 드러내놓고 냄새를 탓할 수는 없었다. 헛기침을 하고 뒤쪽의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갑자기 난방이 잘된 버스 안에 들어오니 온몸이 근질거렸다. 얼굴이 퐁퐁 붓는 느낌이 나면서 눈이 아팠다.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뒤에 눈두덩을 꺾꺾 눌렀다. 손바닥이 눈을 가리자 문득 기묘해졌다.

‘가지 마!’

망막 깊은 곳에서 외마디 절규가 울려나왔다. 어둠 저 편이 철로 위로 거대한 빛이 달려오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지 마!’

단말마의 비명처럼 소리쳤으나 지하철의 하얀 빛 속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들었다. 빛은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찰나의 순간에 세상은 검게 변했다. 하늘도 땅도 내겐 온통 검었다. 끄응, 가슴 저 밑바닥에서 깊은 신음소리가 올라왔다.

“괜찮아요?”

미나가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미나가 목덜미를 주물렀다. 미나의 손을 가만히 밀어낸 뒤에, 눈을 떴다.

이마에 진땀이 끈적하게 배어났다. 다시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짧은 기억은 악몽으로 변했고, 연탄불처럼 뜨거워진 머리는 좀체 식지 않았다. 버스는 예정된 시간을 넘겼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엔진만 데우고 있었다. 남아있는 빈자리를 모두 채울 요량인지 때에 찌든 두툼한 코트를 입은 차장이 버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호객행위를 했다. 잠시 후, 머리에 큼직한 보파리를 이고 아이를 손에 잡은 아낙네가 허겁지겁 뛰어오는 게 보였다.

그 뒤로 노숙자 차림의 늙은 남자 하나가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뛰고 있었다. 혹시 버스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과 다급함이 뒤통지에 담겨 있었다.

보따리를 버스 옆구리에 넣고 아낙네가 아이를 데리고 버스에 올랐다. 두리번거리며 빈자리를 찾는 여자는, 윗입술이 쭉 찢어진 언청이었다. 반면에 아이는 너댓 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애였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탐이 날 정도로 아주 귀여웠다. 맞춤형 자리가 없어 그들은 바로 내 옆에 함께 앉았다. 이어 때에 절어 기름기가 반들반들한 늙수그레한 남자가 버스에 탔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자글자글했고 수염엔 밥알이 붙어 있으며 앞니는 빠져 있었다. 손에는 짙은 고무마 두 개와 생수병이 들려 있었다. 그 남자는 언청이 어미 품에 안긴 아이에게 짙은 고무마를 들려주었다. 손톱 가득 검은 때가 낀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져주는 그 남자의 눈길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가슴이 뭉클했고 아팠다. 아이의 볼에는 바람이 거칠게 할퀴고 간 흔적이 가득했다. 바람은 아이의 양볼에 붉은 사과처럼 동상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언청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서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이어서 무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바람이었다. 쪼개진 언청이의 윗입술 사이로 빠져 나와 말이 되지 못하는 바람 소리에는 알아듣기 힘든 조선말이 섞여 있었다. 살짝 얼음이 뻐 딸의 볼에 깊은 뽀뽀를 하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눈에 슬쩍 눈물이 비쳤다. 머루처럼 깊고 예쁜 눈을 가진 딸은 늙고 못난 아버지를 향해 작은 손을 예쁘게도 흔들어 주었다. 두어 걸음 걷던 남자는 돌아서서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꾸러민 십 위안짜리 지폐 몇 장을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다. 낡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으며 어린 딸을 위해 육신을 고단하게 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세상의 저 술한 아버지의 하나였던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남편이 내리고 버스문은 닫혔다. 버스가 슬슬 움직이자 언청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짖어냈다. 남편은 버스 밖에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며 코를 팽 풀어 바지에 속속 닦았고, 어린 딸은 버스 안에서 흘러내리는 누런 코를 들이마셨다.

버스가 심양을 벗어나자 언청이 어미의 품에 안겨 있던 어린 딸이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좌석을 가득 채운 승객들은 어미와 딸의 소란을 잘도 참아주고 있었다. 언청이 어미는 딸을 토닥토닥 달랬지만, 딸은 마냥 울기만 했다. 미나가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주었다. 꼬마는 사탕을 받아 손에 쥐었다. 그러면서 배를 잡고 징징거렸다. 언청이 어미가 무어라 웅얼거리자 딸도 웅얼거렸다. 조선말이었지만, 주변 사람들과는 통하지 않는 그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마침내 언청이 어미가 버스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겹겹으로 입힌 딸의 옷을 벗겨냈다. 세상에, 여기서?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청이 어미는 단호하게 딸의 엉덩이를 까놓고는 신문지 위에 앉혔다. 어린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가를 했다. 버스 가득 지독한 구린내가 퍼졌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언청이 어미와 그 어린 딸을 나무라지 않았다. 응가를 마치고 밝게 웃는 아이를 미나가 번쩍 안아 올렸다. 그 사이에 언청이 어미는 딸의 뒤통이를 깔끔하게 해냈다. 내게도 한 때는 자식의 똥이 전혀 더럽지 않던 적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침 열 시쯤에 심양에서 출발한 버스는 오후 네 시를 넘겨서야 집안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니 찬바람이 따귀를 후려치듯 몰려왔다. 머리가 찌임, 울렸다. 바람 속에 칼날이 섞인 느낌이었다. 영하 25도의 심양에서 맞던 바람과는 질 자체가 달랐다. 심양은 차라리 따뜻한 셈이었다. 집안의 냉랭한 공기는 고드름처럼 살에 짹짹 달라붙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를 잡기 위해 집안반점(集安飯店)으로 택시를 타고 곧장 이동했다. 방은 두 개가 필요했다. 미나와 한 방에 묵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미나와 함께 집안에 온 것은 무슨 흑심을 품어서도 아니었다. 정말이지 나는 그 여자를 찾고 싶었다. 여권을 내주고 수속을 밟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잠시 후, 미나의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섰다.

“왜?”

무슨 귀찮은 일이 생겼나 싶어 속에서 짜증이 슬그머니 일어났다.

“내 호구를 증명하는 게 없어서 방을 못 준다고.”

미나가 맥 빠진 얼굴로 대답했다.

“나는 괜찮고?”

“예.”

어찌다가 증명서를 두고 왔느냐고 묻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시시콜콜 따져봤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내 방에서 같이 자지 뭐? 어차피 침대도 두 개고.”

“그것도 안 된데요. 부부가 아니라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호텔 직원의 태도는 촌스럽게도 완강했다. 예상치 않은 문제에 부닥쳐 속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데 미나가 조선족이 운영하는 여점(旅店)도 괜찮으냐고 물었다. 미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가방을 끌고 호텔 밖으로 나오니 이미 칙칙처럼 검은 어둠이 도시를 점령한 뒤였다. 도로는 텅 비어 가로등만 웅등그레했다. 추위 속에서 한참을 기다려 간신히 택시를 타고 조선여점에 도착했다. 여점이라는 이름의 숙소는 한국의 여인숙처럼 초라했다. 미나는 의외로 방을 하나만 잡았다. 다행히 침대는 두 개였다.

집안의 밤은 깊었다.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셨다. 미나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노래에 집중하지 못했다. 무엇을 하든 즐겁지 않았고 자주 허탈해지곤 했었다. 노래방의 휘황한 조명을 보면서, 깊은 어둠 속을 달려오던 하얀 빛이 생각나 괴롭고 아팠다.

나를, 버리고 싶었다.

고비사막의 어느 언저리에 늑대가 뜯어먹다만 낙타의 뼈처럼 바람 속에서 오래오래 풍화작용을 하며 버려지고 싶었다. 마유주를 마시고 겔을 나섰다가 대초원의 강추위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는 유목민 사내들처럼 혹은 대지의 마지막 남은 몇 오라기의 풀을 찾아 나섰다가 얼음물에 거꾸로 처박혀 죽은 말처럼 온통 버려져 해체되고 싶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항문으로 작은 들쥐들이 들락거리며 내장을 파먹고, 늑대며 독수리가 달려와 머리통과 뼈만 남기고 모두 해치우고 나면, 바람이 내 슬픔의 뼈를 하얗게 표백시켜 주기를… 그것을 나는 벽제의 화장터에서 자식의 뼈를 만지며 간절히 소망했었다.

좁고 어두운 집안의 밤, 미나는 노래했고 나는 망연히 바라보았다.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낯선 언어가 흔들리는 방 안에서 나는 외로웠다. 여점으로 돌아와 각자의 침대에 누웠다. 술기운이 오른 미나는 약하게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온갖 망상이 가뭇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망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 가방 속에서 책을 꺼내 읽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았다. 결국 노트북을 컴퓨터를 꺼내 시시껄렁하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도 엉성한 영화를 하염없이 보았다. 그러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미나의 옷을 벗기고 섹스하는 상상에 빠져들기도 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대충 눈곱만 떼고, 여점 밖으로 나가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만두 몇 개와 멸건 죽으로 아침을 때웠다. 다른 음식들도 있었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먹질 못했다. 어쨌든 1위안짜리 치고는 훌륭한 아침식사였다. 식당에서 나오며 미나는 광개토왕비를 보러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내 관심은 광개토왕비가 아니라 그 여자였다.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것은 ‘2005 국제고구려학회’가 열렸던 작년 초가을이었다.

북의 사회과학원 학자들, 남의 여러 대학에서 온 학자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교포학자들이 심양에 모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가 끝나자 집안으로 고구려 유적 답사를 떠나게 되었다.

나는 애초부터 불청객이었다. 북의 보장성원으로 참가한 민족화해협의회 참사인 박이 심양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어, 보고 싶으니 와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나 또한 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던 터라 두 말없이 심양으로 날아왔었다.

심양에서 환인, 통화를 거쳐 집안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마음을 다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또한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어떤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 박에게 아주 오래 이야기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진심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때야 비로소 알았다.

사실, 당시의 나는 북을 미워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뻔뻔함이 싫었고, 문건 협상 때마다 마주치는 문장의 수준에 절망했다. 내 만년필은 북의 문장이나 어휘에 밀줄을 그고 테두리를 만들어 가차없이 지워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 의해 ‘악질반동’이 되었다. 남에서는 주사파로 몰려 오래토록 왕따를 당해왔는데, 북에서는 악질반동이 되는 순간을 자주 감당해내야만 했었다. 내가 쓴 평화와 그들이 쓴 평화라는 어휘는 매번 그 뜻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 고민을 어느 선배에게 말했더니 미움이 절정에 오르다가 나중에 다시 애정으로 바뀌게 된다고 크게 웃었다.

아무튼 박과 이야기하며 답사를 따라 다니는데, 집안에서 광개토왕비로 가는 길에 남측의 답사 주최자가 다가와 내게 참가비를 요구했다. 학술회의 참가비 전체와 답사비 전체를 합해 500달러 정도를 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학술회의에 온 것도 아니고, 학자들과 함께 호텔에 묵은 적도 없으며 기껏 버스 뒷자리에 끼어 앉아 세 끼니를 얻어먹었을 뿐인데 500달러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구려대학의 교수라는 그 자는 예외가 없다며 고집을 피웠다. 짜질하기 짝이 없는 그자의 태도에 구역질이 올라와 그동안 먹은 밥값과 버스비를 넉넉히 계산하여 90달러를 그의 얼굴에 뿌리고 버스에서 내려버렸다.

버스는 떠났고, 나는 낯선 도시에 홀로 남겨졌다. 중국말을 전혀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고적함이 꽤 마음에 들어 나는 배회를 즐겼다. 낡고 삭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들어선 작은 시장을 느긋하게 구경했고, 운동장에서 히히덕거리며 체조를 하고 있는 고중(高中)학교 학생들도 훑쳐보면서 걷고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보니 불쑥 강물이 나타났다. 강변을 따라 걷는데 표지석이 있었다.

암록강鴨綠江.

모래 한 줍이 들어간 듯 눈이 뻑뻑했다.

낯선 이물감 때문에 한참동안 암록강이라는 글씨를 쳐다보다가 표지석 아래 강물에 눈길을 던졌다. ‘암록강은 흐르고 있었다.’ 이념

과 체제, 국경과 의식의 밖에서 압록강은 도도하게 흐르며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어느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침묵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선 느낌이었다. 한 번도 고구려의 국내성과 압록강이 동일한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국내성 앞으로 압록강이 흐른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더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둔중해지고 말았다. 눈을 감았다.

한참 후에 눈을 뜨고 다시 압록강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 건너에는 낡고 오래된 도시가 이국적인 풍경으로 칙칙하고 낮게 엮여 있었다. 바보가 아니어도 북한의 어느 도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마음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졌고, 배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 새 두 마리가 서로를 희롱하며 강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보며 압록강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걸었다.

조금은 씩씩해진 마음으로 강 중간의 작은 섬과 바람에 나부끼는 느티나무와 붉은 구호와 허름한 차림의 사람과 찌그러진 삼륜차를 스쳐 지나갔다. 한참을 걷는데 시끄러운 중국어 사이에서 귀에 익은 조선말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지지리도 못난 어느 아낙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뜻 얼굴로 봐서는 오십은 족히 넘겨 보이는 아낙이었다. 그 아낙의 투박한 조선말이 반가웠다. 국경지대의 역센 억양이 묘하게도 마음을 울렸다.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려 그 아낙에게 안내를 부탁했다. 그 아낙네는 자기는 무식해서 안내 같은 것은 할 줄 모른다며 뒤로 뺐다. 나는 집안이 처음이고, 심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중국말을 전혀 몰라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시 부탁했다. 물론 안내비도 주겠다고 덧붙였다. 그 아낙네는 쑥스러워하며 맨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먼저 심양행 버스 시간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 아낙네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더니 시간을 알아보았다. 심양행 막차는 정오에 있다고 했다. 정오라면, 이미 막차는 떠난 뒤였다. 무슨 막차가 그리 일찍 떠나냐며 따졌더니, 그걸 어찌 아느냐며 아낙이 부끄럽게 웃었다. 하루를 더 묵으면서 집안을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택시라도 타고 심양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집안에서 심양까지 택시로 일곱

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였다. 반면에 택시비 천 위안은 싼 셈이었다. 아낙은 택시를 타는 것에 반대했다. 하루를 묵는다고 해도 버스를 타면 삼백 위안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아낙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못생겼지만 아낙의 얼굴에는 권¹⁾이 있어 보였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의외로 아낙은 조선족이 아니라 북조선 출신의 화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중국 국적을 회복한 한족이기 때문에 자주 강 건너 만포를 들락거린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통행증만 있으면 간단해요.”

아낙은 씨익 웃었다. 아낙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 고구려 유적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낙과 나는 근처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낙의 나이는 서른 여덟이었다. 만주의 찬 바람이 얼굴에 거친 흔적을 남겨서 그렇지 자세히 보니 주름도 별로 없었다. 나는 묻고 아낙은 대답했다.

강 건너 만포에 살 때, 열네 살에 열세 살인 배구선수를 만나 첫사랑에 빠졌다. 배구선수라 남자는 늘씬했고 잘 생겼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만나가며 사랑을 키우다가 만난 지 두 해가 지나 열여섯에 압록강의 갈대 속에서 처음으로 몸을 섞었다. 아낙은 압록강의 갈대숲을 가리키며 속스럽게 웃었다. 남자의 몸이 그리 좋은 줄 너무 일찍 알았다며 또 웃었다. 두 사람 모두 어찌나 몸 상태가 좋은지 갈대밭이나 보리밭, 으스스한 숲속이나 마을의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김없이 아이가 들어섰다. 아이를 지우려고 의사들한테 뇌물도 솔하게 바쳤다.

그렇게 세 번쯤 낙태를 했고 또 임신하자 스물에 결혼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열아홉 어린 남편은 밖으로 나갔다. 배구선수 출신인 그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옆 마을의 처녀들에게 눈독을 들이더니 길고

1) '권'이란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역어다. 첫 인상이 아무리 예쁘거나 잘 생겼어도 권이 없으면 점차 질리게 되고, 예쁘지 않거나 못 생겼어도 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친근해지고 매력 있는 사람들과고 어른들이 '권이 있다, 권이 없다'라고 말한다.

긴 바람 행각에 빠져들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은 총각으로 행세했다. 배구선수였기 때문에 처녀들에게 인기도 좋았다.

“북조선에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을 텐데? 어떻게 바람을 피웁니까?”

내가 물었다.

“참 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에서든 못 하겠어요? 마음이 문제지 장소가 문제겠어요? 창고도 있고, 산간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빈 교실도 있고, 호호호 갈대밭도 있는 걸요.”

아낙과 나는 크게 웃었다.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은 참고 참았으나 두들겨 패는 것은 끝내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제기했다. 만일 화교가 아니었다면, 이혼이 아주 어려웠을 터인데 북조선 국적이 아니라 아주 쉽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아낙은 쓰게 웃었다.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는 사내 아이 둘을 낳았다. 이혼을 하자마자 만포에서 혼자 사는 것이 버거워 집안으로 건너왔다며 깨진 이 사이로 피식 웃음을 내보였다. 슬픈 이야기를 할 때에도 웃을 줄 아는 여자였다.

“한국엔 가봤어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가보고 싶지 않아요.”

아낙이 도리질을 쳤다.

“왜요?”

“한국 사람들 나빠요. 특히 선교사들은 정말 나빠요.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 주고 만포가서 뭐, 못 사는 사람들 찍어오면 돈을 준다고 하고, 탈북자라고 하기만 하면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긴다고 그러고, 집안에 와 있는 탈북자들 찍어달라고 하고, 순 저질들이예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뭐 인권 그러는데, 순 입에 발린 거짓말이에요. 한 때는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만포에 살아요. 가난하지만 집안보다도 만포가 좋다네요. 집안은 복잡하고 답답해서 싫대요.”

아낙은 압록강이 흐르는 강변의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명절 때면 만포로 건너가 새끼들도 만나고, 두고 온

어머니도 만나는 것이 낙이라고 했다. 식당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니, 사백 위안 정도 된다고 대답했다. 사백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오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 돈을 모아 옷이나 음식을 사서 보따리에 이고 만포로 건너가는 아낙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사는 게, 참, 그랬다.

“남편은요?”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만포가면 만나요?”

“애들 보려면 만나야지요.”

“다른 여자랑 사는 남편인데, 혹시 증오하진 않아요?”

“첫 남자인데…… 밍지 않아요.”

콧등이 시큰하게 아파왔다. 불현듯, 못한 이 아낙네가 사랑스러웠다. 아낙은 집안의 여기저기를 안내해주며 언뜻언뜻 북조선에서 보냈던 한 시절에 대해 회고했다.

아낙과의 이야기 여정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심양에서 박이 득달 같이 전화를 해댔다. 그렇게 불쑥 내려버리면 미안해서 어찌냐며 당장 심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너무 늦었으니 내일 보자고 해도 새벽 열차로 평양으로 돌아가니 아무리 늦더라도 심양으로 돌아와 술 한 잔 하자고 즐랐다.

나는 아낙과 더 있고 싶었지만 박에게 아직 못 다한 말이 남아 있었다.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주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날 것의 생각처럼 피가 푹푹 묻어나는 이야기를 끄집어 내고 싶었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기로 했다. 아낙이 아는 사람을 통해 팔백 위안으로 택시비를 깎아주었다. 택시에 오르자 아낙은 다음에 꼭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은 쪽지를 내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겨울 압록강, 강물 위에서는 물안개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영하 30도의 허공으로 올라와 자욱하게 퍼진 물안개는 즉시 얼어 안개눈이 되어 펄펄 쏟아져 내렸다. 강가의 줄지어 선 느티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하얀 느티나무가 미친

듯이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었다. 압록강은 안개는 속에서 조용히 흘렀다. 압록강으로 나온 이후 미나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집안이 고향이라면서 집에 가보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를 찾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멀리 중국의 집안에서 북조선의 만포(萬浦)를 연결하는 철교가 보였다. 그 위로 트럭 한 대가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다. 내린 눈 위에 또 다시 함박눈이 쌓인 압록강의 풍경은 온통 하얀 설국(雪國)이었다. 깊은 눈 속에 갇힌, 오갈 데 없는 남녀의 연애가 아스라하게 펼쳐질 것만 같은 풍경의 압록강에 함박눈이 노래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함박눈은 순식간에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눈사람이 되어 걸으며 식당마다 들러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살피며 그 여자를 찾았으나 도무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름도 성도 모르고, 주소도 없이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무모를 감당해야만 했다.

압록강을 따라 줄지어 선 식당을 다 뒤지고 다녔지만 허탕이었다. 몸이 언 빨래처럼 꽂꽂했다. 언 몸을 풀어줄 얼큰한 국물이 간절했다. 미나한테 신라면이 먹고 싶다고 했다. 집안에 한국 신라면이 어디 있겠냐며 미나가 싫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하는 수 없이 조선족 식당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미나는 조선족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또 얼굴을 찌푸렸다. 집안이 고향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불멘소리를 했다. 마침 눈길에 슬슬 기어가는 택시가 있어서 무조건 탔다. 미나한테 집안에서 제일 유명한 조선족 식당에 가자고 말하라고 시켰다. 미나가 무어라 말을 하자 택시는 집안 시내 방향으로 겨우 한 모퉁이만 돌더니 어느 식당 앞에 멈춰 섰다. 걸어서 오 분도 미처 걸리지 않는 거리여서 짜증이 났다. 계다가 한 눈에 보기에 식당은 지저분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무슨 쓰레기장에 온 기분이 들었다.

식당에 들어가 두부찌개와 된장찌개 중에서 고민하다가 두부를 광적으로 좋아하던 아들이 떠올랐다. 견뎌보기로 하고 두부찌개를 주문했다. 기억은 언제나 기습적으로 나를 덮쳤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엉뚱한 곳에서 느닷없이 치밀어 오르는 추억 때문에 내 가슴에 자리잡은 열네 살 아들의 무덤엔 풀이 자라지 않았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아

들을 묻고 돌아오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그 아들이 어느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멸치를 듬뿍 넣어 우려낸 국물에 두부를 반 모 크기로 큼직하게 너댓 덩이나 넣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듬뿍 넣은 찌개는 일품이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아들과 속엿말을 주고받으며 두부찌개를 먹었다. 식당의 걸모습과는 전혀 판판인 음식맛에 놀라며 대체 요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두 그릇이나 해치웠다. 한 그릇은 아들 몫이었다. 먹을 때는 몰랐는데 밥을 다 먹고 나니 슬픔이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었다. 잠시 수저를 들고 먹다 남은 두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찌개 그릇 안으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요즘 들어 눈물이 너무 해웠다.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담배를 입에 물고 두리번거리는데, 너댓 살쯤 된 여자 아이가 재떨이를 들고 쪼르르 달려왔다. 세상에, 아이는 버스에서 응가를 하던 그 꼬맹이었다. 너무 반가워 번쩍 안아들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 아이가 부끄러워하며 주방으로 뛰어갔다. 뒤를 따라 가보니 언청이 아낙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어미 품에 안겨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흑진주처럼 반짝거렸다. 예뻐다. 데려다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다시 그 여자를 찾아 나섰다. 어느 식당에서 강 건너 만포가 잘 보이는 철교 아랫마을에 가보라는 소식을 들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갔다. 택시에서 내렸지만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 그 여자의 흔적을 뒤져야 하는지 몰라 참으로 답답했고 막막했다. 그저 택시를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강변에 서니, 강 건너에 만포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보였다. 뿌연 안개는 속에서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확연히 보였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오르고 있었고 멀리에서 기적소리가 아스라했다. “어이, 여복세! 김씨~!” 라고 부르면 길을 걷던 김씨가 금방이라도 손을 흔들어줄 것만 같았다. 흐르는 강물의 중간을 국경선으로 정해놓는 바람에 삶의 공동체와 순환이 깨져버린 만포와 집안의 아득한 풍경 속에 나는 오래오래 서 있었다. 그 사이 미나는 압록강으로 내려가 물에 얼굴을 비추며 앉아 있었다.

나는 혼자 상상했다.

고구려 시절,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으리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며 연애하고 혹은 연애에 실패하며, 상처받고 상처주며, 노동과 음식을 나누고, 어린 것들을 결혼시켜 자손을 낳으며 살았을 터였다. 저 강은 국경이 아니라 함께 빨래를 하고, 고기를 잡고, 눈에 물을 대는 공동의 재산이었으리라. 강 건너편의 농부 총각과 고구려 왕이 살았던 국내성의 어느 고관집 하녀였던 언청이 처녀가 만나 결혼을 했고, 앞니 빠진 총각은 남편이 되었고 언청이는 아내가 되어 어여쁜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웃었을 풍경이 기록영화의 낡은 필름처럼 머리 속에서 차르륵 차르륵 소리를 내며 떠올랐다.

아니 고구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나와 있는 북조선 사람들 중에서 고위급으로 판단되는 인사를 골라서 서울로 데려오면서 어마어마한 선전공세를 퍼부었던 그 순간부터 이 공동체는 깨지고 말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포의 아낙네가 함지박 가득 콩을 머리에 이고 집안으로 건너와 옥수수며 양말 혹은 돼지고기 반 근으로 바꿔 다시 돌아가 식구들의 저녁을 해주었을 터였다. 혹은 집안의 총각이 만포의 처녀네 처마 밑에서 강둑으로 나와 달라고 수작의 휘파람을 불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통행증이나 여권 혹은 비자가 필요한 국경이 아니었다면, 강을 사이에 둔 두 마을 사람들은 삶과 운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강은 국경이 되고 말았다. 국경이 되어 운명을 함께 나누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물안개는 피어오르고, 허공으로 솟아오른 물안개는 영하 30도의 추위에 순식간에 얼어 안개눈이 되어 하늘하늘 내려와 속절없이 쌓였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마다 안개눈이 쌓여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풍경 속에는 그러나 상처가 가득했다. 미나가 압록강에서 올라왔다. 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울었느냐고 묻자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다시 그 여자를 찾아 떠돌았다. 이름도 성도 모른다는 것이 절망스

러웠다. 나의 부주의만을 탓하기에는 그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깊었다. 어쩌면 지금의 이 그리움은 그 여자를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흑한의 추위 속에서 컷불이며 코끝이 빨갛게 얼도록, 발가락을 흐르는 핏속에 얼음덩어리가 떠다니게 하고 싶었는지 몰랐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사당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곳 집안에 와서, 부재(不在)가 분명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자 문득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첫 남자가 밟지 않던 촌 아낙네의 풋풋함을 끝내 찾지 못했다.

심양 연변가(延邊街), 허름한 아파트의 더러운 유리창 앞에서 서 있다. 내 가슴은 더러운 유리창이었고, 그 유리창으로 보는 세상은 그러나 아스라했다.

사람처럼 늙어가는 아파트 뒤로 새로운 건물이 솟아오르고 있다. 언젠가는 낡고 더러운 이 유리창도 산산이 깨어져 기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말 운명이었다. 집안에서 돌아오자 미나는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다음 날 첫차를 타기 위해 조선여점에서 잘 때, 미나는 탈북자라고 고백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섰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안이 고향이란 말은 거짓말이었고, 함흥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미나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미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 마음은 지옥이었다.

미나는 한성안마로 일을 하러 나갔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미나의 말은 절박했다. 내가 전화를 하면 곧 출장안마를 나올 터였다. 이 아파트는 한 달만 동거하면 미나를 한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어느 한국인 사업가가 빌린 것이라고 했다. 한성안마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나 역시 그 한국인 사업가와 다를 바 없는 수컷이 아닌가 싶어 자꾸만 망설여졌다. 아니 나는 정확히 수컷이었다. 미나한테 함흥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출장 안마비를 지불해야 했다. 바람이 불었고 유리창이 흔들렸다.

더러운 유리창 사이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응시했다. 곧 함박눈이 쏟아질 듯 하늘은 흐렸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져 있었다. 자전거들이 잔설 속에 서 있다. 꿈의 마을로 달려갈 수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미나한테 선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 건너 아파트의 창문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니 콧등이 시큰하게 울렸다. 어둠과 함께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렸다. 나는 끝내 한성안마로 전화하지 않았다. 미나를 더 이상 기만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 더 있을 이유도 없었기에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²⁾

나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눈 속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그 때, 불쑥 미나가 나타났다.

“신라면 사왔어요. 먹고 싶었잖아요.”

라면이라는 말에 바보처럼 돌아섰다.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미나한테 아무 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미나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였고 나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저녁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라면 끓는 냄새가 풍겨왔고, 배가 몹시 고팠다.

정도상 : 소설가, 1987년 <15방 이야기>로 등단, 소설집 <친구는 멀리 갔어도>외 다수,
2003년 장편소설 <누망>으로 단재문학상 수상,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2) 정호승의 「맹인부부가수」중에서

사령

이명량

1

김 목사의 꿈 이야기는 우리를 매료시켰다.

“간밤에 제 꿈속으로 상기가 찾아왔습니다. 꿈에서 저는 자고 있었지요. 목사님! 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상기가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서 있다니요?”

김 목사와 성경 한 권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버님의 물음이다.

“네, 서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말이지요. 상기가 입은 그 흰옷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빛에 둘러싸인 그 모습이 영락없는 천사였지요.”

그 대목에서 아버님은 옆에 앉은 어머니의 손을 와락 붙들고, 어머니는 악 소리를 내지르며 아랫입술을 깨문다. 상기 도련님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보인 눈물이다.

김 목사는 내 결혼식의 주례를 썼고, 가족 행사 때마다 초청되어 덕담을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늘 장황했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루했기 때문에 두 분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들 모두 그와 그의 설교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목사의 꿈 이야기만큼은 내게도

위안이 된다.

충전이 덜 된 핸드폰의 배터리의 눈금이 세 칸 모두 채워지기를 기다리다 나는 남편의 차에서 깜빡 선잠이 들었었다. 눈앞에 차례로 세 개의 산이 나타났다. 셋 모두 아찔할 만큼 높아 아이가 이제 막 첫 번째 산을 내려와 두 번째 산을 오르자 내 가슴이 다 두근거렸다. 아이는 땅에 배를 붙이고 기어갔다. 아이가 오르는 산은 그 산을 오르는 자, 그가 누구이든 머리를 조아리고 네 발로 기어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을 내주지 않을 듯했다. 아이가 그것을 움켜쥔 아이의 손보다도 힘이 없어 보이는 풀포기에 매달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때마다 나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세 개의 산을 넘어와 아이는 일어섰다. 아이의 다리는 힘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해낸 일이 흐뭇한지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서 있는 그 얼굴, 그것은 내 아이, 준표의 얼굴이었다.

아악!

나는 비명을 내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 때문도, 비록 꿈속에서라지만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겨우 21개월 밖에 안 된 아이에게 저토록 험한 산을 넘도록 강요한 그 무엇을 향한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준표의 등 뒤로 나타나 제 그림자로 아이의 그림자를 집어삼킨 아귀 때문이었다. 아귀는 몸은 호랑이, 머리는 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준표가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걸음은 온전하지 못했고, 돌부리 하나 없는 평지에서도 넘어졌다. 아귀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든 준표의 인간함을 지켜보았다. 이 아귀가 마음 내킬 때 언제든 달려들어 그 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먹잇감을 재미삼아 풀어놓고 즐기는 동안에도 아이는 뛰다가 걷다가 이제는 네 발로 기고 있었다.

그 앞에 세 갈래 갈림길이 나타났다. 아이는 숨도 내쉬지 않았다. 어느새 아이와의 거리를 바짝 좁힌 아귀가 재촉하듯 꼬리로 땅바닥을 후렷했다. 뿌연 흙먼지가 날아올랐다. 먼지가 걷히고 선명해진 그 갈림길 앞에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들리지 않는 줄 뻘히 알면서도 나는 소리쳤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이유는 없었다. 저 세 길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래야한다면, 나는 내 아이가 오른쪽 길로 가길 바랐다. 그러나 준표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가운데 길로 들어섰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귀는 미처 날뛰기 시작했다. 부리로 몸을 쪼아대는 아귀를 뒤에 매달고 준표는 앞으로 기어갔다. 단조로운 흠뻑이던 길은 곧 아이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와 아귀의 발자국으로 뒤덮였다. 들어올린 아귀의 앞발이 아이의 등쪽에 내리꽂히고,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도 끝장나는 순간에 아이는 한 남자의 품에 안겼다.

남자는 말라 물기마저 찾아볼 수 없는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남자의 등 뒤로 바람이 불어와도 출렁이지 않는 연못이 있고,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으나 한 눈에 보아도 이 세상 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흰꽃 하나가 봉오리를 열지 않은 채 수면 위로 떠올라 있었다.

아귀가 아이를 내어놓으라 소리쳤다. 남자는 차라리 이 아이의 무게만큼 자신의 살점을 베어가라고 했다. 아귀는 남자의 살점을 베어 저울에 올려놓았다. 한쪽엔 아이가 한쪽엔 남자의 살점이 올려진 저울은 아이 쪽으로 기울었다. 남자는 다시 더 많은 살점을 베어가라고 했다. 분명 아이의 무게 이상의 살을 베어주었는데도 저울은 매번 아이 쪽으로 기울었다.

“아귀여, 나를 들어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오.”

남자가 말했다. 그제야 저울은 평형을 이루었다.

아-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누군가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어머님이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런 데서 잠을 자고 있으니, 너란 애는… 어머님의 못마땅한 목소리에다 대고 나는 차마 물을 수 없었다.

어머님, 꿈에서 어떤 남자를 봤어요. 그 남자와 준표가 한 저울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어머님 아세요? 그게… 상기도련님이었지 뭐예요. 도련님의 목숨과 우리 준표의 목숨을 맞바꾸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왜 하필이면 상기도련님과 우리 준표가! 어머님은 아세요? 네, 어머님?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소리내 물어볼 수도 없던 말, 그 말을 나는 김 목사 앞에서 다시 집어삼킨다.

김 목사가 보았다고 하지 않은가. 저리 장담하지 않은가. 천당에 갔다는데 무엇을 또 묻는단 말인가. 내 아이와 상기 도련님이 함께 올려져 있던 그 저울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김 목사의 꿈 아니라 더한 것도 나는 믿을 것이다.

남편은 안방에 마련된 영좌 앞에서 김 목사가 피워 올린 향을 내려다보고 있다. 흰옷을 입고 나타나 자신을 내려다보던 상기의 눈빛이 얼마나 그윽했으며, 빛무리에 둘러 싸여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감싸 안던 상기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김 목사 자신이 두 팔을 넓게 벌려 꿈에 본 상기 도련님의 흉내를 내자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든다.

“서 있는 걸, 정말로 보셨습니까?”

남편의 그 질문에는 불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상기는 천당에 간 거야, 김 목사가 자신이 보았고, 예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밖으로 나온다. 앞마당에는 남편의 직장 동료 몇몇이 동네 노인들과 섞여 막걸리 잔을 비우고 있다. 노인들은 일회용 종이컵에 프린트되어 있는 은행 마크를 가리키며 자네들 회사에서는 초상난 집에 이런 것들까지 챙겨서 보내주나, 과연 한국 최고의 은행은 다르다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 때마다 남편의 동료들은 노인들 앞에 공손히 잔을 내밀지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자부심만큼은 감추지 못한다.

일회용 종이컵에서 접시며 나무젓가락까지, 남편의 회사에서 동료들 편에 내려 보낸 종이상자 속에는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이 세세히 갖춰져 있다. 나는 그 종이상자 속에서 일회용 그릇 몇 개를 챙겨 들고 뒷마당으로 간다.

장독대 앞으로 향아리 두 개가 나란히 땅에 묻혀 있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뇌리를 스친다. 땅 한복판에 무언가 솟아 있었다. 카메라는 멀리에서부터 거리를 좁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더니, 내가 화면 속의 물체가 몸뚱이는 땅에 묻혀 있고 머리만 땅 위로 나와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핏빛으로 변해버린 들판을 클로즈업해 보여주었다. 시택에 내려올 때마다 동치미를 꺼내거나 김장김치를 꺼내기 위해 그 앞에 쪼그려 앉기를 수도 없이 반복

했던 항아리들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귀기라 불려도 좋을 어떤 기운이 나를 사로잡았다. 사람이 죽어서 그래, 나는 서둘러 항아리 뚜껑을 연다.

옛날에는 마누라를 여기다 물어버리기도 했다는구나. 독 속에 들어가면 바로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지. 너도 이 속으로 내려가 보거라. 이 속이 얼마나 깊고 몹서리쳐지는지. 풍문으로 떠도는 우스갯소리가 살갓을 뚫고 들어와 가슴 한복판에 툭하니 자리를 잡아버린단다. 독을 씻기 위해 이 속에 들어갈 때마다 끔찍한 내 맘을 몸이 먼저 알고 덜덜 떨어대지... 시집은 첫 해에 어머니는 땅에 묻힌 항아리들 앞에서 바가지 하나를 넘겨주었다. 어머님께서 바가지를 넘겨받았을 때 나는 바통을 넘겨받은 장거리 선수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한 걸음 뒤로 비껴 서서 나 하는 양을 지켜보는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고약할 수가 없었다.

내부를 어둠으로만 채운 항아리 앞에서 나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긴다. 발을 잘못 디더 저 안으로 떨어졌다가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으리라. 자, 이제는 네 차례다, 누군가 당장이라도 저 허방속으로 등을 떠밀 것만 같아 나는 뒷걸음질 친다.

어쩌면 내가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뒷덜미를 잡아 끈 것인지도 모른다. 등을 뚫고 들어온 냉기에 놀라 뒤돌아 봤을 때 내 시야를 가득 채우며 들어온 것은 문고리를 악물고 있는 자물통이었다. 나는 상기 도련님의 방문 앞에 매달려 있는 자물통을 움켜쥘다. 숨이 가빠진다. 이 앞에서는 뒷걸음질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물통의 열쇠가 상복 위에 걸쳐 입은 내 카디건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2

이 죽음을 오래도록 기다렸다. 어찌나 간절히 원했는지 도련님의 임종 순간, 우리의 뇌리를 스친 걱정거리는 하나뿐이었다. 각자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해방감과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만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근심이였다. 그러나 곧 우리는 죽음 앞

에서 의당 취해야할 기본적인 가식마저도 포기했다. 최소한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짓거나 곡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만약 가족 중의 누군가가 “아이고!” 방바닥을 치며 곡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곡하는 인간을 향해 “뉘져라!” 욕을 퍼붓고, 그 곡하는 인간에게 달려들어 그 멀쩡한 사지를 짓밟아주었으리라.

애써 슬픈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머느리인 나에게 그것은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나야말로 도련님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마지 않았던 장본인이니까.

그 밤 우리는 빙 둘러 앉아 도련님의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짓도 이제 마지막이려니, 생각하자 하룻밤쯤이야 못 버틸 이유가 없었다. 죽어가는 도련님을 가운데 두고 앉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다. 봐! 저기 눈앞에 고지가 있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는 결승선을 눈앞에 둔 마라톤 주자였다. 동시에 결승선 테이프를 끊은 선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관객이기도 했다. 죽을 자에게 입힐 수의는 몇 년 전에 마련되었고, 관에서 화장터까지,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꼼꼼히 준비해왔다.

문제는, 시간뿐이었다. 얼마나 빨리 죽을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로서는 준비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유일한 문제였다. 그래서 아버님은 도련님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 비영리 공익법인체에서 나눠준 장례절차에 관한 책을 읽다 말고 가끔씩 헛기침 소리를 내었으며, 아버님의 헛기침 소리가 방안의 정적을 깨면 우리는 동시에 벽에 걸린 벽시계를 쳐다보거나 핸드폰 폴더를 열어 시간을 확인하거나 했다.

아버님이 비영리 공익법인체에서 나눠준 장례절차에 관한 책을 거의 다 읽어냈을 무렵에 어머님은 벽장에 넣어둔 수의를 내왔고, 남편은 서울에서부터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왔던 탈지면을 꺼냈다. 남편이 비닐을 뜯고 그 안에 든 탈지면을 꺼내 숨을 한 주먹 뜯어내는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 비닐하우스에서 스티로폼과 비닐을 찾아왔다.

도련님의 죽음과 동시에 나는 내 인생의 그늘이 - 그 그늘은 장독대 앞에서 어머님이 내게 바가지 하나를 넘겨주던 순간에 함께 넘겨

받은 것이기도 했다 -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내가 스티로폼과 비닐을 찾아 들고 방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에 도련님은 죽었다. 도련님의 두 눈은 이미 감겨져 있었고, 도련님의 코밑에 올려놓은 숨은 숨결이 사라진 것을 증명함으로써 생(生)과 사(死)를 확연히 구분지었다.

임종의 순간을 상상하면 늘 함께 떠오르곤 하던 불거져 나온 핏줄과 너무 부릅떠 튀어나올 것 같은 눈과 도저히 인간의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부르짖음이나 저주 따위를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벌써 행운이 아닌가! 나는 죽어 움직이지 않는 도련님의 왼쪽 다리를 붙들었다. 내 옆에서 어머니는 내가 이 집으로 시집와 지낸 7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열의를 가지고 도련님의 오른쪽 다리를 잡았다.

“이 새끼가 끝까지!”

시신을 올려놓은 스티로폼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나간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의 머리카락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도련님의 사지를 주물러대던 남편의 손바닥은 별절게 부어 있었다. 죽은 자의 사지를 주물러대던 손으로 남편은 이제 자신의 손과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 옆에 앉아 아버님은 바지 주머니를 더듬다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담배를 아쉬워하며 대신 은단을 꺼내 입에 털어 넣었다.

수의와 관과 그 외에 뿔가루를 담을 유골함까지,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장의사를 부른다는 것은 쓸데없는 지출을 의미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장의사를 불렀다.

장의사 역시 혀를 내둘렀다.

죽기 전부터 화석이었던 도련님의 몸은 죽음과 더불어 더욱 단단해져 그 몸에 손대는 자 누구에게나 죽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새삼 일깨울 뿐이었다. 해서, 도련님은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 그대로, 왼쪽 다리가 밖으로 뒤틀리고 팔 하나가 어깨 쪽으로 접혀진 채로 묶여졌다.

도련님의 시신을 붕대로 묶다 말고 기어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게야 말았다. 남편의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다. 형제의 죽음 앞에서야 이유 없이도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이겠지만 그 순간에 남편이 흘린

눈물은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최소한 죽어서만큼은 사지를 곧게 펴기를,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마지막 모습만큼은 번듯한 것이기를 우리는 바랐다. 등을 곧게 펴고 두 다리를 쪽 뺀고 양손은 몸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잠을 자는 듯이 그렇게 편하게 갔더라면, 우리는 방바닥에 달라붙어있던 도련님의 벌레 같은 스물여섯 해를 우리가 본 마지막 모습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지막 모습은 해를 더해가며 미화될 것이고 그러다 종국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와 같은 맑은 눈빛을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사람쯤으로 우리는 도련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남편의 눈물은 슬픔이거나 후회이기보다는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애먹이고, 가족의 바람을 짓밟아버린 동생에 대한 원망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그 눈물은 우리의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서둘러 도련님의 시신을 흠이불로 덮었다. 도련님의 불구의 몸, 어느 한 군데라도 흑여 밖으로 비어져 나올까, 어머니는 도련님의 시신을 덮은 흠이불 끝자락을 몇 번이고 매만지는 것이었다.

좌르륵- 소리를 내며 병풍이 길게 펴지고 우리의 시야에서 시신은 사라졌다. 집 안 가득 냄새를 풍기던 쓰레기는 치워졌고, 우리는 각자 도련님의 사진을 가져온다, 향을 사른다,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사람의 신경을 잡아대는 쇠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고 호숙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근조(謹弔)라는 두 글자가 크게 씌어진 등을 내걸고 나서 이제야말로 끝났구나, 가벼워진 마음을 무거운 곡소리로 대신하던 중이었다.

3

호숙은 마당을, 우리는 병풍을 등진 채 대치하듯 앉아 있었다. 호숙의 등 뒤에서 너무 익어 가지에 매달린 채 말라버린 감 몇 개가 시월의 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그이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호숙의 말 뒤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호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포개어 쥐고 있었다. 더할 나

위 없이 공손해 보이는 그 두 손,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인상을 주는 호숙의 손에서는 발효유 냄새가 나는 듯도 했다. 어찌면 호숙이 요구르트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삼 년 전 추석, 연휴를 보내러온 시댁에서 나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상기 도련님의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물쟁반을 들고 나왔다. 쟁반 위에는 물주전자 옆으로 자잘한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요구르트 몇 개와 스테인레스 물컵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집 안에서 스테인레스 물 컵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기 도련님 뿐이었다. 도련님의 컵 위에 포개어져 있는 또 하나의 스테인레스 컵, 내 눈에는 그 컵이 여자만큼이나 낯설었다. 나는 여자가 상기 도련님의 방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그 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연휴 내내 나는 그 낯선 여자와 대면해야 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여자가 가져온 수십 개의 요구르트들이 야채 칸을 차지하고 있었고, 도련님의 방이 있는 뒷마당 쪽에서는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명절을 보내러 왔다는구나. 아무도 없대. 우리한테는… 잘 됐지.” 그 밤에 어머니는 미풍에 들어 올려진 모기장 자락을 요 밑으로 쭈셔 넣으며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열려 있는 미닫이문 밖으로 도련님의 방 앞에 벗어놓은 여자의 신발이 보였다. 방문은 닫혀 있고, 불 꺼진 방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여자의 신발만이 그 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가족이 아무도 없는 여자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운동화의 굽이 닳도록 걸어와서 저 방문 안쪽에 누워 있는 것이다. 여자는 이 밤을 보내기 위해 저 방에 잠자리를 마련했을 것이고, 어찌면 요 위로 올라가 주름진 곳은 펴고 뭉친 곳은 평평하게 매만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자가 그 잠자리를 사랑을 위해 마련했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남자와 요 위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이란 것은 나는 상상 속에서도 그려볼 수 없었다. 여자는 그저 외로울 뿐이다. 피붙이 없이 혼자 꾸러온 삶이 억울할 뿐인 거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여자를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 곁에 눕게 했으리라. 어찌면 여자는 상기 도련님의 말라가는 팔 다리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성한 몸뚱이에 감사하고 있을 지도 몰랐다. 그 몸에서 스멀스멀 생(生)이 빠져

나가고 있는 병자 곁에서 저렇게 한 사나흘 지내고 나면 여자는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삶에도 감사하게 되리라. 그러고 나면 아무 미련 없이 저 방문을 열고 나와 운동화를 켜어 신고는 저 방으로 들어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의욕에 넘쳐서 자신의 그 보잘 것 없는 생과 싸우려 갈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어머니의 말에 동조할 수 있었다.

“상기도 총각은 면하고 죽게 됐구나.”

어머니가 내신 안도의 한숨이 모기장을 흔들었다. 우리의 머리 위에서 모기장은 밤새 바스락거렸고, 나는 우리의 몸 속에 흐르고 있을 더운 피를 노리며 악착같이 모기장에 와 달라붙는 모기들을 노려보았다. 더러는 바로 내 귓가에까지 다가와 웅웅거렸지만 촘촘히 짜여진 그물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다.

“오늘이 며칠이지?”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내게 날짜를 물어보기도 했다. 비록 궁합을 보고 양가의 동의를 얻어 정한 날은 아니었지만 낯선 여자가 찾아와 상기 도련님의 방에서 밤을 지새운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길일이 되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명절에는 가족 예배를 보는 절실한 기독교 집안이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모두 영혼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죽은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며 산 사람에게 해를 준다는 말을 두 분은 믿었다. 귀신 중에서도 장가를 못가고 죽은 총각귀신의 한이 가장 깊다면, 저 골방에 은폐된 자신들의 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을 것이었다.

상기 도련님이 죽으면 도련님처럼 이 이승에 한을 남기고 죽은 여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중매쟁이를 보내고, 죽은 날을 생년월일로 해서 궁합을 맞춰보고 길일을 택하려 했었다. 신랑과 신부를 본뜬 아리따운 한 쌍의 인형을 만들어 결혼식을 올려주고, 신랑 신부를 한 이불 속에 넣어 첫날밤을 치르게 해주려 했었다. 그 어떤 산자의 결혼식보다도 성대한 결혼식이 될 것이었다.

저 방에서 낯선 여자가 하룻밤을 자고 간들 일어나 앓을 수도 없는 상기 도련님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총각 신세를 면할 것인지, 그것까

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기 도련님을 본떠 만들 신랑 인형과 한 이불 속에 들어가 누울 신부 인형이 누구를 본떠 만들어질 것이며, 그 신부 인형의 품에 넣어질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고, 생년월일이 언제인지는 알고 있었다. 도련님과 영혼결혼식을 올리게 될 그 여자의 이름은 박호숙이었고, 호숙이 상기 도련님의 방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낸 그 날이 바로 그녀의 저승에서의 생년월일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미 상기 도련님의 영혼결혼식을 치른 셈이었다. 그 뒤로도 가끔 호숙은 월차를 내어 도련님을 찾아왔다. 호숙은 매번 도련님의 방에서 자고 갔지만 아무도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다 호숙이 완전히 발을 끊었을 때도 누구 하나 호숙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상기 도련님은 죽기 전부터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과 영혼결혼식을 올린 셈인 호숙 역시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일뿐이었다.

“약속을…… 했어요.”

이미 호숙은 죽은 사람이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누구와 약속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호숙에게서 들어야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다. 상기 도련님이 죽어 병풍 뒤로 사라진 다음에야 영혼결혼식에서나 쓰이는 인형의 대용품이었던 호숙은 불청객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호숙과 마주 앉아 호숙의 말에 귀 기울였다.

우리가 그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호숙의 배는 숨소리에 맞춰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배의 크기로 보아 육, 칠 개월은 되는 듯했다. 우리가 혹시라도 호숙에게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뿐이었다. 호숙이 아이를 가진 몸으로 이곳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뱃속에 새 생명을 잉태한 여자가 왜 굳이 상기 도련님의 시신을 보겠다고 하는지.

누구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호숙이 그 다음 말을 잇기 전에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이쯤에서 답판을 짓자는 태도였다.

“너, 정말 볼 테냐?”

호숙이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다.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호숙의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님은 진저리를 치고 남편은 앞장섰다. 그 뒤를 호숙이 따르고 호숙의 뒤를 내가 쫓아갔다. 상기 도련님은 죽기 며칠 전에 안방으로 옮겨졌고, 컴퓨터 한 대와 컴퓨터 관련 책 몇 권이 꽂혀 있는 키 낮은 책꽂이가 그 방의 주인을 대신하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도련님의 시신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호숙이 울 것 같은 얼굴로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남편이 자물통을 채워버린 뒤였다.

4

카디건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열쇠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재처럼 따갑다. 나는 열쇠를 움켜쥜다.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크면 관찰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더 지켜볼 수도 있지만…… 준표 어머님! 제 생각으로는 검사를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내민 종이에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서울 소재의 한 발달지원센터의 연락처였다. 가을인데도 실내가 덥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검사라면?”

“발달검사를 한 번 받아봤으면 해서요. 물론, 아이들마다 행동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개인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준표의 경우에는 발달지체가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 발달연령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소수의 소아가 특정 행동을 처음으로 나타내는 초기연령, 대부분의 소아가 그 행동을 나타내는 한계연령, 마지막으로 정상소아의 50%가 그 행동을 나타내는 평균연령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생활 연령에서 한계연령에 상당하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지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쉽게 말씀드리면, 생후 10개월이 넘으면 대부분의 아이는 붙잡아 주면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15개월이 넘으면 대부분은 걸을 수 있

게 되고, 두 살이 넘으면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지요. 아이가 15개월이 넘었는데도 걷지 못하고, 두 살이 넘어서도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한다면 한계연령에 상당하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언젠가 준표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더군요. 어릴 때부터 준표가 이상하게도 몸에 힘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나는 어린이집 원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준표가 언제 처음 기었는지, 어머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원장은 등을 뒤로 젖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손은 가슴 앞으로 가져가 엇갈리게 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원장은 내 대답을 반드시 들을 작정인 듯했다. 원장의 등 뒤에 걸려있는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째깍째깍째깍-

나는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준표가 언제 처음 목을 가누고, 언제 처음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언제 처음 저 혼자 앉게 되었는지. 그러나 내가 기억해내려 애쓰면 애쓸수록 이상하게도 흐느적거리던 아이의 모습만 떠올랐다. 누워서 안아달라는 듯이 팔을 뻗기에 그 팔을 잡아 당겨 일으켜주면 준표는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축 처져 있곤 했다. 기면서부터는 상체를 버틴 팔에 힘이 빠져나가 얼마 못 가고 멈춰버리는 일이 잦았다. 생후 21개월이 된 지금도 준표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하고, 자주 넘어진다. 앉았다 일어날 때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 원장은 내게 준표가 언제 처음 기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준표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 15개월이 지나고도 걷지 못한 아이는 준표 뿐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안면 근육을 움직이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움직임이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으로 보기에는 근육과 뼈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의도한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은 정신과 뇌, 신체가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물건을 집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신체의 움직임도 정신활동, 뇌활동, 신경활동이 함께 해야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걷는 것 같은 당연한 신체활동

이 제때에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준표의 경우에는 또래 아이들보다 대근육발달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은 사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나는 낮모르는 사람에게 이 유 없이 따귀를 맞은 것처럼 분했다. 어린이집이랍시고 고작해야 동네 코흘리개들 몇 명 모아놓고는 마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처럼 떠들 어대는 꼴이 못마땅하다못해 역겨울 정도였다. 그런데도 나는 따져 묻지 못했다. 그럼 지금 생후 21개월이 된 준표 또래의 아이들은 준표보다 무얼,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나이 때는 대체 뭘 할 수 있어야 정상인 겁니까? 네까짓 게 뭔데 내 자식을 두고 “정상” 운운하는 거냐고 핏대를 세우는 대신에 나는 원장이 내 쪽으로 들이 밀어놓은 종이를 집어 들었다.

“가벼운 발달지체는 단기간의 교육이나 치료만으로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이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든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준표를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위의 인사치레도 하지 않았다. 되도록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혹시라도 입을 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나를 주체할 자신이 없었다.

우리 준표가 다른 아이들보다 대근육발달이 늦다고 하셨지요. 사실은 저도…… 저도 그런 의심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대체 뭐랍니까? 대근육발달 지체가 일어나는 확실한 원인 말이에요. 준표 아빠네 쪽으로, 그러니까 준표 삼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혹시 유전이 되기도 하는 겁니까? 가족력이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걸까요, 원장님?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원장의 말이 사실일까봐 겁이 났고, 원장보다도 내가 더 준표의 상태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장이 알아챌까봐 겁이 났다.

“너무 마음 상해하지는 마세요.”

원장실에서 나와 현관까지 걸어가는 내내 나는 원장의 말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물통 구멍에 열쇠를 밀어 넣는다.

꿈 속에서 상기 도련님과 준표는 한 저울에 올려져 있었다. 죽어 꿈 속에서도 상기 도련님은 불구였고, 살아 꿈속에서도 내 아이 준표는 불완전했다. 상기 도련님이 자신의 목숨을 준표의 목숨과 맞바꾼 이유 같은 것은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불구의 몸과 맞바꾸어 연명하게 되는 준표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그것만은 알아야하지 않겠는가.

상기 도련님과 준표가 함께 나란히 올려져 있던 내 꿈 속의 저울, 그 저울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저승사자를 만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보면 이 문 안쪽의 호숙쫄이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줘다. 자물통은…… 어이없게도, 한 번에 열린다.

5

나는 처음으로 호숙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크고 뚝 벌어진 어깨, 각진 얼굴 안쪽에 붙겨져 나온 광대뼈, 뺨을 뒤덮은 주근깨…, 호숙은 전체적으로 투박한 느낌이다. 황토빛 물감을 발라놓은 것 같은 살빛은 호숙을 하루의 대부분을 빛이 들지 않는 공장에서 지내는 여공이기보다는 피약별 아래 농사일을 해온 촌부로 보이게 한다. 끝자락의 올이 풀려나온 치마 위에 연속적으로 프린트되어 있는 꽃무늬는 조잡하고, 갈색 니트 위에 걸쳐 입은 조끼는 단추를 여미지 않아 치마의 허리 부분에서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져 있다. 파란색 고무줄로 하나로 묶은 머리는 웨이브를 강하게 넣어서인지 호숙을 실제의 나이보다 늙어보이게 한다. 상기 도련님보다 두 살이 어리다고 했으니 호숙의 나이는 스물넷이어야겠지만 그녀를 이십대로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내가 들어서자 호숙은 치마 밑으로 아무렇게나 벌리고 있던 다리를 오므리고 앉는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박힌 호숙의 이미지는 이미 단정함과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호숙을 천천히 살핀다. 나는 며느리감을 살피러 나온 시어머니도 아니고, 나를 도와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 시댁 식구들 험담을 늘어놓아도 뒤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손아랫동서가 될 여자의 됴됨이를 알아보러 나온 손윗동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숙의 옷매무새나 살아온 인생 내력 따위야 나에게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다. 그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살피고 있는 내 자신이 나는 문득 한심해진다.

내 한숨의 의미를 호숙은 저에 대한 걱정으로 받아들인다.

“초음과도 정기적으로 보러 다녀요. 이 녀석이 하도 잘 자라서 너무 크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이예요. 크게 낳은 애가 나중에도 잘 자란다면 크게 낳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좋은 일이지만요.”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아 호숙은 손바닥으로 배를 감싸 안는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호숙은 제 안에 깃든 생명을 어루만진다. 그러다 내 시선이 자신의 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미소를 짓는다. 호숙의 미소는 호숙과 내가 둘 다 여자이고, 박씨 집안의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 텅 비어있던 자궁을 채웠다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은 경험을 공유했다는 데에서 나오는 이심전심의 미소다. 그러나 호숙의 그 미소는 나를 어처구니없게 한다. 나는 호숙과 한 편이 될 수 없고, 내가 호숙에게 해야 할 말은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으니까.

비로소 자신의 편을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호숙은 완전히 긴장을 푼다. 내게 양해를 구하고는 옆으로 길게 누운 호숙에게 그러나 나는 묻는다. 너는 무섭지도 않니. 호숙은 무섭단다. 그래서 나는 또 너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묻는다. 네 뱃속의 아이는 정상인 아닐 거라고, 너는 이대로 네 인생을 포기할 작정이냐고 내가 묻자 호숙은 일어나 앉는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는 호숙의 모습 위로 내 모습이 겹쳐진다. 발달지원센터의 연락처를 내밀던 어린이집 원장 앞에서 나도 저런 표정을 지었으리라.

“언니도 준표를 낳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호숙의 따귀를 갈긴다. 감히 준표의 이름을 입에 올린

호숙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악에 받쳐서 나는 토하듯 말을 잇는다. 너는 아무 것도 몰라, 이 기집애야. 그래, 나도 몰랐어. 아무 것도 모르고 내 남편과 결혼했지. 이 집에 상기 도련님 같은 불구자가 있는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 그래, 나도 아이를 낳았지. 내 남편은 멀쩡하니까. 이 집 식구들 모두가 내게 말했어. 상기 병은 유전은 아니란다. 봐라, 상기 말고는 우리 모두 멀쩡하잖니. 난…… 난, 감쪽같이 속은 거야. 준표가 태어나고 내 남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너 알아? 득달같이 이리로 내려와서는 남편은 도련님을 이 방에 처넣었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 오히려 반기는 기색이었지. 속으로는 다들 불안했던 거야. 도련님의 병이 혹시 유전이 되는 거나 아닌지, 그래서 그렇게 치를 떨어뒀던 거야. 너는 아무 것도 몰라. 사기를 당한 느낌이 어떤 건지, 내가 낳은 아이가 혹시, 혹시 불구가 되는 거나 아닌가, 불안에 떨며 사는 어미의 삶이 어떤 건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준표가 상기 도련님처럼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는…… 난, 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니? 내 아이한테 미래가 없는데, 인생의 목표를 상실했는데, 뭘, 뭘 붙들고 살아가니?

나는 내가 호숙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울고 있다.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이었느냐고, 호숙이 아닌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나,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렇게 배를 쓰다듬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랑 눈 맞추는 순간이 말이에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채팅만 하다가 이 방에서 상기 오빠를 처음 봤을 때, 그 때 오빠는 여기 누워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도와달라는 것도 같고,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반가워하는 것도 같고… 오빠의 그 눈빛이 너무 많은 말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오빠 옆에 앉아 오빠 손만 잡고 있었어요. 태어나면 이 아이도 그럴 거예요. 아직은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 누운 채로 나를 올려다보겠지요. 아주 많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옆에서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있다 보면 내일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말대로 미래는 어찌되어도 좋다고 치자. 그러면, 아이와 함께 할 너의 삶 또한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냐고 나는 호숙에게 되묻는다. 뱃속의 아이는 정상이 아닐 거야. 흑여 정상으로 태어난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버지처럼 되겠지. 너는 그 아이와 함께 꾸려나갈 현재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나 해봤니? 아이는 두 세 시간마다 깨어나 보챌 것이고, 식사 때가 되면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밥을 떠먹여줘야 하고, 40킬로그램이 넘는 아이를 번기에 올려주고 그 아이가 대소변을 보는 동안에는 번기 앞을 지켜야 하고,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수면 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 삶을 너는 왜 구태여 내 뒤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 너는 아이의 눈빛에 대해 말했지. 태어나 너를 처음 바라볼 아이의 그 눈빛 하나 때문에 희생하기에는 네 인생이 너무 가엾잖아.

“빨리 죽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오빠가 말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오빠 손을 잡았다가 오빠 얼굴을 이렇게 내 품에 꼭 안았다가 오빠 머리를 쓰다듬다가 그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내가,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갑자기 내가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전부구나, 나 같은 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죽는 게 무섭다고도 했어요. 저승사자는 꼭 둘이 짝을 지어서 다니는데 한 명은 일직사자고 다른 한 명은 월직사자래요. 일직사자가 쇠몽둥이로 등을 내려치면 월직사자가 달려들어서 쇠사슬로 엮어매고는 사람을 냅을 떼어가는데 오빠는 밤마다 꿈을 꾸다고 했어요. 쇠몽둥이로 얻어맞고 쇠사슬로 묶이는 꿈을 꾸다 일어나면 다 죽이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만 여기다 처넣어두고 편안 잠을 자고 있는 식구들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하고 나서는 저승사자가 눈앞에 나타나기라도 한 것처럼 벌벌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달려와 보지 않았잖아요. 오빠가 혼자 외롭게 죽어갈 때 당신들은 다들 어디 있었나요?”

호숙에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호숙이 계속 묻기 시작한다면 점점 더 대답할 말이 궁색해지는 쪽은 호숙이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상기 도련님이 찢어죽이고 싶었다는 식구들 속에 나도 속해 있었을 거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소름 돋아난 팔이 얼얼하다.

호숙과 처음 만나던 날, 상기 도련님은 단 한 번의 눈 맞춤으로 호숙에게 너무나 많은 말들을 했다던가? 그 너무나 많은 말들 중에는 그 밤의 일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 밤, 어머님과 상기 도련님이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나는 아버지 씨가 아니지. 형이랑 나는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죽을 거면 빨리 죽어라, 이 자식아. 엄마가 헤픈 여자라는 건 이 동네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너 같은 건 낳지도 말아야했어. 너를 없애려고 양젓물까지 들이부었던 말이다! 어머님은 상기 도련님을 마루로 내던졌다. 뒤집어 놓은 거북이처럼 바르작거리며 도련님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형수, 한 번도 도련님이라 불러준 적 없는 형수, 등을 돌려버린 형수를 바라보던 도련님의 그 눈빛, 원망하는 것도 같고 포기한 것도 같은 그 눈빛... 그 눈빛을 왜 나는 외면했을까? 밤새 나는 잠들지 못했다. 마루 쪽에서는 쉼 없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동이 틀 무렵에야 잤아들었다.

상기 도련님은 마루턱 앞에 잠들어 있었다. 새벽녘의 겨울바람은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도련님의 마른 등쪽을 할퀴어냈고, 그 마른 등쪽 위로 마룻바닥에 등을 붙인 채로 거북이처럼 바르작거렸을 도련님의 모습이 겹쳐졌다.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 곳,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도련님은 겨우 10센티미터 높이의 턱 하나를 넘지 못했다.

마루턱 앞에 널브러져 밤을 새워야했던 그 날 이후로 도련님은 달라졌다. 다들 멀쩡한데 왜 나만? 하필이면 왜 내가? 악에 받쳐 소리 지르지도 않았으며 듣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뜯는 욕지거리도 더는 내뱉지 않았다. 서서히 마비가 진행되는 동안 도련님은 더없이 양순해져 갔다. 자신의 처지를 조용히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상기 도련님의 그 양순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 실은 살의(殺意)였다니!

내가 팔뚝에 돌아난 소름을 쓸어내리는데 누군가 킁킁, 숨 쉬기 위해 몸부림친다.

“상기가 시켰지?”

어머님이 호숙의 목을 조르고 있다.

호숙이 어머니의 손을 붙든다. 숨통을 조여 오는 손을 붙들고 호숙이 숨길을 찾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호숙의 목을 조르고 있는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어머니의 눈에 선 핏발이 붉어져가고 호숙의 동공이 커진다. 어머니의 살의가 고스란히 호숙의 커진 동공 속에 담긴다. 서서히 위축되고 힘이 없어져가는 도련님의 사지를 볼 때면 그 몸에 깃들여 있는 불행의 기운이 집 안으로 퍼져가는 것만 같아서 우리는 그를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숙이 끝끝내 아이를 낳을 작정이라면, 우리는 한 번 더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는 없다.

이제 곧 호숙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 외마디 비명처럼 혀가 튀어나올 것이고, 심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펄떡거리며 살 거야, 살 거야, 거친 숨을 뿜어대는 호숙의 콧구멍에서부터 먼저 삶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막혀버린 숨구멍을 뚫으려고 호숙의 뱃속의 아이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팔다리로 버둥거릴 테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늘 그렇듯이 그 발버둥이 절박하다해서 열릴 살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뱃속의 아이는 죽어야한다. 혹여 저 뱃속의 아이가 살아, 벌레처럼 한 생(生)을 바르작거린다면 그 아이가 배로 기어 다니며 낸 길이란, 내 아이 준표가 그 부실한 다리와 힘이 없어 흐느적거리는 두 팔로 맞서 싸울 세상이 무엇과 맞닿아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뿐이다. 내 아이가 걷게 될 그 길 위로 내가 먼저 쫓아올라가 그 우뚝투뚝한 길바닥을 혀로 핥아 반듯하게 닦아놓기를 나는 주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나는 단단한 절망에 휩싸여 돌조각에 베여 피가 흐르는 내 혀를 깨물어버리기를 주저하지도 않으리라. 호숙의 저 뱃속의 아이만 없어진다면, 준표는 멀쩡해, 라고 외치는 내 목소리는 사뭇 단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머니의 왜소한 어깨가 부들부들 떨린다. 저러다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져버리면 어찌나, 나는 벌써부터 둥글게 말아 쥐고 있던 주먹을 더 세게 움켜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조금만 더! 이제 끝이에요, 어머님!

호숙의 부릅떠 튀어나올 것 같은 눈알에 공포가 어리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있던 호숙의 두 손이 바닥으로 늘어진다. 호숙이 나를 바라본다. 무서워하는 것도 같고 애원하는 것도 같은 눈이 나에게 말 건다. 마룻바닥을 기며 나를 올려다보던 상기 도련님의 그 눈빛, 원망하는 것도 같고, 포기한 것도 같은 그 눈빛…… 흐릿해져가는 호숙의 눈에 한 남자가 어린다. 그 눈빛을 왜 나는 외면했을까…… 답을 구하지도 못했으면서, 어찌자고 나는 또 호숙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는 뒤통수로 컴퓨터를 후려 치고는 모니터 앞에 쓰러져 있다. 내가 달려들어 호숙에게서 어머니를 떼어놓으려 하자 어머니는 호숙의 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어머니가 호숙에게 가졌던 살의만큼의 탄력으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판을 누르고 있다. 대기화면이었던 컴퓨터의 모니터에 빛이 들어온다. 어머니의 얼굴 어느 부위가 자판의 엔터(enter) 키와 맞닿아 있는지 화면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모니터 속 앨범은 오토바이에 올라탄 고등학생의 사진으로 시작된다. 나이든 여자처럼 퍼머를 한 남학생은 카우보이모자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기도 하고, 학교 건물을 배경으로 고만고만한 키의 서너명의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도 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관광버스 맨 뒷좌석을 점령한 그와 그의 친구들의 얼굴에는 지난 밤 선생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마신 술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해변의 모래사장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폼 나게 빨던 고등학생은 어느새 목에 보이스카우트 손수건을 두른 단정한 중학생이었다가 또 훌쩍 작아져 1자가 찍힌 손등을 자랑스레 사진기 앞으로 내밀며 웃고 있는 초등학생이 되어 있다. 이 초등학생은 운동에 꽤 소질이 있었는지 축구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 반대표로 나가 이어달리기를 하고도 있다. 어느 해의 여름휴가에서인지 사진 속에서 가족은 평상 위에 넷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포도를 먹고 있다. 화면 오른쪽의 틀바가 아래로 달음 박질쳐 내려가는 동안 아이는 자꾸만 어려워진다. 담임선생님의 꾸중에 기합이 잔뜩 들어 올 것 같은 얼굴로 첫 소풍 사진을 찍었던 아이는 이제 갓난아기가 되어 자개장롱 아래 누워 있다. 갓난아기는 짧은 엄마 옆에 누워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엉덩이를 엉거주춤하게 받쳐 든 형의 품이 마뜩치 않은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

고 있다. 흐드러지게 핀 흰 목련을 상장처럼 들고 있는 목련 나무 아래로 벼슬이 붉은 수탉 한 마리가 암탉들의 뒤를 쫓으며 봄을 희롱하는 어느 오후, 포대기에 업혀 노란 병아리처럼 짹짹거리던 갓난아이는 자궁 속에 들어가 있다.

모니터 화면은 검은색과 흰색만이 존재하는 초음파 사진을 끝으로 정지해 있다. 흰색 부분이 부챗살 모양으로 퍼져 있는 초음파 사진 정중앙에 엄지손톱 크기의 검은 원이 박혀 있다. 나는 화면에 눈을 바짝 들이댄다. 검은 원 속에 무슨 비밀처럼 박혀있는 또 하나의 흰 원은 작고 흐릿하다.

호숙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뭐든 상기 도련님이 원하는 그 무엇을. 죽기 전에 상기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그 무엇이 저 흐릿한 한 점 점으로 남는 것이었다니……, 세월을 되돌려 놓은 이유가 자궁 속으로 돌아가 한 점 원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라니…… 소멸, 그것이 상기 도련님의 마지막 바람이었던가? 그러면 여기, 여기 방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입을 크게 벌리고 숨 쉬기 위해 애쓰는 호숙은 또 뭐란 말인가?

호숙이 숨을 들이쉬는 때마다 수컷구멍 속으로 한꺼번에 물이 빨려들어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 나는 호숙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는다. 호숙을 일으켜 세운다. 방문은 열려 있고 장독대 앞에 묻혀 있는 두 개의 항아리를 지나 누구든 이리로 올 것이다, 독 속에 들어가면 바로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지…… 제가 빠진 허방이 얼마나 깊고 몸서리쳐지는 것인지, 호숙의 마음을 호숙의 몸이 먼저 알고 덜덜 떨어대기 전에 이 방에서 나가야 한다, 내가 호숙의 팔을 잡아끄는데 호숙이 역세게 내 손을 뿌리친다. 달려 나가 곧장 안방으로 뛰어든다.

김 목사가 안방에 부러놓은 천국은 이미 지옥이다. 비명과 잡아채는 손과 부러진 향과 쓰러진 병풍을 밟고 뛰어가 호숙은 관 앞에 무릎 꿇는다. 호숙의 눈물이 죽어, 단혀버린 상기 도련님의 마른 입술을 축이고, 시신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들이 감겨, 두 개의 암흑으로 남은 상기 도련님의 눈을 어루만진다.

호숙이 상기 도련님의 다리를 허벅지에서부터 무릎을 지나 종아리

로, 발목에서부터 다시 장판지로, 아래서 위로 주물러 올라가는 동안 나는 상기 도련님이 죽음 직전에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듯도 하다. 모니터 속 사진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한 점 흐릿한 원에서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진첩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기억을 더듬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면의 맨 마지막, 그 한 점 흐릿한 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호숙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와 거기 가물거리는 점으로 자리 잡은 태아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그 한 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걸까? 자궁에서 시작해 갓난아기가 되고, 엄마 등에 업혀 울다 포대기를 풀고 내려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넘어져 깨어진 무르팍이 아파 엄마를 부르다 말을 배우고, 어린이날에는 선물을 꿈꾸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평범한 아이로 자라 축구화의 끈은 어떻게 묶어야 잘 풀리지 않는지, 몰래 마시는 술맛은 왜 짜릿한지, 무수한 상들 중에서 개근상을 가장 최고로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차근차근……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한 번만 더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그러나 누군들 알겠는가.

내가 아는 전부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호숙을, 나를, 준표를……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는 사실뿐이다.

남편과 남편의 직장 동료 몇이 달려들어 호숙의 어깨며 팔뚝을 움켜쥘다. 남자들의 역센 손이 살을 파고들어가 낙인처럼 붉은 손자국을 내는 동안에도 호숙은 손에서 힘을 빼지 않는다. 어깨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그렇게 하면 상기 도련님이 살아나기라도 할 것처럼 더듬고, 만지고, 쓸어내리고, 주무른다. 내 눈에는 호숙이 마치 신들린 무당 같기도 하고, 온갖 비법을 동원해 죽은 남편을 소생시켰다는 신화 속의 여신인 듯도 하다. 열 네 조각으로 잘려 세상에 흩뿌려진 남편의 몸을 찾아 오지를 떠돌고 떠돌아 새와 물고기의 힘을 빌려 기어이 죽은 자의 몸에 삶을 되돌려 놓고야만 이집트의 한 여신이 여기 와 있는 듯해서 나는 감히 움직일 수조차 없다.

“넋 놓고 있으면 어찌내!”

등 뒤에서 아버님이 소리친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세 갈래 갈림길을

바라본다. 오른쪽으로 난 길은 마당과 닿아 있고 저 문턱을 밟고 나가면 그대로 밖이다. 왼편으로 뚫린 길은 뒷마당의 장독대와 닿아 있다. 저리로 가서 독 속에 들어앉아 뚜껑을 닫으면 몇 백 년쯤은 시침 똑 떼고 잠을 잘 수도 있다. 내 앞의 가운데 길에는 관 하나가 놓여있다. 머나먼 생을 지나 고통과 상실을 거쳐 순응의 바다에 닿을 내린 관. 관 뒤에서 한 남자가 호숙의 허리를 잡아챈다. 호숙은 죽은 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관 속으로 들이민다. 엉덩이가 위로 들린 채로 소리친다. 약속을 했던 말이에요, 약속했어요! 관 속에 고여 있던 침묵이 호숙의 부르는 소리에 불러 일어나 아비규환 속으로 섞여 들고, 관 속에 누운 자도 일어나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으나 한눈에 보아도 이 세상 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흰 꽃 하나를 내민다. 그 꽃의 향은 이곳에서 피는 꽃들의 향과 어떻게 다른지, 그 향을 한 번 맡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손톱 끝이 뭉툭한 손가락으로 내 등을 찌른다. 컷가에 대고 소리친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사뭇 닮아 있다.

나는 오른쪽도, 왼쪽도, 그 어느 쪽도 아닌 길로 들어선다. 이 길이 어느 곳으로 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곧장 내 앞의 관으로 다가간다. 상기 도련님의 팔다리를 주무른다. 이렇게 만지다 보면 내 손이 쓸어내리는 자리마다 금방이라도 데일 듯 뜨거운 피가 돌고, 말라 물기마저 찾아볼 수 없는 두 팔에 살이 붙기 시작할 것만 같아서 나는 손을 늦출 수가 없다.

느닷없이, 호숙이 했다는 그 약속이 궁금해진다.

이명랑 : 소설가, 1997년 《새로운》 제1호를 통해 등단

1998년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출간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봄꿈을 구는 개구리

임정진

- 애야, 겨울잠은 꼭 자도록 하여라. 겨울의 진정한 맛은 겨울잠에 있단다…… -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에게 그런 편지가 왔어요. 올해만큼은 효자가 되고 싶었던 개구리는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을 꾸욱 누르고 이불을 챙겼어요. 아파트 문을 잘 걸어 닫은 다음 개구리는 두 눈을 꼭 감고 머릿속으로 올챙이를 세었어요.

올챙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열일곱 마리…… 이백서른 두 마리……

이상하게도 늘 그렇게 즐리더니 겨울잠을 자려 했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잠이 안 왔어요. 자는 것 말고 더 멋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툭’ 하고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개구리는 별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였을까? 뭐였을까?’

개구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나갔어요. 문을 열어보니 신문이 놓여있었어요. 옆집에서 보는 신문인데 개구리네 현관문 쪽으로 살짝 밀려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개구리는 신문이 그렇게 현관 앞에 떨어지는 것인지 처음 알았어요. 생전 보지도 않던 신문이 갑자

기 궁금해져서 슬쩍 신문을 들춰보았어요. 개구리 몰래 재미난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면 어쩌나 걱정스러웠거든요. 신문을 한 장 한 장 들춰보면서 개구리는 자꾸만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겨울잠을 자기에는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일이라는 건 너무 평범해서 신문에 안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나도 겨울잠 말고 더 근사한 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려는 순간 개구리 눈에 딱 불꽃이 튀었어요.

- 일일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

바로 그거였어요. 개구리는 당장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 어머니, 저는 신문기자가 될랍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것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개구리는 부드러운 피부가 얼지 않도록 두꺼운 스웨터를 겹겹이 입고 양말을 세 켤레 겹쳐 신고는 고무장갑까지 끼었어요. 그리고 털모자를 쓴 다음 헬멧을 그 위에 쓰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신문사로 달려갔어요. 출근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현관문 앞에서 있다가 일등으로 신청해서 원하는대로 일일 명예기자가 되었어요.

편집회의를 하는데 개구리는 졸음이 몰려왔어요. 겨울잠을 자던 버릇이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하품을 하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좌당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개구리 기자, 취재갈 수 있겠어요?”

편집장은 걱정스런 눈으로 개구리를 잡아끌어 다시 의자에 올려주었어요.

“그럼요. 개굴.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갈갈갈. 이제 괜찮습니다.”

머리 뒤에 흠이 난 개구리는 정말 잠이 다 깨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회의는 다 끝나버렸어요.

“앗, 저는 무얼 취재해 올까요?”

- 겨울을 나는 즐거운 방법 -

개구리가 써야 되는 특집기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개구리는 펄쩍

펼쩍 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누구보다 멋진 기사를 써오겠노라고 큰소리 개골개골 쳤어요.

‘겨울에 뭐를 하면 즐겁지?’ 개구리는 우선 얼음이 있는 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광장에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갔어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추워서 볼이 빨갛게 되고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였어요. 스케이트 탄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삭삭 소리가 나는데 개구리는 소름이 숙숙 돋았어요. 스케이트날은 너무 날카로워 위험했고 스케이트 구두는 무거워보였어요. 개구리는 넘어져서도 웃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쫓쫓…… 너무 추워서 정신들이 이상해진 거야. 저렇게 겨울을 보내다니 불쌍하기도 하지.”

개구리는 스케이트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스케이트장 옆에 서 있으니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안락한 겨울모습을 취재하고 싶었어요.

‘아차, 추수가 끝나서 농부네 집은 겨울엔 한가하니까 즐거운 일들을 하고 지내겠지.’

개구리는 서둘러 농부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즐겁게 놀고 있으리라 생각한 농부네 집은 텅 비었어요. “음, 놀러나갔구나. 연날리거나 썰매타기를 하나보다.”

개구리는 웃으며 농부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농부는 아내와 함께 유리집 안에서 토마토를 따느라고 바빴어요.

“저기요, 겨울을 즐겁게 보내시는 방법을……”

개구리가 질문을 다 하기도 전에 농부가 소리쳤어요.

“아, 잘 왔어요. 그쪽 토마토를 여기 박스에 좀 담아줄래요? 얼른 답아서 보내야 되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겨울인데 즐겁게 노셔야 되지 않나요?”

“놀기는요. 토마토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바쁘고 뿌듯한데 놀기는 왜 놀아요.”

우리온실 안이 따뜻하니 겨울 같지도 않았어요. 개구리는 폴짝폴짝 온실에서 뛰어나와서 다른 곳을 취재하러 가야 했어요.

“맞다. 방학이니까 학생들은 겨울을 잘 보내고 있을거야.”

개구리는 다시 자기 동네로 와서 아이들을 취재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온 동네를 다 뒤져보니 아이들은 다 학원에 있었어요. 컴퓨터, 영어, 수학, 태권도, 과학, 미술, 바이올린 등을 배우느라고 아이들은 바빴어요. 아이들은 다 지루한 얼굴들이어서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개구리 눈에도 그 방법이 겨울을 멋지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개구리는 이제 어디로 취재를 가야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진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겨울을 멋지게 보내는 방법 아는 친구 있니?”

아이들이 다함께 개구리에게 소리쳤어요.

“겨울잠을 자는 게 제일 멋져.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

“겨울잠이 자고 싶다고? 그건 쉽지. 날 따라와. 내가 겨울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줄게.”

개구리는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자기 아파트로 갔어요.

“여기서 하루에 한 시간씩 겨울잠을 자는 거야. 엄마에게는 겨울잠 학원에 갔다고 말하면 돼.”

“우와! 좋아.”

아이들은 이불 하나에 다 같이 몰려들어 누웠어요. 억지로 눈을 감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키득거렸어요. 개구리는 자장가를 불렀어요.

- 개굴개굴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개굴개굴 자장자장 개굴개굴 자장 자장 -

그래도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서로 간지럼을 피우기도 하였어요.

“조용히 하고 자야 돼. 그래야 겨울잠이 되는 거지.”

“하지만 낮잠하고 겨울잠은 어떻게 다르지?”

눈이 뚱그란 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개구리는 가만히 생각하다 말했어요.

“겨울잠은 말이지. 봄을 꿈꾸며 자는거야. 사랑사랑 부는 봄바람을 생각해봐. 세상이 흐릿하게 보일 때는 아지랭이가 핀거지. 그리고 나무들마다 순이 새로 돋지. 아주 작은 잎사귀들이 살그머니 나와서는 기지개를 편단다.”

아이들은 겨울잠 학원에서 개구리의 봄 이야기를 들으며 솔솔 잠이 빠져들었어요.

오늘 신문 1면에 난 사진보셨지요? 개구리가 아이들에게 흰 나비와 노란나비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 말이에요. 개구리의 겨울은 봄꿈으로 깊어갔어요.

임정진 : 동화작가, 〈해모수 파크를 탈출하라〉 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제도적 문학과 반제도

임헌영

1. 문학의 제도화와 제도적 문학

영혼과 상상력이 자유라면 그 형식인 문학예술 또한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문학적 창작의 원천은 비제도적이다. 그러나 구전문학 시대부터 화자와 청중의 구별이 생기면서 당대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담지하지 않으면 외면당하는 처지였기에 예술도 제도화 되기 시작했을 터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사회에서 문학예술은 차라리 제도화의 가장 충실한 이념적인 척후병이었다가 르네상스 이후 근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문학은 그 본래의 영혼의 형식으로서의 비제도화를 꿈꾸게 되었다.

비제도화 혹은 반제도화의 문학예술은 거시적으로 보면 계몽주의에서 로맨티시즘을 겪으면서 세계문학사적인 보편성을 획득한다. 절대왕정 치하에서 고분고분했던 고전주의 문학이 위고의 <에르나니>에서 산적과 왕과 귀족이 한 처녀를 두고 삼파전을 전개하는 이야기는 이미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속박을 완전히 벗어난 일대 혁명적인 상황을 유발한다. 1830년 2월 25일, 테아트르 프랑세즈는 아래층의 고전주의 옹호파와 윗층의 로맨티시즘 지지파의 대결장이 되어 하룻

밤 사이에 문학 사조를 바꿨고, 이후 문학은 그 본연의 모습인 떠도는 영혼의 방랑자로 회귀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모든 문학이 제도화되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지만 문예사적인 사조로 말한다면 계몽주의와 로맨티시즘이 반제도 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계기였다고 하겠다.

영원히 혁명을 꿈꾸는 게 문학이라면 반제도적 문학이야말로 진짜 문학이고 제도문학은 고전주의 이전의 갇힌 영혼의 형식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제국주의 최절정기(1870-1914)를 마감하면서 문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반체제적인 자유의 차원을 넘어 ‘본일(奔逸)’의 단계에 까지 넘나들었다. 인간이 창출한 모든 가치체계를 회의, 거부, 부정, 비판하는 이 시기의 전위운동이야말로 문학의 반제도화를 황홀하게 실천했던 내용과 형식의 예술적 오르가즘 시기였다.

이후 세계가 두 이데올로기로 나뉘면서 예술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으로 양극화되어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느 쪽도 비(반)제도권 문학은 용납 않는 고전주의적 문학예술 유통의 체제화가 가속화되어 버렸다. 어느 한 진영에서의 비제도 문학은 다른 한 진영의 제도문학으로 약삭빠르게 편입시켜 버렸기에 세계문학적 시각으로 보면 비제도 문학은 설자리를 잃었던 게 20세기의 지적 풍토였다.

이런 보편성으로서의 제도와 반제도의 문학적 존립 양태와는 달리 근대 이후 한국문학은 식민지적인 특수 상황 때문에 그 개념 설정부터 다르게 해야 되는 처지였다. 제국주의 침탈을 전후하여 성행했던 ‘개화기 문학’이 그 의도나 본질과는 관계없이 어떤 연유에서든 제도권 문학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반제도 문학은 비문단적인 인사들(예컨대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에 의하여 뿌리를 내렸지만 이내 1920년대의 제도문학이 궤도에 오르면서 아예 사라져 버렸다.

국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결로 압축할 수밖에 없었던 1920년대 이후의 문단은 엄격히 말하면 둘 다 비제도 문학이면서 또한 제도문학이었다. 둘 다 식민통치의 검열문학이었다는 점에서는 비제도권이요, 그러면서도 두 사조가 다 당대적인 통치권력이 제공하는 마당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제도권이라 할 수 있는데, 더구나 카프의 경우는 오히려 정치권력과 상관없이 문단적 제도권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비제도 문학이라고만 주장하기에 주저토록 만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개화파 - 국민문학 - 해외문학과 - 순수문학을 일제 강점기의 제도문학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이 계열이 광복 이후 한국문학의 주류이자 지배 이데올로기의 옹호와 창출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 제도문학은 개화파의 계승 선상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대치되는 노선은 카프와 항일, 망명자 문학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글은 근대문학을 이렇게 전제 삼아 광복 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반제도 문학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계간지 <<창작과 비평>>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2. 광복 후 제도문학의 형성 과정

8.15 직후 좌파 문학단체를 제외한 한국문단의 형성 과정은 소략하게 다음 세 흐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족문학 기성 세대

- (1) 국민문학 계열 (박종화)
- (2) 해외문학 계열 (이헌구, 김광섭) 모윤숙, 이하운
- (3) 기타 (채만식) 변영로, 오상순, 김영랑

2. 중간파 (백철, 염상섭, 홍효민)

김광균, 최정희, 박영준, 계용묵, 정비석, 황순원, 김영수, 이봉구, 장만영, 손소희, 장덕조, 임옥인

3. 청년문학가협회 (김동리, 조연현, 조지훈, 임금재, 곽종원)

서정주, 유치환, 박목월, 최태응, 김송, 김달진, 박두진

* 괄호 안은 광복 직후 민족문학에 대한 글을 쓴 경우.

(임현영 <<한국현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8, 제1장 인용)

이렇게 두부 자르듯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문단을 도식화하는 이유는 분단 한국의 제도권 문학의 형성과정을 좀 더 명료하게 조망하고자 함에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문단의 주류는 3(청년문협)이 주동이 되어 1-(1)(3)을 추대하는 형식을 취한 바탕에서 이뤄졌다. 광복 초기 중앙문화협회(1945.9.18) - 전조선문필가협회(1956.3.13)로 이어졌던 단체에서는 그 강령으로 민주주의, 민족자결, 평화, 조선문화 등 해방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소파벌의 독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요” “전체에의 반동도 묵인되지 못할 것”을 다짐하고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문화” 창조를 선언했다. 이 세대의 문학예술인들은 식민통치의 잔혹 속에서 민족의 비애를 체득한 공통성을 지녔기에 좌파 문학단체의 강령과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강령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청문협(1946.4.4)은 식민지 시대에 출생, 성장했기에 아무래도 그 체형적 한계성이 작용한 탓으로 문학이 지닌 보편성으로서의 비판적 기능을 사상한 채 “진정한 문학 정신” 곧 순수문학을 기치로 삼았다. 분단한국에서 청문협이 문단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이후 이승만 단정 수립과 1950년대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심화와 확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데올로기적인 동맹경화를 격심하게 만들었다.

청문협은 기존의 전조선문필가협회 대신 ‘한국문학가협회’를 주도, 1949년 12월 9일 창립시켰는데, 이 단체야말로 분단한국 문단의 명실상부한 기관차로 문학 관련 교재와 교육, 언론 매체, 문학지, 각종 상을 장악하고 예술원(1954.3.25)까지 창립했다. 청문협의 이런 문단 독주화에 반발한 세력(위의 도표 중 1-(2)와 2)이 집결하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1954.10.23)와 한국자유문학자협회(1955.4)를 창립했다.

만약 이런 문단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었다면 그 후 한국문학은 격심한 반제도 문학이 다소 순화될 개연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물론 두 단체가 근본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단체의 다양화는 곧 문학운동과 사조의 다원화를 독촉하기에 풍요로운 전망이 가능했을 터이다. 두 단체가 다 사월혁명 직후 어용으로 몰려 해체의 위기

까지 몰렸으나 1961년 5.16쿠데타는 단체로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포고령 제6호로 모든 단체의 해산과 통폐합으로 1961년 12월 30일 총무로 수도여자사범대학 강당에서 창립한 ‘한국문인협회’는 이후 오늘까지 한국문학을 상징하는 단체로 공인되고 있다.

참고로 역대 회장단 명단을 소개한다.

	이사장	부이사장
1961-1963(1-2대)	전영택	김광섭, 김동리
1964-196(3-8대)	박종화	김동리, 모윤숙, 서정주
1970(9대)	김동리	김현승, 모윤숙, 서정주
1971(10대)	김동리	조연현, 김현승, 서정주
1973(11대)	조연현	김현승, 김요섭, 조병화
1975(12대)	조연현	김요섭, 문덕수, 이동주
1977(13대)	서정주	이동주, 김요섭, 박양균
1979(14대)	조연현	이원섭, 조경희, 이범선, 박양균
1981(15대)	조연현 (작고로 조경희 직무대행)	곽학승, 박양균, 황명
1983(16대)	김동리	조경희, 김윤성, 황명, 이근배
1986(17대)	김동리	조병화, 서정범, 구인환, 황명, 김양수
1989(18대)	조병화	황명, 구인환, 원종성, 김시철, 김해성
1992(19대)	황명	김해성, 성춘복, 홍승주, 구인환, 김시철
1995(20대)	황명	성춘복, 신세훈, 함동선, 이유식, 이철호
1998(21대)	성춘복	이철호, 신세훈, 구혜영, 이은방, 김원중
2001(22대)	신세훈	홍문표, 최광호, 이수화, 장윤우, 엄기원
2004(23대)	신세훈	
2007(24대)	김연균	

한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의 역대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부이사장
1954(1-2대)	변영로	김팔봉, 모운숙
1956(3대)	정인섭	주요섭, 모운숙
1957(4-5대)	주요섭,	모운숙, 김광섭
1959(6대)	모운숙	백철, 주요섭 (1960년 사월혁명으로 모운숙 사퇴, 임시로 주요섭이 회장 대행)
1960(7-9대)	주요섭	백철, 김광섭 (8대 부회장 김광섭 빠지고 정비석, 9대 백철 빠지고 김용호)
1963(10-11대)	백철	정비석, 김용호
1965(12대)	백철	정비석, 이헌구
1966(13-15대)	백철	김용호, 모운숙
1969(16-19대)	백철	모운숙, 안수길, 이봉래 (17대 안수길 대신 조연현, 18-19대 조연현 대신 전광용)
1977(20-21대)	모운숙	전광용, 성기조, 이기형 (21대 성기조 대신 이봉래).
1981(22-23대)	모운숙	성기조, 문덕수, 손소희 (23대 손소희 대신 이근삼)
1985(24대)	전숙희	문덕수, 정을병, 성기조
1987(25대)	전숙희	윤종혁, 정을병, 이근삼
1989(26대)	전숙희	성기조, 문덕수, 정을병
1991(27대)	문덕수	윤종혁, 이현복, 신세훈
1993(28대)	문덕수	김시철, 장백일, 김문수
1995(29대)	김시철	장백일, 김후란, 유재용
1997(30대)	김시철	하동선, 한말숙, 윤병로
2001(31대)	성기조	구인환, 이철호, 민용태

이렇게 분단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회장단을 열거하는 이유는 제도문학의 이해에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초기의 지역 감정과 문학 사상사적인 변별성이 1980년대를 전후하여 사라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문단 단체로서의 기능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단체가 저간에 활동해 온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제도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던가는 누구나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제도문학이 단체가 아닌 문학사상사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간편한 방법은 역시 단체와 잡지 위주로 접근하는 길이란 편의주의적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사월혁명 직후 제도문학과 반제도 문학이 자리바꿈 할 계기가 무산됨으로써 문단 개조는 거의 20여 년을 더 기다려야만 되었다.

사월혁명이 5.16쿠데타로 좌절된 뒤 반제도 문학은 전혀 그 좌표도를 설정할만한 여건이 없었을 만큼 청문협 단일구조의 지배는 탄탄대로였다. <<현대문학>>은 발표 매체이자 재생산 구조요 문인협회의 상징이며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신춘문예보다 더 권위 있었던 이 잡지의 절대적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반제도 문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나 잡지가 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던 이 시기에 처음으로 반제도적인 범문학인 행위가 표출된 사건은 아마 한일협정 반대 성명일 것이다. 1965년 7월 9일 발표된 이 성명서는 한일국교 정상화 비준 거부와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존중, 구속학생 석방이 주요 골자로 82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참여했다(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임현영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264쪽 참고). 흥미 있는 사실은 이 서명자 속에는 문협과 펜 임원을 가릴 것 없이 망라되어 있어 오히려 반제도라기 보다는 제도 문학 운동으로 평가해야 될 정도란 점이다.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미 참여·순수 논쟁(1961년 김우종이 제기)이 제기된 터라 문학 외적인 주제는 쉽게 제도문학 속으로 파급될 수 있었지만 그 뒤 제도 문학가 비제도문학은 양극화하는 분수령이 된 것이다. 이런 문단사적인 발판 위에서 새로운 잡지의 가능성은 열렸을 것이다.

사월혁명과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겪는 과정에서 문단은 <분지>시

건(1965)을 체험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데올로기와 문학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필화사건이 없지 않았지만 다소 열기적인 해프닝 성격이었던 데 비하여 <분지>는 반제도 문학적 성격을 명백히 갖춘 작품으로 시대적인 전환을 예견할 수 있도록 문학적 감성의 주파수 변경을 촉구했다.

3. 반제도 문학의 견인차 <<창작과 비평>>

1966년 1월, 발간형식과 이름이 한국적 문화풍토에서는 좀 낯선 계간 <<창작과 비평>>이 132쪽으로 빼꾸기 새끼처럼 문우출판사에서 나왔을 때 문학인 누구도 반제도 문학의 시대구분을 이루리라 예상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지성의 산맥을 타끼자와 히데끼(일본 甲南大 경제학)교수는 “이와나미쇼펡(岩波書店)의 <<세카이(世界)>> <<시소소(思想)>> <<분가꾸(文學)>>를 하나로 묶은 것이라 말해야 할까. 그러한 것에서도 다소의 위화감이 있다. 이와나미 3지(誌) 정도의 분량은 안 되지만 세계사를 크게 파악한다는 시점은 한층 명료하고, 더구나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자세도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비와 나와 우리 시대>>, <<창비>> 91)고 평가하는가 하면, 중국 근대사의 <<신청년(新靑年)>>격이라는 이수인의 지적도 있는데, 오히려 그 이상이다.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선진국을 자처하는 미국과 서구, 일본의 지식인들이 선망하여 마지않는 상태” (백낙청, 위와 같은 글)로 세계 굴지의 성공적인 지식지로 평가받게된 <<창비>>는 한국 근대사에서 <<개벽>>과 <<조선지광>>을 합친 지성의 응집력과 변혁의 추진력을 지녀왔다. 잡지와 출판사로서의 <<창비>>는 한국 출판문화사상 어떤 단체나 직업으로서의 출판인이 아닌 문학지로서 종합지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이 특이성은 근대 이후 기능주의 보다는 계몽주의적 당위성을 강조해온 한국적인 지성의 풍토와, 세계사적으로 진보와 개혁의 기운이 상승했던 6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성립되었다.

<<창비>> 성공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백낙청의 개인적인 탁월함(과

한계까지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수용적 배타주의)을 드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적 뒷면에는 물론 그간 <<창비>>와 인연을 맺어온 많은 인사들의 탁월성을 간과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겉으로야 누가 발행인이고 편집인이며 편집위원이 누구로 바뀌었건 언제나 <<창비>>란 기관차의 실질적인 기관사는 백교수였다는 사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광복 이후 고졸 신분으로 대학 이상 과정을 미국에서 보낸 조기 도미 유학 제1세대에 속하는 지성인으로 한반도의 50년대적 냉전 체제의 세태와 함께 60년대적인 평화공존 시대의 진보사상을 체험한 ‘세계적 보편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재능과 학력과 집안의 넉넉함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서 최남선 보다 더 행운아인데, 세계관의 확립과 문화사회운동 역량에서는 임화와 견줄만하기에 가히 근대 문학사 이래 처음 등장한 기린이라 이를만하리라.

아니, 카프가 10년간 지속했으며, 그 기간 중 임화의 주도라야 고작 5년 될까말까인데다 변변한 잡지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데 비하여 백낙청은 자유실전문인협의회(1974.11.18) - 민족문학작가회의(1987.9.17)에 이르는 30여 년 간을 실질적인 주관자로 일관해 왔음을 상기한다면 세계문학 운동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성공 사례로 꼽을만하지 않은가. 여기에다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위한 이론적 충전 역할까지 언급하면 한국의 루카치(그는 차라리 실패한 개혁가였다)를 능가한대도 손색이 없으리라.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창비>>는 성공했으나 민족운동사의 현실은 실패(이렇게 말하면 또 왜 실패냐고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2001년 10월 현재를 기준할 때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의 변혁운동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한 오늘의 시점에서 그렇게 막강했던 <<창비>>에 그 책임의 일단이 없겠느냐고 따질 법도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호철의 다소 싸늘한 “그의 이념은 뭘지 가면처럼 메마르고 심심하지는 못해 보인다” (이호철 <참여문학의 활동 터전 <<창작과 비평>>을 이끈 주역>, <<월간중앙>> 95.신년 부록)는 지적이 나왔는지 모른다. 이호철은 이 글에서 “인문주의로 일컬어지는 괴테의 달관이나 톨스토이의 ‘슬라브적 농민성’ 같은 것과 비교하더라도

백낙청의 그것은 본원적으로 겹도는 면이 있어 보인다” 고 했는데, 비판처럼 들리는 이 말은 실상 괴테나 톨스토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나온 최상의 찬사이기도 하다.

70-80년대의 한국에서 백낙청의 역할은 그의 개인적인 수난과 함께 가속적으로 작용해 왔다. 1938년생인 백낙청이 경기고교를 거쳐 도미, 63년 서울대 교수, 69년 재 도미, 72년 귀국하기까지는 그의 문학 적 초창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은 <<창비>>에 그대로 반영된다. 창간사 격인 그의 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가 지닌 당시 기성 문단을 향한 충격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창비>>의 초기는 이호철, 김승옥, 서기원, 한남철, 이청준, 서정인, 최인훈 등 작가와 김현승, 김광섭, 민용태 등 시인과 유종호, 천이두, 김우창, 김현, 김주연, 이보영 등 평론가를 집필자로 내세워 사르트르, 밀즈, 하우저, 윌리엄스를 비롯한 외국 번역문과는 세계관에서 웬지 조화가 안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당시 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창비>>를 우리 문단에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순수’가 아닌가 경계하는 글을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미 민족문학론이란 구호가 등장하고 있던 문단에다 백낙청이 만해와 이상을 재평가한 <시민문학론>(69)을 제기한데 대한 의구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까놓고 말하자면 당시 <<상황>> 동인이었던 필자의 시선으로는 신동엽 대신 김수영에 대한 과대포장이나, 경무대 출신 김광섭과 절대고독의 김현승 시인을 내세우는 등등과, 그때 첨예한 사회 비판지였던 <<다리>>지에 등장했던 인문, 사회 과학 필자들과는 약간 어긋난 필자들이 계속 <<창비>>에 나타나는데 대하여 조금은 울적했었다. 이 시기는 <<창비>>가 인문·사회과학과 문학비평과 창작품을 조화시킬 수 없었던 때였던 것 같다.

이미 백낙청의 도미 직전부터 움뻐던 <<문학과 지성>>이 창간(1970)되고, 염무웅이 실무를 맡았던 기간(69.8 - 72.8)에 나온 이문구의 <<장한몽>>, 황석영의 <객지><한씨 연대기>, 신경림의 시, 리영희·강만길의 인문사회과학적인 글과 김윤수의 예술비평 등은 <<창비>>를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객지>는 분단한국 소설사상 일대 전환기를 만들었다.

1972년 백낙청의 귀국은 <<창비>> 역사상 도전을 향한 전환기가

된다. 유신 독재가 선포된 이후 <<창비>>는 이미 문학지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당대 사회운동의 전위에 서계끔 위치 지어져 그 수난의 기록은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잡지사를 읽는 듯한 상처를 더듬게 한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창비>>는 1974.1.도서출판 창작과 비평사를 설립, 이듬해 6월 10여 년간 문우출판사. 일조각. 신구문화사 등지를 전전하던 사무실을 독립시켰다. 단행본 판금 목록에는 <<신동엽 전집>>, 조태일 시집 <<국토>>, 황명걸 시집 <<한국의 아이>>,양성우 시집 <<북치는 얇은뱅이>>, 김지하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 <<대설남>> 등이 있고, 입건된 것으로는 리영희 단행본 <<8억인과의 대화>>와, 잡지 연재 황석영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 등을 추가했다.

1974.1.개헌청원 지지 문인 61인 선언으로 문단은 서서히 그 제도권적 구조를 바꿔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창비>>가 내세웠던 민족사의 지향점은 민족 주체적인 민주주의와 통일의 실현이라고 범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창비>>는 (1)출판문화 및 학술운동, (2)민주화 운동(통일·노동 등 각종 사회운동 포함), (3)문학예술운동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 접근해 볼 수 있다.

1966년 창간 이후부터 1974년 출판사 설립까지의 <<창비>>가 준비기였다면 그 이후는 영향력이 기하급수로 증폭되었던 시기였다. 한국출판문화사는 번안·번역·중역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내 필자에 대한 천대가 60년대까지 이어졌다. 학술연구 역시 서구의 모방과 직·간접적인 서투른 이식의 수준을 맴돌았고, 민족문제에 대한 천착은 ‘국학’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출판문화래야 단행본의 영세성에다 전집류의 외판이 주도하던 시절이라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인의 발표욕구를 채워 줄만한 출판매체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 문학도 번역본이 더 팔리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1975년은 한국 출판문화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긴급조치 1.4호 위반 구속자들의 석방(2.15)과, 동아·조선일보 언론자유 선언 기자 집단 해임(3월), 긴급조치 9호 선포(5.13)로 인한 제적생 급증 등등이 진보적인 지식인들로 하여금 직접 필자나 번역자로 진출하거나 출판업으로 투신하도록 강요하게 되었다. 이들은 예외없이 소자본

으로 혼신을 다해 대학생들이 갈구하는 지식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한국 출판문화는 민족·민주주의·통일 지향적인 내용의 단행본이 설자리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미 기존 출판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창비>>는 한국 고전문화 중 실학과 그 사상의 면면한 전통을 찾는 작업,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 연구 등 민족주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필진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판사 설립 초기에 <<창비>>는 그 이름에 부합할만한 학술적 실적은 없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창비>>의 단행본 목록 중 학술분야에 속하는 것으로는 <창비 신서>가 있는데, 사회과학·평론 및 역사·사론 분야에서 번역이 아닌 한국문제에 대한 저술은 상대적으로 인색성을 엿보게 한다. 이런 점이 아마 <<창비>>를 일러 계몽주의적 성향이라는 평을 듣도록 했는지 모르겠으나 번역서와 문학예술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문제에 대한 연구 도서의 주제에서 <<창비>>는 크게 보면 실학분야의 고전연구, 민족주의론, 경제문제, 한국 근현대사, 정치 등으로 나타나는데 얼핏 보면 고루 다룬 것 같으나 주제나 소재·필자 등이 엄선주의화 되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문학과 지성사의 인문사회과학 도서와도 대비해볼 직 하다.

학술운동에서 <<창비>>는 80년대 중반 이후 학술단체협의회나 역사문제연구소와 같은 대중적 확산 작업에 기여해 오면서도 문학예술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술적 업적에 못지않게 <<창비>>가 내세울 수 있는 분야는 아마 출판 대중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비 교양문고>와 <창비 아동문고>는 다채로운데, 특히 후자는 양식 있는 성인들이 정신적인 공해로부터 보호하고픈 자녀들을 위하여 <<창비>>라는 신용 있는 상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광받을 수 있다.

고도 성장했다고 <<창비>>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에 출판·학술운동 노선에서 <<창비>>의 행보를 비판하거나 궤도 수정할 수는 없으며, <<창비>>에는 자체 반성을 할만한 술한 두뇌들

이 나름대로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창비>>는 실천의 잡지이기 보다는 학술지향 잡지이며, 출판 역시 당대 사회의 직접적인 반영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이론과 연구, 계몽에 치중해 왔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2천년대로의 진로 모색과 민족운동사와의 관계 설정에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한편 외국 이론서나 연구서 번역 소개에서 <<창비>>는 단연 우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비단 외국 필자만이 아니라 국내 필자에 의한 외국 연구서에서도 리영희의 경우처럼 돋보인다. 특히 진보적인 각종 이론 연구서 소개에서 <<창비>>는 단연 앞서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일련의 현상을 집약적으로 정리해준 김동춘의 글을 다시 음미해보면 <<창비>>가 차지하는 학술운동상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다.

……<<창비>>의 사회과학 지면은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민족문제나 분단문제,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등한시해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 우리의 조건 속에서 ‘국민’과 ‘민족’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민족과 계급, 민족과 세계의 상호관련성을 체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 김동춘 <한국 사회과학과 창비>, <<창비>> 91호 -

이우성을 중심한 다산연구회와 실학과 중심의 역사연구는 강만길의 근현대사와 연계되는 역사연구로 그 맥락을 이어 주지만 80년대 중반기 이후 한국 민중사나 각종 운동사는 여타 연구단체나 군소 출판사 쪽으로 그 업적이 전이되었고, 8.15전후와 친일파, 그리고 특히 1950년대 이후 현대사와 북한문제에 대하여 <<창비>>는 극히 신중하게 자세하는 편이었다. 잡지에서도 이와 같은 실증주의적 특집보다는 담론과 논쟁 유도형 이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사회운동 및 문학사적 위치

《창비》는 한국 사회운동사에서 이론적인 원동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면서 수시로 그 논쟁의 화두를 제공해 주었다. 관점에 따라서는 “치열해진 80년대 운동권의 분위기 속에서는 《창비》가 70년대에 걸었던 노선은 점차 상대적으로 너무 온건해 보이게 되었고, 애초에는 《창비》에서 출발한 운동권 논자들 중에는 《창비》 정도는 이미 용도 폐기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한정숙 <창비와 나와 우리 시대>, 91호)는 대목에서 보듯이 《창비》는 민중운동사에서도 학술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품격과 거리를 유지한 채 총체적으로 정리 분석, 비판하는, 말하자면 전투 현장성 논리의 전개이기 보다는 정훈참모 역할을 수입해 왔다. 문학적 쟁점에 무게를 실고있지만 《창비》는 시종 각 시기마다 제기되었던 사회문제를 아우르면서 이를 일정한 시각으로 체계화시켜 주었다. 우리 사회는 그간 《창비》가 다루지 않는 쟁점은 없대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잡지는 <책머리에>와 특집, 소특집, 단독 논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시사성 비판을 강도 높게 수행해 왔다. 그리고 당연하면서도 신통하게 《창비》는 상당수 지식인들이 문민정권의 복음주의에 취했던 초기부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으며, 그 비판의 채찍은 더 강해지고 있다. 여성, 환경, 교육, 종교, 민주화, 노동, 민중, 통일 등 70년대 이후 한국 운동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는 두루 다뤘는데 그 입장은 시종 민족·민중적인 것이었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한편 8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의에서 야기된 일련의 운동권 이론투쟁의 와중에서 《창비》는 무력했다고 하면 야속할까. 군부독재를 타도하는데 어디서 왜 그런 복잡한 이론투쟁이 끼어들어 학생·노동·농민·민중 운동을 분열시켰던가를 반성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민족 운동은 다시 지난날의 좌절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학술 운동의 절실성과 위력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 폐해 또한 간단치 않음을 우리는 지난 1987년을 정점으로 배웠으며, 그 후유증이 오늘의 각종 운동까지도 분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NL과 PD로 대별되었던 사구체 논쟁으로 얻은 것은 분파주의요 잃은 것은 민주화가 아닌지 모른다면 지나칠까. 당장 코앞에서는 최루탄이 터지는 현장을 두고서, 실직의 위기에서 파업을 서두르는 현장에서, 혹은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염증을 느끼는 시민들 앞에서 왜 ‘미군철수’ 니, ‘통일’ 이니 하는 먼 구호가 나와야 했는지에 대한 현장 검증적 연구가 오히려 사구체보다 더 중요한 학문의 대상일 수는 없을까.

1980년대 후반 이래 <<창비>>는 민중과 학생운동권의 전위적 현장성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강단파적인 이론 투쟁의 장을 활짝 열어제쳤다. 그 혼란의 책임을 전적으로 <<창비>>가 질 수도, 저서도 안되지만 따지고 보면 당시 전국적 규모의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할만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지면은 <<창비>>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역사에 가정은 필요 없겠지만 1980년대 운동사의 잘못 씌어진 한 쪽은 아마 우리 민족사에서 오래도록 지울 수 없는 자욱으로 남을 것임엔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창비>>가 더 젊어져 신세대의 발언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충고는 적당치 않다. 오히려 80년대 운동권의 혼란 야기 요인에는 분단의 비극을 겪은 경험 세대보다는 이론적으로 간접 체험한 새 세대들이 더 격렬했음을 부인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걸 세대론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다만 백낙청의 ‘분단체제’ 론을 논쟁으로 확대시킨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과 연구와 실천논리를 무분별하게 논쟁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려는 자세보다는 차라리 <<창비>>다운 일정한 거리유지가 더 좋을지 모른다.

분단 이후 한국의 민주운동사는 이론투쟁과 실천세력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해주어야 할 정치적 조직체(정당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만한 기구)가 없었다는 점이 좌절의 중대한 원인의 하나인데, 조직 이외에 그런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아마 잡지일 터이고 <<창비>>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이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창비>>가 분단시대 한국문학사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데, 그 몇가지를 요약하면 먼저 6.25 이후의 전후 문학과 세대를 전방 배치하여 식민지 세대의 왜곡된 순수문학을 교정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식민

지 시대의 각종 문학사조도 금기시했던 냉전체제 아래서 ‘순수’ ‘문학’만 숭앙하던 풍토를 바꾸는 작업은 <<창비>>의 업적인데, 이 과정에서 <<창비>>는 당시 국내문단에서 이미 존재했던 참여문학론을 수렴, 흡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참여론을 도입하는데 치중하여 그 뒤 문단의 다수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한국문단의 주류를 <<창비>>로 이식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창립이후 백낙청 - 이호철 - 고은 트리오는 갖은 탄압을 극복하는데 중추 역할을 했는데, 1987년 민족문학작가회의로 전환하면서 백낙청 - 고은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창비>>는 문단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이전의 <<현대문학>>과 문인협회를 합친 것에 못지않는 문단 흐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비>>는 문학분야의 전망에서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간 <<창비>>는 시 분야에서는 매우 개방적이었으나(초기에는 오히려 아예 성격조차 없었을 지경이었다), 소설분야는 매우 좁은 문이며, 평론은 아예 닫힌 문이란 평을 듣고 있다. 이 점은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문이 좁은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창비>>의 중요 구성원이 이론, 연구 분야 위주인 탓인지도 모르나 현존 잡지 중 가장 인색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덧붙인다면 ‘민족문학’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민족문학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도 매우 폐쇄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정래의 <<태백산맥>>같은 것이다. 80년대에 <<태백산맥>>이 이룩해낸 성과와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몫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재평가해 줘야 마땅할 것이다. 현대사 부문에서의 인색함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근대 이후 민족문학사 서술과 평가에서도 <<창비>>식 가치관을 적용시킨다든가, 특히 분단시대 이후 민족문학론이나 사실주의, 민중문학, 농민, 노동자문학 등 일련의 논의의 흐름 속에서도 <<창비>>적 아전인수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점 따위는 후세 문학사가들이 바로 잡겠지만, 이런 후유증이 진정한 민족문학의 창출에 지장이 없도록 수정해야 될 것이다.

5. 민중문학 논쟁 이후

반제도 문학이 본궤도에 오른 건 <<창비>> 때문이지만 정작 반제도 문학 전위들이 공격의 포문을 연 대상도 <<창비>>였다. <<녹두꽃>>(1988), <<사상문예운동>>(1989), <<노동해방문학>>(1989)으로 상징되는 반제도문학의 절정기는 <<창비>>를 포위한 사면초가 운동 기간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백가쟁명의 연대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권 사회주의의 붕괴를 겪으면서 민중적 전위주의 운동은 분해되고 여전히 남은 것은 <<창비>>였다. 그리고 1987년 방향 전환한 민족문학작가회의는 10년 만인 199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 ‘반제도’에서 ‘제도’ 권으로 진입했다.

이제 세기가 바뀌고 반제도 문학은 저간의 투쟁 경력만으로 연명할 조짐도 없지 않다. 더구나 반제도문학을 표방하는 문학지는 이제 <<실천문학>>(자유실천문인협의회 기관지에서독립)만 남았고, <<창비>>조차도 ‘민족문학’의 구호가 백낙청을 비롯한 소수에 의하여 존속되고 있다. 세계화와 다양성이란 기치 아래서 제도문학이 그 튼튼한 뿌리를 21세기 깊숙히 뺏어나가는데 비하여 반제도문학은 1980년대에 솟았던 정력의 여력으로 그 명맥을 지탱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다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민족문학작가회의였다. 1999년부터 작가회의는 기성문학 단체와 변별성을 잃은 채 그 응집력을 하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정황 아래서 제도문학은 어떤가.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제도문학도 그 주기는 점점 하락했다. 이제 한국도 문화적 풍토로는 선진국화 했지만 문학운동과 단체는 여전히 중세적인 윤리와 의리가 지배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문단은 그 외형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보혁 구도로 짜여져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남북문제나 민족, 사회, 국제문제 등에서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반제도 문학이 절실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술도 새로운 부대도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 영원한 청춘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해 줄까 하

는 염려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반제도문학은 이제 그 스스로가 준 제도화 된 채 안주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새로운 반제도문학이 요망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지 모른다. 사실 군사독재의 뒤를 이은 두 민주화 운동권 출신 집권을 거치면서 반제도 문학은 너무 안일과 자만에 빠져 스스로를 방기해 버린 흔적이 역력하다. 아마 이 나태에 대한 고난의 형벌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데, 그건 정치권력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반제도 문학이 1980년대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그 오차의 범위가 점점 벌어져 버렸다는 맹성도 시급하다. 반제도 문학을 주도했던 지도급 문학인의 안이한 역사적인 대응과 그들이 지녔던 원초적인 제도 문학적인 본질도 재검토 해야 될 것이다. 요컨대 반제도 문학은 오히려 21세기야말로 절박한대도 이에 대한 청사진은 감감한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문학은 반제도를 지향하기에 언제나 전위성을 확보할 때만이 새 세대의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제 세계사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전과 이후라는 시대 구분으로 나뉘 만큼 엄청난 혼류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이것은 용도 폐기된 반제도문학이 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격변의 문학운동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현영 : 문학평론가, 저서《문단시대의 문학》외 다수,
한국평론가협회회장,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학생문단 | 시

강정숙
곽다영
김경훈
김형출
노정숙
류제희
박병식
박 훈
손선옥
심경자
안민숙
엄치현
유시경
유원희
이주영
정건우
한필애
허소미

詩

|| 시 ||

물의 집 外 1편

강정숙

빗줄기가 슬어놓은 물방울을 바라본다
결기를 버리느라 가만 휘인 가지 끝
투명한 물 집 한 채가 아스라히 걸려있다

누구의 무슨 열망이 저토록 간절해
거꾸로 매달려서도 손 놓지 못하는 걸까
초록을 다 내치고도 짝들어 찬 무게여

나 또한 계절로 치면 늦은 가을일까
오랜 노숙을 접고 저 집에 들고 싶다
지상과 천상에 걸린 부드럽고 둥근 집

|| 시 ||

진도 완창

누가 저 수면에다
소리를 입혔는가
톡 하고
튀겨 주면
쟁쟁쟁 울 것 같은
코발트
푸른 이랑이
넘칠 듯 팽팽하다

어디를 둘러봐도 최상의 명품이다
맑게 탁 트였으되
끓길 듯 남실대는, 남녘의
그 물길 속은
젓어 우는 완창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한 外 1편

곽다영

벧속에 물고기 한 마리 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지느러미가 진득한 물살을 가르고
파닥이며 벽에 제 머리를 박을 때마다
나는 기뻐 몸을 뒤척였다
가장 습한 구석에 물고기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물고기가 되어 내 속을 헤엄치고
그 물고기가 다시 알을 낳고 또 다른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었지만
내 벧속에는 언제나 물고기 한 마리만이 살았다
사라진 물고기들이 생리 혈을 따라 울컥울컥 쏟아지는 밤이면
오래된 생선 냄새가 온 몸을 휘감았다
어둡고 축축한 불면의 밤이 늘어갈 때마다
벧속의 물고기는 더 힘차게 파닥였다
물고기 한 마리가 달콤한 환각에서 깨지 않도록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도록
나는 모든,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한 바다가 되었다

서른 살 해바라기

알몸으로 애걸해도 도무지 아니 되는 성교는
오르가즘에 헤 벌어진 얼굴보다 추하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목 꺾인 채로 선 강변의 해바라기
계절이 지나고 멍텅멍텅 꽃잎이 빠졌으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실낱같은 줄기를 세우고 썼다
메마른 줄기에 겨우 잎을 매달고 제 그림자 속에 숨어 우는
서른 살, 처녀
젖은 그림자가 강물에 섞여 흘러간다

이별하고 돌아온 밤이면 음부소양증 환자처럼 벌거벗고
벽에 몸을 비볐다
짜릿기에 실패한 죄로 부끄러워 잠들지 못하는 여자
끝내 생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흙바닥에 고꾸라질까
바싹바싹 타는 얼굴 위로
낙화할 시기를 놓쳐버린 꽃잎들이 오글거리며 시들어간다

|| 시 ||

바람폭포 外 1편

곽미영

월출산으로 간다
바람을 만나러 간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그를 가슴에 안고 살아 온 그녀는
한번씩 그가 일렁일 때마다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
그에게로 간다

숲이 품고 있는 길은
대낮에도 어둡다
어둠을 밝고 바람에게 간다
당초 바람은
형상이 없다고 믿었던
그녀의 생각은 틀렸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가 부챗살처럼 펼쳐놓은
바람이 쏟아져 내린다

동자꽃

지난 겨울 언 뺨이
아직도 발그레한 그 아이
풀잎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무심코 지나는 발목을 잡는다

혼자 견뎌냈을
밤의 무게와 바람의 모서리가
아이 몸 안에서 출렁인다
흠린 듯 취한 듯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만 눈시울이 젖는다

어쩌면 나는
한 삼백 년 전 즈음
산속 암자에 아이를 버리고
모질게 등 돌리고 돌아선 엄마였는지
울며 울며 내려오다
서너 번쯤 뒤돌아보기는 했는지

떠도는 먹구름 外 1편

김경훈

몇 억 광년의 바람으로 떠돌다 머물렀을 먹구름 속에서
뱀이 개구리 다리를 물었다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육체적 향락과 고통이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먹구름 속에서 광기어린 춤을 추다
날개 꺾인 죽은 그림자가 엉켜있다
아, 지독한 향락과 고통이 서로 노려보며 불을 뿜는다
죽음을 애무하며 날카롭게 내려찍는 뱀 혀의 조롱
순식간에 고통은 울다 사라지고 향락이 불을 지배한다
그 옛날 헐어진 처마 밑에서 처 놓은 거미줄에
또 다시 걸려든 나방의 날갯짓처럼
쓰러진 자의 쓰디쓴 웃음을 만나러 목발 짚고 죽음이 내려온다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 떠도는 자
무덤 밖으로 뛰쳐나와 내일을 해매는 자
낮선 거리에서 얼굴 잃은 자와 바람이 만나
살이 찢어져 먼지가 되는, 밤새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오래 머물 수 없는 비린내 젖은 뜰에 꽃잎도 떨어뜨려가며
천천히 내려온다.

바다를 건너는 칭기스칸

봄꽃 지고

거대한 말발굽소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죽음의 기억은 바다를 건너온다

창틈으로 잃어버린 꿈이 탑을 쌓으면

어느새 공중에는 메마른 모래로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져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하여 밤새 신전을 만들며 달려온 것인가

바람이 들꼬를 트며 지나가면

모래 먼지의 몸에 혈액이 돌아

기억을 위한 호흡이 거칠어진다

나도 먼지였을 때 태초로 돌아가 살펴보면

그 옛날 몸을 더럽히며 칼에 목이 베어 죽은

적군의 포로였을지도 모른다

실크로드를 꿈꾸며 사막을 횡단하다

뜨거운 바다에 갇혀 떠도는 뗏목에서

이슬방울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낙타의 메마른 헛바닥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래가 공중을 덮을수록 내 존재는
발에서 금방 뿜혀진 무 뿌리에 달라붙은
흙에 불과하리라
먼지를 일으키며 끝없이 달리는 칭기즈칸,
말발굽소리가 또 하나의 밀담을 함락시키면
나는 땅속에서 몇 천 년이나 잠든 미라가 된다

접시 外 1편

김형출

시계 접시가 앞에 있다
호모 엑스페르투스(homo expertus)*는 접시 위에
떨고 있다
애처로운 눈과 마주쳤을 때엔 미안하다
나는 시방 굶주린 식탐이다
사(沙)접시는 일회용 접시가 아닌 우리네 인생
접시 안에 빛깔 좋은 어둠들이 모여 있다
붉은 토마토, 노란 오렌지, 흰 실타래,
파란 고추, 빛살 좋은 생선회조차
일상을 움켜잡고 떨고 있다
인생은 수평으로 드러누워
접시 안을 비어놓은 눈물 한 방울
'큰 소리를 내면 접시가 깨어진다.' 는 이것은
진부한 얘기이다
그래서 정갈한 내 머리카락은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호모 엑스페르투스(homo expertus) : 실험하는 인간의 속성

|| 시 ||

기다림의 순간

생명을 구결하기 위하여 매일 거지가 되곤 한다.

때로는 가식으로 되돌아온 메아리 안에
비웃음만 남기고 마는 난
우주에 존재하지도 않은 죽음만 생각하는 넌

내 앞에서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마!
슬픈 노래를 닦아내고 있는 넌 벌써 고독을 생각하며
눈물처럼 울고 있어
어느 숨결 하나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해
꽃망울을 글썽이며 피어날 때까지
돌아앉아 밤낮을 헤아리며
가난했던 이야기를 비장에 꽂아두어라
햇바늘에 돌아난 돌기는 오기로 씹고
또 씹어 삼켜라

사그라져가는 불씨를 지피고 또 지피
살모사 독을 품고 씨앗을 품어서

꽃뿌리가 혈관에서 돌아나는 날
실재는 너였다고 말해주렴
기다림의 순간이여!

경의를 포함 外 1편

노정숙

지갑에 참을 인(忍)자 석 자를 넣고 다닌다는
보일러공 이면우 시인
돈을 참고 술을 참고 여자를 참고
참 잘도 살아냈다
손을 넘긴 맑은 얼굴이 째하다
그가 참으며 빚어낸 저 정한 자식들
눈물겹게 살아서 내 안으로 잠겨든다

아직 한창인 식욕을 참고
사주에 타고 난 역마살을 참고
대물림으로 받은 한량기를 참으며
예까지 겨우 와서 돌아보니
내가 마련한 것들 참으로
허름하여 열없다

참을 것 없이 쉽게 산 시간 없지만
몸으로 산 그에게 오늘만은 깊이 옆드림

향기行

목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장에서 손이 많이 가는 봄나물 앞에 서서 망설인다. 눈웃음이 후한 여자는 묻지도 않고 달래, 냉이, 원추리를 봉지에 담아 건넨다.

만날 끝찌인 늦둥이 막내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하듯이 시가 곁을 주지 않아도 난 시인을 만나는 게 좋다

|| 시 ||

불혹 外 1편

류제희

햇별이 어루만지던
배추밭 머리
그 따뜻한 품에서
새파랗게 철없던 나날

별, 나비 날아들고
풀벌레 파고들어 남루해진 가계
흙 한 줌 움켜잡고
늘어나는 식솔 지탱하느라
어느새 굽어진 허리

산짐승 몸놀림 빨라진 입동 무렵
짐 떨어진 호두나무 그림자
개울 건너, 산길로 들고
고집스럽게 여문 풀씨들
이승에 몸을 버린다.

모두 떠난 들녘
시린 밭목 이끌고 돌아가는 길
제 빛깔 그대로 지는 꽃잎을 보며
팔팔하던 자유가
비로소 겸손해진다.

겉 이파리 서너 장
한기를 막아보지만
푸른 속살 안으로만 파고들어
스스로 무덤이 되어가는
겨울 배추 한 포기

|| 시 ||

가을 산

밤새
찬비 내리고
밤잠 설치게 하더니

이봐,
앞산에도 우환이 들었나 봐

온몸에
열꽃 돋는 걸 보니

이제 그만 살고 싶어 外 1편

박병식

반백년 전, 아니 그 훨씬 전에
백옥같이 영롱한 삶을 살았을 입이시여
살아가는 흥터마다 알토랑 같은
알맹이 쑥 쑥 내려놓고

금지옥엽 기르면서
빈곤에 겹쳐질 때
홍수가 곱으로 밀려올 때에
더러는 독기품은 생각
던질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태워 방고래를 데우고
한줌 재가 된 뽕감같이

옥 같은 육신 다 녹여내고
껍데기만 남아 제자리 맴돌아도
하얀 미소로 학처럼
날개를 피셨던 입이시여

이제 허울뿐인 육신마저
내려놓고 싶은 입이시여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장승처럼 보고만 서있는
못난 새끼입니다.

불의 나라

살아있다. 숨 쉰다
스르르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뚜벅 뚜벅 성큼 성큼 걸어간다
낮고 저 높은 길을 펄 펄 펄 뛰어간다
깊고 힘찬 생명이 세상을 그린다

모습이 탱글탱글하다
심장이 빵빵 빵 뚫는다
활보하는 거리가 힘차다
그들의 세계가 새롭다

엷히고설킨 모습에서
반듯하고 동그란 그림까지
그들만의 나라가
용솨음 치고 있다
철철 끓는 피가
찝한 자국을 만들고 있다

예쁘고 당찬 생명의 꽃
한잎 두잎 떨어져 간 꽃
갓 일어난 아기 꽃

그 안에 죽음의 꽃도 피어나고 있다

|| 시 ||

떠나고픈 가랑잎 外 1편

박 훈

그제 바람 불더니
어젯밤엔 비

몇 잎 낙엽이
차 보닛 위로 날아와 앉아 있었다.
왜, 그들이
날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날아와 앉은 것으로 느껴졌을까.

그래 !
그들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거야
갈 봄 여름 없이 묶여 있던 몸
이젠 어디론가
멀리 멀리 떠나고픈 것인 게야

낙엽처럼 마른 몸 이끌고
어머니
먼 나라로 떠나셨듯,
이젠 자식들 짐
벗고 떠나셨듯.

혹,
일체 화장 안하던 아내, 오늘 아침
정성껏 얼굴 매만지던데
아내도 어디론가
떠나고픈 거 아닐까

가을바람 부는
이 아침.

늦가을 산을 오르며

나는 매 해 이맘때쯤이면
1년에 한 번씩만 월경을 하는 여자들
그들을 알고 있다

부끄러워 하지도
고통스러워 하지도 않는
그들을 만나러 간다

아무데서나 훌훌 벗고
아무에게나
피를 보여주는 성녀(聖女)들

비오는 날이나
바람부는 날
피의 냄새는
쉽게 말아지지 않는다

차가운 사내들의
하얀 정기
흠뻑 들이켜는 날
그녀들의 축제일이다.

산사의 은밀(隱密)한 풍경(風磬)이 울리는 때
나무를 흔드는 바람, 그들은 내밀한 情事로
산을 불태우고 있다.

|| 시 ||

하루 外 1편

손선옥

별빛 한 점 등에 지고 반딧불 하나 풀숲에서 날아오른다
차오를 때의 그 몸짓이 나의 사랑보다 서스럽다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어둠은 더 팽팽해지고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만히 불러본다
어둡고서야 빛나는 네 목숨과 헤어져서야 그리운 그대의 이름,
서러운 저 세상이 가슴 한 켠에 들어와 앉는다

당신

새벽입니다 이 새벽 공기가 당신의 입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내 곁에 없더라도 마음껏 당신을 들여 마실 수 있겠지요
바람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바람 타고 세상 어딘가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당신의 눈빛만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의 눈빛만으로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곳으로
오늘 하루도 당신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밥의 무게 外 1편

심희수

어머닌 기운 한 점 없으시다가도
어디 초인이 된 듯이
흐린 정신에도 몇 번이고 붙은 한 말씀
애야, 밥 먹자 밥해야겠다
큼직한 양은 냄비에 동태 국을 끓이고
고슬고슬 하얀 쌀밥
고병으로 잘도 차리신다

야간학교 다니던 땅의 시장기가 각인된 것일까
라면땅 한 봉지, 냉수 한 컵으로 어린 허기를 달랠 무렵
어머닌 잔걸음으로 와서 도시락을 쥐여주곤 했었다

먹을거리가 풍년이다
밥의 무게가 너무도 가벼워졌지만
지금 그 딸은 딸에게 다시 묻는다
밥은 먹었니

완두콩 어머니

두 자루의 콩을 던져 놓았더니
검정비닐봉지 속에서 한 움큼씩 재빠르게
콩과 껍질을 나누어 놓으신다
내가 올해 몇 살이나
팔십 셋이나 넷이나
살기도 많이 살았다
올가을엔 꼭 가야 되는디
구순이 넘은 어머니의 눈가엔 어느새
나비 꽃 되어 하늘 끝으로
너울너울 날아갔다
몇 일전 옥상에
봄 채소 모종들을
바가지로 모두
뽑아 가지고 내려오셨다
지긋지긋한 잡풀로 보신 것이다
어제 처방전엔 한 알 더 추가되었다

마리화나를 위하여 外 1편

안민숙

흐린 눈 껌벽이며
먹이를 삼키는 먹구렁이
깊고 검은 입 반쯤 벌린 채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번들거리는 배를 끌고 조금씩
다가오는 그를 만나러 갑니다
빙 빙 다른 길을 맴돕니다 멀리
서둘러 달려온 출발점도 되 돌아봅니다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돌아서면 다시 앞을 가로막는 칭칭 먹구렁이
다 큰 개망초 언덕마다 부시게 피고
움츠린 몸이 천천히 먹힙니다
더듬더듬 검은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발밑에 어둠이 파리를 틀고
미끄러운 비탈 오르고 내리다
영킨 몸이 풀립니다

마침내 취한 해가 둥둥 떠다닙니다

|| 시 ||

그믐

욕실 안에서
가랑이를 벌리고
꽃잎을 떨군다
바닥에
맥없이 떨어진
불
은
자
국
실지렁이처럼 엉겨
꿈틀대는 살점이
물소리와 함께
세상을 빠져나간다

중년여자의 험렁한 몸 안에도
때가 되면 물이 오르고 더운 피가 모인다

어둠 속에서 살 오르는 소리

태봉胎封*에서 外 1편

안장수

별빛 항상 비추이는
별들의 마실엔
외려 달 항아리 하나 떠 있네

검은 태갈 들계단 딛을 때
왕조 비사 메아리쳐 강울음으로 달아나고
나는 양수 속에 새끼 은어로 유명하누나

팔방 병풍으로 둘러쳐진 뒷부리 안으로
평지에 응립한 동산은 아늑하여라
열아홉 기 돌 항아리 왕자님네 태를 얻어
꺼칠한 얼굴 태반주사 맞아
눈은 별이 되고 얼굴은 정월대보름달 될거나

어느 왕자는 임금 싫어 황당무계 비의 속에
한 획을 빼치는 그대
차라리 추사의 땃줄필치에 오름 올라라

성주 이씨 분향 찾아 웃대부터 모셔놓고
작년 별리곡 부른 국화꽃 당신의 영정
6개월 후 공로연수 퇴임 맞는 손윗 친구야

태로 돌아가고프나 고사목 같은 버리지 생아
나 분망히 쏘다녀도
태봉아래 지방리 마을 대숲에서 퍼드득 날아가는
뒗비둘기 비행음을 따라 후드득 퍼드덕
울 엄마 뱃속에서 웅아질 할 뿐이네

* 태봉 : 경북 성(星)주군 월(月)항면에 있는 세종등 왕자 19기의 태실이 모셔져 있는 곳.

소백산

그대 눈산 오를 때엔 스키복 눈빛과카는 입고 오르는가
하 많은 사람 검은 비적떼 또는 흥포 차림 입산할 때
그대는 오리솜털 중간재로 누빈 눈보다 흰 모자와 복장을 한
남빙양 한 마리 펭귄 끌이구려

그대 자동차 엔진 끄고 그 산 들머리 금계리 황금닭 바위에
무릎 꿇어 세 번 절 하였는가
아니면 죽령 죽계사 신당에 계신 다자구 할망구에게
다자구야~ 딸자구야~ 외쳐나 보았는가

누가 태백은 크고 소백은 작다 하는가
노벨상후보라는 고은은 소백산 허공에서 기진핍진한 채 혼절하누나
그대 양백지간의 설한풍을,
풍기 인삼골에서 맵차게 휘몰아쳐 오는 파도이랑에
계곡의 배를 띄워보았는가

보고픈 동생아, 소백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나의 아우야
너의 넓은 제망제가를 부를 적마다 산얼굴로 나타나더라
해맑은 얼굴 산그림자 망사를 쓰고
술 한 잔 먹고파요~ 배가 고파요, 형아~라고
나에게 다가서는구나
나 감자바우땅 화천에 토담집 짓고 산천어 한 마리 적수에 구워
소주 한 병 비우려나

덕유산 거창골에서 울 할아버지적 말타고 찾아온
천하제일 비기의 땅 풍기읍 금계리에서
아버어미 봉황고개에 묻고, 동생마저 여윈 채
석갈비 한 조각에 음복하누나

그대 다시는 소백산 찾지 않으리
소백산 자락 겹주름 무늬 영상에 다신 흘리지 않으리
죽계별곡 별리의 노래
순흥 청다리에서 주워온 아해처럼
바람으로 허공 떠돌리라
석간수되어 부딪히며 깨어지며 소백의 하얀 울음 울으리라

다시 삼강주막에서

다시多時는 많이, 때때로 일 듯 한 데
야시홀 다시마 해초에 발 담근 지 어제인 데
이렇듯 시나브로 강둑에 섰네
석삼자는 가장 안정된 수라든 데
삼국이 정립하듯, 솔다리 세 개이듯
나도 한 마리 삼죽오 새 되어
삼강을 배회하네

낙동강 칠백리는 삼강부근에서 비로소임이고
소금배 왜관 거쳐 여기까지 이르렀나니
낙동강, 내성천, 금천이 삼남매처럼
서로 끌어안고 ‘순님아~, 영수아~, 광수 형아~’ 라고
울음운다

나무 베다 나무 덮쳐 다리 부러진 여든셋 회룡포 학래 할배
카톨릭 병원 문병하고, 할배 부인 아가다 성전에서 치성드릴 때
나 전날 양재역 교육회관에서 만난 문우들과
또 과천 승진시험 늦각이 동료들의 졸업축하주와 위로주에
별빛 따라 새벽길 걸어 문경새재 넘었네
새재 산신각 샘물 영강으로 낙강에 이어지네

우수 사흘 앞둔 정월은 상기 절기상 봄인데
강빛은 푸르고 차기만 하구려
삼강주막 전씨 할머니, 글자 모르는 우리 할매같던 전씨할매
몇 년 전 세상여의고
오늘 가름히도 고운 얼굴 보름 한치레 만에
하현달로 떠오른다
강촌은 처연한 데
달봉산 자락에 할매실은 저 달은 배처럼 하늘 강을 흘러
서녘 어드메를 넘어너머 간다

|| 시 ||

증발해 버린 지난날 外 2편

엄치현

길을 떠났다 추운겨울
행하니 나만 내려놓고 떠나는 버스를 뒤로 한 채
눈발마저 성성이던 텅 빈 거리를 서성이다가
아담한 찻집
포근함과 따스함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

그 안에
운명처럼 배반의 현실을 남기고 떠났던
삼십 년 전의 사랑이 있었다
세상은 이처럼 좁고
여자는 변신에 능한 것일까

중후한 멋의 남편
늦둥이로 낳은 듯 사춘기 딸에게
첫사랑을 시인으로 미화하여 소개한 후
남편과 딸이 돌아가자
타인으로 마주한 찻집

소녀가 소멸하고 있었다
중년여인의 수다가 더 할수록
과거는 그때마다 일력日曆처럼 뜯겨져 버리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픈 그리움조차
남겨 두기를 거부하였다

떨어지는 마른 잎 같은 엽서 한 장
떨림으로 몇 가락 잡았던 손의 체온
별과 파도와 흰 눈 내리던 밤의 추억조차
난로 위 주전자에서 뿜어내는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리고 있었다

어머니

중랑천 흐릿한 냇물에
산더미 같은 흰 비닐 조각을 행구어 내시고
가끔은 부역이라 온종일 흙 날라
휘어진 고개 초승달처럼 기울어
뒤뚱이며 오리걸음으로 돌아오신 날 저녁에
이고 온 밀가루 한 포대와
구겨진 지전 몇 닢 내놓으시며
이것이면 사나흘 풀칠은 하겠구나
손가락 꽂혀 있는 식은 강냉이 죽
들들 휘저으며
큰애야 내일은 밀린 월사금 내거라
모래알 떨어지는 머릿수건 광주리에 벗어 던지며
그래도 전쟁 난리 통 보다는 낫지
아무렴 지금이 낫고 말고
죽지는 않을 테니까 하시던 어머니

|| 시 ||

헐벗은 이웃들에게

참새야 아침만이라도 모이를 던져주고 싶다

내 일어나기도 전에
늘어진 빨래 줄 위에
주르르 쪼그려 올라 앉아
축 쳐진 뱃자락 깔고 있는 너희들에게

참새야 아침만이라도 모이를 던져주고 싶다

손짓으로 부르며 알량한
쌀 한줌 던져 주지만
그 마저도 마음 놓고
쫓아대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참새야 아침만이라고 모이를 던져주고 싶다

거뿍들인 마른 눈과 발에
펼 펼 눈 내려 쌓이고
그 작은 몸 숨길 나뭇잎 떨어지면
어떻게 지낼거니 너희들은

|| 시 ||

가을, 수덕사 外 1편

유시경

700년 대응전 계단을
바람과 손 맞잡고 슬렁슬렁 올라가요
한 돌 한 돌 밟을 때마다
땀방울 땀방울의 모가지
성근 햇살 앞섰는데 매달리고
수덕여관 입구에 옷 벗은 배롱나뭇가지 하나
슬그미 몸 비틀어 옆구리 찌르네요

가자가자 같이 가자 극락으로 왕생하자
마누라도 가버리고 내 놈의 청춘도 끝났도다
니들이 뭐 상관이나 나는 갈란다
에구에구, 비켜라 요것들아
십팔백팔 혼자라도 기어서 올라갈란다

달곰새금 막걸리에 전 저 노인네
신발도 벗어던지고 머언 정토길 설설 잘도 오르네요
오르다 오르다
가는 길이 못내 버거웠나 보아요
꽃감마냥 중천가지에 걸터앉아,
해동갑으로 빌어먹을 놈의 청춘만 읊어대고 있군요
술잎자락에 매달린 하늘도 흔들리고
동자에 담긴 풍경마저 주저리주저리 흔들리네요

삼배를 마치고 여관에 들 때까지
댕강꽃에 입 맞추고 국화잎에 취할 때까지
수덕사 오르는 가을의 눈 속엔
온통 단풍든 부처의 얼굴뿐이어요

눈물의 여왕

나는 여왕이에요 이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주변적인 것들의 통치자예요 졸린 눈 비비며 일어나지 않아도 되구요 국 없는 밥을 천천히 씹어도 되지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구요 문자메세지에 놀라지 않아도 되지요 철새가 된 아이를 어깨에 얹고 하늘을 날 수도 있구요 당신의 기쁨에 키스할 시간도 많아졌지요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볼 수도 있구요 에프엠 주파수에 엉덩이 흔들 여유도 생겼지요 나는 매일매일 울음이 자라나는 만삭의 아랫배에서 우편배달부의 축전을 기다려요 건조한 우체통의 누선에 입을 맞추고 스물스물 스무방울의 답신을 부칠 거예요 그래요 내 권력은 누낭에서 솟아나죠 붉은 장갑 낀 사이보그들이 요금별납의 고지서를 던져주네요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편지들이죠 흐릿하겠지만, 나는 내게로 오는 편지가 말랑말랑 젖어있으면 좋겠어요 뜯진 않겠지만, 내게로 오는 전자메일이 항상 다디단 눈물이면 좋겠어요 고지서 말구요 광고메일 말구요

|| 시 ||

걱정의 빗깔 外 1편

유원희

해바라기의 한숨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허리를 꺾은 해바라기가 꽃병 속에 풀어 놓은 소리
외출하는 바람에 태워 하늘로 밀어 올리는 소리
그 소리의 빗깔이 보고 싶어
고흐를 만나러 가요
귀를 잘라 눈을 하나 더 만든 고흐를 만나러 가요
아마도 무덤에선 소리의 빗깔을 손에 꼭 쥐고 있을 거예요
모르죠, 그 빗깔로 벽화를 그리고 있을지
그러다가 가끔씩 무덤 밖으로
걱정의 꽃잎 하나쯤 살짝 내 보낼지도
내 걱정도 갖고 싶어 한 당신
함께 미술관으로 가요
당신의 손바닥에
혹시, 그 걱정의 빗깔을 그려 줄지도

행운이발관

구멍가게를 동무로 둔
간판도 없는 행운이발관
가위에 몸 베인 햇살들이
이발관 창틀에서 미끄러지며 바스락바스락
유리문 위로는 모범업소 친절본위라는 글귀가 떠억 하니
너무도 친절하게 모범적으로 붙어 있지만
이발사 김씨는 늘 봄 햇살에 즐기 바쁘다
이발사 김씨는 꿈속에서도 가위질을 한다
자신의 역센 손마디를 툭툭 벗겨
정갈하게 모아 놓은 도라지 같은 시간들을 싹둑
비릿한 바다를 걸치고 온 사내들의 휘파람 소리를 싹둑
애인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쓰리고 뭉개지는 발자국들을 싹둑
가위질을 끝낸 이발사 김씨는
코털도 자르고 컷밥도 파준다
시름시름 말라가는 가위의 입속으로
구로시장 하루는 몸을 잘도 밀어 넣는다

그녀에게 外 1편

이주영

고마워, 가볍게 떠 있는 너를 보자 안심이 돼
9분 30초 동안 사람들이 한 일이라곤 그래도 숨을 쉬고 있는 것 뿐이었어
지구에서 이탈되는 순간을 그리며
악몽에 시달리던 지난 밤
아버지가 달을 품어내고 있었어
의지라곤 존재하지 않는 방들이 모여 있었고
희미한 불을 들고 가끔 누군가 기웃거리고 있었지
제 가슴에 불이 붙어도 가슴은 소리 내어 울지 않는 법
달이 안고 있는 것은 스카이 콩콩 흑암뿐이었지만
모든 척 마알간 현기증만 뿜어내고 있는 해의 뜨거움을
마몽드 자외선 선크림으로 나는 조금씩 대항하고 있었어
그녀의 공중 부양하는 곡예 째 빨대 쫓은 해처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도 있었지만
200억 들여 하늘에 떠 있고자 하는 어느 갑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
달을 해산 한 아버지의 벌어진 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고마워, 가늘어진 너의 허리를 보자 나도 용기가 나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허리를 버리자
길게 향락되어지는 삶이 열리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
지구를 버리는 거야
마치 보이는 게 하늘이 아닌 것처럼

병 속의 시간

시간을 담아 병 속에 넣자
바다는 푸른 정맥이 된다
바다는 바람을 익히는 연습을 한다
바다에는 펄럭이는 유랑자의 짧은 소매가 있고
아늑한 유랑자의 시간이 잠들어 있다
떠도는 자에게 잠들어 있는 질서의 향연
밀물처럼 밀려오는 생각의 거물들
입술이 달그락 거리며 살아 있음을 짓이길 때
병 속에 담긴 기억의 조각들은 누군가 버린 빵 한 조각으로
고단한 하루를 삼켜내야 한다
버려두기 어려운 진실이어도 거품처럼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을
공기는 병 속에 갇힌 시간으로 안다
때때로 움직여야 하며 달처럼 공명한 울음으로
출렁이는 생각을 기워내야 한다
바다에는 이슬이 머물지 않으며
이슬은 바위처럼 묵묵한 침묵으로 일관해야 하며
깊은 생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어가야 한다
벗은 채 달려드는 어느 부족의 금기로 태어나
젖지 않는 시간을 배우며
태고의 모습으로 고정 될 또 하나의 투명한 웃음
바다에는 아득한 절벽을 간직한 하루가 있고
햇볕에 잘려 나간 해파리처럼 허물거리는
가련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

평화여인숙 外 2편

정건우

너도 그랬었는지
낮선 역 텅 빈 광장에 서서
막차를 보내고
기다리던 사람도 보내고 비를 맞는
저 귀대 직전의 휴가병처럼
보낼 것 다 보내고 난 뒤에 찾아온 신열 같은 것이
오랜 안부를 묻게 했는지
사람아,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늦은 안부를 묻고
저기 세류역 건너 축축한 평화여인숙
하얀 문앞에
전구처럼 발개질 오랜 사람아
뒷문도 없어 서글픈 여인숙 골목을
둘이 걸으며 숨고 싶어라
세상 처음 약속을 어기듯 너에게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라
머슴애를 밤새 다그치는 옆방 가시내
발칙한 조건을
너와 같이 듣고 싶어라.

|| 시 ||

거룩한 방뇨

긴 병상을 걸어 눈앞이
새털처럼 화사한 날
자드락 채소밭에
할머니 오줌 누시네
비탈에서 사느라
몸 세우기 힘든 시퍼런 것들
물 주시네
오래 살라고
한껏 품어 주라고
삼남 오녀
그 시커먼 목숨을 뽑아낸
고단했던 음부
땅에 대시네
다독이시네

절벽

예전엔 이곳에도 길이 있었으리
내가 걸어온 거리만큼
이 흙을 밟았던 세상의 모든 살아있던 것들
그 분분했던 발길 있었으리

비와 바람과 햇볕과
잊힌다는 것이 길을 덮고 또 다른 발자국 위에
다시 길이 없히고
오가던 걸음들이 쌓여서 탑처럼 생긴
고적한 지층

더는 가지 못할 발길의 슬픔과
바람의 등을 타고 가는 마음의 자유가
공존하는 이 직립의 경계선에서

저마다 다른 궁금증으로
층층에 쌓여 있는
저 견고한 생각의 단면(斷面)들

진실의 순간 外 1편

- 마드리드 라스벤타스투우장 -

한필애

나는 네 살 난 검은 소
인간의 나이로 스무 살의 험험장부다
두꺼운 뿔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에 콧김은 뜨겁다
목덜미에 리본을 달고
아레나*로 뛰어들 때
구름 같은 관중이 폭죽처럼 환호했다
내가 분홍색 망토 흔드는
투우사들을 쫓아 뿔을 들이대고 달려들면
그들은 가림막 뒤로 숨어 버렸다
얘야 매사에 신중해야지
어머니의 말이 귓등을 스쳤다
눈 깜박할 순간,
내 급소가 창에 찔렸다
피가 솟았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화가 나오 화가 치밀어서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저들은 여섯 개의 작살을 피에 젖은 리본에 꽂네요
피의 향기가 진해요
통증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요
어머니
마타도르*가 흔드는 빨간색 망토를 들이박고 또 들이 받아요

난 창도 검도 없잖아요
마타도르가 검으로 고통을 끝내 주네요
피를 즐기는 사자들처럼
내 편이 아니었던 관중들
하얀 손수건을 꽃으로 흔들어 주네요
어
머
나...

*진실의 순간 -투우에서 마지막 장면, 소의 절명시간
*아레나 - 투우장
*마타도르 - 상처 입은 소와 맞서 싸우는 상급 투우사

인간시장

목요일마다 열리는 경매법정은 표정이 없다
부도난 공장 은행이자에 넘어지는 아파트
저당 잡혀 조각나는 토지 할부금에 발 묶인 자동차와
입찰자들이 적어 낸 숫자만 법정 안에서
이마를 부딪치며 등등 떠돌고 있다
한창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 하나 슬쩍 끼워 넣어 본다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십 퍼센트가 다운되어 한 달 후에 재입찰한다
다시 낙찰되자 못 한다 조바심이 난다
또 한 달 후 세 번째 경매에 내놓는다
처음보다 많이 낮아진 가격, 이번에는 팔리겠지
그러나 응찰자가 없다
자궁이 없는 여자
척추 수술로 통증을 달고 사는 여자
봄에 암 수술하고 아직 마취가 덜 깬 여자
두통은 없으나 머리가 흐릿한 여자

법원 조사관이 적어놓은 경매물건 내용이다
하자 투성이 불량한 물건을
어디에 가서 팔아야 하나
회상도 낮은 카메라로
두통이 없는 머리만 짚어 옥션에 한번 올려볼까

|| 시 ||

밤길 外 1편

허소미

문들이 닫힌다
앞에서, 뒤에서, 철컹, 철컹
맨 나중까지
기다리던 이들도
하나, 둘, 불을 끄고
얼핏 그림자로 숨어 들고
살점 한 도막씩 떼어 먹하던 길도
흔곤한 잠빛으로 떨어진다
멀고 가까운 빛으로
나를 당기는 그는
졸음이 오는 가로등 밑에
겨운 눈썹 심어두고
부표처럼 떠오르는 얼굴이
어른거리는 시선으로 벽시계를 더듬는다
문들이 닫힌다
길들이 닫힌다
달려들 듯 쫓아오는 소리
철컹덕 텅

겨울날의 안부

각자 서로 잘 있기
제 한 몸만으로도 버거운 시절
내미는 손 없다고 투덜대지 말기
꿀떡 삼키기에 바빠 아직도
날것인 채로 남아 있는
지난 날들의 찻기
반추동물처럼 꼼꼼 씹어 되새김질하기
그래서 단단해지기
말하지 않아도
삶의 최전방인 여기
겨울 저 놈도 지가 지켜운지
가슴 활짝 열고 봄바람 솔솔 풍기는
기미 일부러 눈치 채이게 하는데
그때 선뜻 마음의 빗장 열었다가
꽃샘추위에 갇혀 그나마 운신해온 진기
죄 지은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다 쥐어뜯길지 몰라
꽃향기 뽀뽀 대는 춘삼월 그때에나
문밖 출입하여 어깨 두드리며
우리 서로 인사하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 동시 ||

넷물이 外 1편

김미영

넷물이
꽂꽂
잠이 들었다.

썰매야,
얌전히 놀아라.

팬이야,
가만가만 돌아라.

냥시꾼은
접근 금지

|| 동시 ||

진곤이

-엄마 잃은 우리 집 5

-술고래 아빠랑
함께 안 잘 거야.

-골초 아빠랑
같이 안 잘 거야.
말해 놓고선

아빠를
끌어안고 잔다.

술 냄새도
끌어안고 잔다.

담배 냄새도
끌어안고 잔다.

학생문단 | 소설

김수진

목미정

박인해

진수지

허광웅

소설

내 아들의 장례식

김수진

집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네가 좋아하던 소파, 너의 온기가 채 가지 않은 앙증맞은 옷들, 네가 열심히 물고 빨며 놀던 장난감들은 전부 그대로인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네가 없다. 이 엄마를 보고 금방이라도 달려 나와 두 팔에 뿌듯이 안길 듯한데. 팔 벌리고 기다려 보지만 두 팔 안에 가득한 건 텅 빈 고요뿐 재잘대던 너는 어디에도 없구나. 아침이면 보드랍게 몸을 비비적대며 안겨와 나를 깨우던 너. 너를 그렇게 보내고도 뻔뻔하게 살아 숨 쉬는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아가야?

며칠 전 마지막으로 너를 씻기고 어여쁜 꼬까옷을 입혀 조그만 상자에 넣을 때, 차갑게 굳은 너의 육체가 너무도 가련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거둬진 수술에도 의젓하게 잘 버텨 준 너라서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아픈 아일 가진 엄마는 죄인이라서 마음껏 울 자격도 없었기에 그토록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구나. 엄마가 아파하면 쉬이 떠나지 못할 착한 너를 알면서도 너를 편하게 보내주지 못했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너의 시신을 화장하면서 이 엄마의 가슴도 다 타버려 잿빛으로 바랬구나.

네가 좋아하던 소파에 앉아 쿠션을 끌어안아 본다. 얼굴을 묻고 비비니 곳곳으로 너의 냄새가 가득 밀려 들어와 횡한 가슴을 채워 주는

구나. 너는 가고 없는데 집안 곳곳에 각인된 너의 잔영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운 너의 사랑스러운 사진들이 내게 말을 건네는구나. 울지 말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그래, 넌 참으로 착한 아이니까 이 엄마가 아프면 편히 쉬지 못하겠지.

너의 영혼을 담은 작은 상자를 낱골당에 안치시키면서 이 엄마가 했던 약속, 기억하니 아가야? 너 없는 세상이지만 살아보겠노라고 약속했었지. 그렇게 약속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이 엄마의 마음은 벌써 네가 있는 그곳에 가 있구나. 네가 가고 난 지금이야 엄마는 알게 되었단다. 이 엄마가 너에게 준 것보다는 받은 것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이다. 너를 위해 꾸민 예쁜 방, 그 방 안에 가득 찬 장난감과 옷들, 너를 위해 고르고 고른 음식들과 철마다 우리가 함께했던 여행. 이 엄마가 네게 해준 것이라곤 고작 그런 것들이 다였다. 그에 비해 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지. 부족함 없이 보살핀다고 자신했건만 너는 병들었고 결국 이 엄마의 품에서 날아가 버렸구나. 네가 내게 다시 외준다면 더욱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못한 엄마를 부디 용서해주렴, 아가야.

띠리리리! 집안에 자욱하게 깔린 오래된 침묵을 뚫고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근 한 달 만에 울리는 전화벨이었다. 노부인은 한밤중에 침입한 강도를 바라보는 듯한 당황한 시선으로 전화기를 한동안 응시했다. 위협적인 음향으로 울리는 벨소리를 견디지 못한 노부인이 한참 만에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으세요? 어머니, 접니다. 저 준섭입니다.”

“……네가 웬일이냐?”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잘 드시지도 않으신다구요. 어머니 기르시던 개가 죽었다면서요? 섭섭하게 들지 마세요. 어머니, 사람들이 노망났다고 욕합니다. 신문기사 낱일 있습니까? 준영이고 저고 다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트집 잡힌다는 거 아시잖아요? 애완전 장례식인가 뭔가 한다고 몇 천 들이셨다면서요? 휴, 뭐 돈 쓰시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닙니다. 다달이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돈만 해도 얼마데요. 어머니 재량껏 쓰시는 거 뭐랄 수는 없지만요, 암만 그래도 무슨 개한테 그리 돈을 들이십니까. 차라리 봉사활동도 좀 하시고 하면 심심치도 않고 모양새도 좋잖습니까? 아무튼 건강 좀 잘 챙기세요, 답답하면 나가서 바람도 쏘이시고 쇼핑이나 하시던가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끔 봤던 아들은 화면 속에서 그랬듯이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뒤 예고도 없이 달각. 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멍하게 수화기를 들고 있던 노부인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아들의 체취가 잔뜩 묻어나는 쿠션을 끌어안은 채 물기 가득 밴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아가야!”

초록불에서 멈추다

목미정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밤 열시가 되어 가고 있었다. 만약 그가 아직 사무실에 있다면 혼자일 테지만, 연인 사이도 아닌 그에게 무작정 달려가기에는 많이 늦은 시간이었다. 바람의 손의 이끌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사무실이 있는 동네까지 오긴 했지만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나는 지하철 출구를 올라와서 이십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땅을 딛고 있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벌써부터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심장 깊이 파고들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 순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보고 싶고, 봐야만 할 것 같은,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그냥 돌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말할 수 없이 초조했고 저릿했다. 어찌면 단단하게 굳어버린 왼쪽 가슴이 발목마저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미 그에게 나는 마냥 귀엽기만 한 소녀가 아니었다. 나에게 그 역시 편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와 나는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와 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

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와 나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감히 무너뜨릴 수도 없었다. 그와 나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서로를 만나지 않는 것뿐이다. 그것뿐이었다.

4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는 달빛처럼 그의 사무실에 켜져 있는 형광등 불빛만이 그 건물의 존재를 말해 주었다. 어둠 속에서 아주 밝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언젠가 보았던 그의 뒷모습처럼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를 볼 수만 있다면 돌아가는 길에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단숨에 올라갔다. 마침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거친 숨소리만 힘겹게 터져 나올 뿐, 그를 부르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곧 그가 몸을 왼쪽으로 비틀어 나를 돌아보았다. 그와 나는 한참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시간이 정지된 것만 같았다. 그와 나는 서로의 얼굴에서 살포시 흔들리는 눈빛과 미세하게 변해가는 표정과 보일 듯 말듯 떨리는 입술을 보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부끄러워져 버린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고, 두 손으로 나의 얼굴을 감싸 올리며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의 양쪽 어깨를 감싸며 그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갈비뼈 마디마디와 두근거리는 심장이 나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나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딱딱하게 솟은 그의 남성이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거침없이 그의 속옷과 바지를 뚫고 내 안으로 파고들 기세였다. 숨이 막히도록 솟구치는 그의 남성은 지금껏 나를 억누르고 있던 理性的의 갑옷을 벗어 던지게 했다. 나도 모르게 얇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순간 어쩐지 당황스러운 마음이 되어 그의 옷깃을 꼭 잡았다. 그러자 그와 나는 더욱 밀착되어 서로의 체내를 드나드는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나를 품에서 떼어내고 입술을 포개어왔다. 그의 입술과 혀의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졌다. 나는 그의 입술에

나를 맡기고 감정이 이끄는 데로 그와 함께 호흡했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감정이란 뒤로 물러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두렵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괜찮았다. 어깨를 감싸고 있던 그의 손이 나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동시에 그의 숨소리도 거세지고 있었다. 그도 더는 자신의 솟구치는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려 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통상적인 질서와 윤리적인 가치를 내려놓으며 나의 은밀한 부분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줍게 몸부림치는 나의 살결과 맞닥뜨린 그의 손은 불룩하게 도드라진 브래지어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들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이 아찔했다. 순간, 강렬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의 몸부림과 욕망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지고 말았다. 더는 갈 수 없었다. 이제는 그만 멈추고 싶었다. 더 나아간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잠시 벗어두었던 理性的의 갑옷을 챙겨 입고 내 안으로 파고드는 그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철썩. 날카로운 아픔이 나의 가슴을 한 번 더 내리쳤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빨갱게 달아오른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무의식으로 일어난 행동으로 그보다 더 당황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떤 표정으로 그를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어 고개를 들 수도 없었다. 아무래도…… 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잠시 동안의 어색한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나온 한 마디는 그러했다. 나는 여전히 그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어서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 이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발걸음을 재촉하려 할 때, 그제야 잠시 멎하니 서 있던 그가 다급히 나의 손목을 잡았고 자신의 품에 다시 한 번 나를 가두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나의 등을 토닥거렸다. 나는 폭풍처럼 밀려오는 쓰라림과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의 대한 원망과 그를 향한 사랑의 감정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간혀 있는 그의 품은 점점 익숙하고 포근해져만 갔다. 서둘러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스쳐갔다.

나는 힘겹게 그의 품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간 신호등 불빛이 휘청거리는 횡단보도까지 달려갔다. 그래야만 했다. 익숙해져가는 포근함 속의 그대로 나를 가두어 둘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 것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어온 것 같았다. 또 그곳에 두고 오면 안 되는 것을 놓고 온 것 같아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다 하여 다시 되돌아 갈 수도 없었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 쫓그리고 앉아 두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있었다.

그 눈빛

박인해

자글자글 끓던 해는 어느새 이올어 저 멀리 빌딩 숲 꼭대기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음반매장의 문을 서둘러 닫고 거리로 나섰다. 바빠 제 과점을 찾아 들어섰다. 알록달록 과일로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고른 후, 그녀가 좋아하는 파이 진열대 앞에 섰다. 애플파이, 치즈파이, 호두파이, 고구마파이 순으로 눈이 가자 빵 고르는 쟁반엔 금방 수북이 쌓여간다. 파이를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좋아해요. 계산대에서 아가씨가 생글거리며 인사를 건넨다. 오늘은 어머니 생일이기에 분명 이 빵들로 저녁끼니를 때울 일이 없건만, 오늘도 그녀는 허기진 듯 파이를 잔뜩 집어 들었다.

그녀는 전철역으로 향하며 애플파이를 한 입 베어 문다. 애플파이의 맛은, 오래전 헤어진 한 남자의 느낌이기도 했다. 감칠맛 나게 혀 끝에 감겨오는 사과향……. 아득히 먼 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물려온다. 요절한 ‘바다르 체프스카’의 곡 ‘소녀의 기도’가 입 안 가득 들어찬다. 아, 애플파이에선 애수어린 피아노 소리가 나. 흐느끼는 선율이 찌르르 목울대를 넘어가자, 그녀는 애써 고개를 탁 쳐들고 앞을 보며 걷는다.

이년 전 음반매장을 시작하고부터 그녀는 모든 사물에서 악기소리

를 느낀다. 지나간 시간들도 모두 어떤 음악들로 치환되어 그녀의 기억 속에 새롭게 저장되곤 했다. 첫사랑 남자와 처음 데이트하던 한강변에선 늘 영화 ‘닥터지바고’의 ‘라리의 테마’가 흐른다. 그와 첫 키스를 하던 남산길에선 베토벤의 ‘월광소나타’가, 오지 않을 그 남자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던 거리거리에선 조수미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란 노래가 들려오곤 했다. 잠 못 드는 밤이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35번 D장조’가 방안에 가득 고여 그녀를 슬픔의 바다로 데려다 주곤 했다.

어머니가 사는 곳까지는 전철로 열 정거장이다. 전철 안에서 노선표를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차창 밖으로 향한다. 석양이 한강변을 온통 물들이고 있다. 날카롭게 쏘아대던 한낮의 도도함을 거두고, 수국이 인간의 시선을 허락하는 석양빛. 지는 해는 오케스트라 같기도 하고 때론 ‘라흐마니노프’의 애절한 ‘피아노협주곡’을 닮아 있는 듯하다. 낮게 흐느끼는 듯하다가 이내 포효하는 선율. 그 석양에선 깊은 음절의 파도냄새가 나곤 한다.

-이 미친것아. 어찌자고 그 착한 현수를 떠밀었나.

-엄마는 내 마음 몰라. 모른다구요! 가슴도 없는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성하야, 엄마 말 믿어봐. 성형을 하면 감쪽같다더구나. 돈만 있으면 된다, 돈.

-엄마…….

어머니는 그 후로 악착스럽게 동네를 돌며 폐휴지 등을 긁어모아 팔곤 했다. 그녀가 유방암으로 왼쪽 유방을 잃은 후, 해마다 찾아오는 봄날의 햇살은 더 이상 싱그럽지 않았다. 삼년 째 사귀던 현수를 모질게 등 떠밀어 보내고, 그녀는 남해 근방의 작은 섬 우여도로 숨어들었다. 일몰이면 해안가 구릉의 역새도 꺾꺾 소리 내어 울고는 했다. 그녀는 그 섬에 틀어박혀 오랜 잠을 잤다.

오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 그녀의 몸에서는 다행히도 암수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를 걷는 그녀의 시선은 마주 오는 여자의 앞가슴에 머물곤 한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왼쪽에 두툼한 캡을 넣은 자신의 풍만한 가슴을 더욱 앞으로 내밀고는, 늘씬한 각선

미를 뽐내며 도도한 걸음걸이로 걸으려고 애썼다.

오빠네와 함께 사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서자 각각 중고등 학생이 된 조카 둘이 쪼르르 달려와 매달린다. 그녀의 팔뚝에 닿는 큰 조카의 가슴이 불룩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뒤로 물러서며 애써 큰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불혹을 바라보는 딸은 칠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케이크에 초 일곱 개를 꽂았다.

우리 딸 성하가 이리 예쁘고 늘씬하니 남자들이 많이 따랐던 게야. 이젠 널 다 이해하고 품어줄 남자만 다시 나타나면 될 텐데…….

엄마, 그만해요. 난 결혼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구요. 그간 결혼이 뭐…….

생일파티는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바람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전철역으로 향했다.

열한 시가 가까워 오는 시각, 전철칸은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인다. 그녀는 무심코 세 칸 좌석 다 비어있는 노약자우대석으로 가 앉았다. 맞은편의 노약자 우대석엔 삼십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쥐색 등산복 차림을 한 남자가 앉아있다. 큰 키에 약간 마른형의 남자는 무슨 옷을 걸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체격이다. 쌍꺼풀이 진 서글서글한 눈. 눈 밑의 도톰한 살집. 길고 부드러운 콧망울과 입술선. 가름하면서도 귀염성 있는 얼굴이 시트콤 드라마에 나오는 모 탤런트를 닮은 듯했다. 남자는 큰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한 번 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다. 몸집으로 보니 남자는 산을 무척 잘 탈 것 같다. 정감 있고 선해 보이는 눈매. 산을 좋아하면 다리와 팔의 힘도 좋겠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남자를 뜯어보고 있었다. 전철이 멈추자 남자가 눈을 번쩍 뜬다. 남자는 어린아이 같은 무심한 시선으로 그녀를 본다. 저 눈빛. 이십대 때의 그녀가 자주 마주치던 눈빛이었다. 남자들의 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져 내리곤 했다. 이글거리는 눈빛도 있었고 무관심을 가장한 무심한 눈빛도 있었다. 첫사랑 현수도, 무심을 가장한 저 눈빛으로 그녀를 공략했다. 갑자기 가슴 한 권을 간질이며 어떤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맞은 편 남자의 무심한 듯 집요한 눈빛에 무안해진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백을 뒤져 책을 찾는다. 파이가 잔뜩 담긴 제과점 봉지에서 바스락 소리가 요란하다. 빵봉지를 가방

밖으로 꺼내고서야 책을 꺼낼 수 있었다. 이왕이면 지적이고 우아한 여자라고 보이고 싶다. 그녀는 예쁜 무릎선이 살짝 보이도록 스커트 자락을 정돈했다. 그리고곤 비스듬히 종아리를 모으고 시선을 책에 맞춘다. 넌 매력 많은 여자야, 지난 날 그녀 곁을 스치던 남자들은 들러주곤 했다. 그녀는 곧 불혹의 나이가 되지만, 아직도 남자 몇 명쯤은 사로잡을 만큼 충분히 매력 있다, 고 자부하고 있었다.

다시 전철이 멈추고 몇몇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에도 남자의 눈빛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녀는 까닭모를 설렘으로 온 몸이 긴장되어 갔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배우처럼, 그녀는 남자의 눈빛 앞에서 한없이 부풀어 오른다. 가슴이, 가슴이. 순간 그녀는 왼편 가슴께로 예리한 통증이 지나가는 것을 느껴야 했다. 어머니 집에서 답답한 나머지 왼편 브래지어의 캡을 빼어 백에 넣은 것이 생각난 것이다. 흑시라도 왼편 가슴께가 푹 꺼지지 않는었을까,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더욱 자세를 고추 세우며 도도한 가슴선을 만들던 그녀였다. 오랜만에 남자 앞에서 의식되는 부재의, 가슴. 그녀는, 눈은 다소곳이 책으로 고정된 채 어깨를 웅크리며 가슴께를 오므린다. 이제 남자는 더욱 집요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듯하다. 그녀는 몇 분 내내 읽은 문장만 다시 읽고 있다. 온통 남자의 시선에만 신경 쓰이는 자신이 못마땅한 그녀는 책의 여백에다 문장 몇 줄을 옮겨 적는다. ‘불혹. 가슴에 붙은 불, 흑 꺼버린다.’ 시구 한 구절을 적는데 그녀 안에서 울컥, 토해지는 외침이 있다. 운명이라면, 남자의 저 눈빛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큰 숨을 들이쉬며, 거침없이 저 눈빛을 받으리라 다짐하고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다. 순간, 기다렸다는 듯 남자의 두 손이 간구하듯 앞으로 쭉 뻗는다. 아, 나보고 안기라는 뜻이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지. 눈이 동그해진 그녀는 온 몸의 힘이 짹 빠진 채 멀뚱히 남자를 보고 있다. 남자는 이내 한 손을 쭉 뻗어 그녀 옆자리에 놓인 것을 가리킨다. 그녀가 그것을 들어보이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아, 이런……. 그녀의 얼굴이 달아오른다. 무안해진 가슴에선 비실비실 헛웃음이 새어나온다. 남자의 집요한 시선은 내내 뺨봉지에 머물고 있다. 호흡을 고른 그녀는 애플파이 한 개를 꺼내고는 한 걸음 다가가 남자

에게 건넸다. 그 짧은 순간, 전철 안의 모든 눈동자가 그녀에게 향하는 것만 같다. 남자는 두 손으로 파이를 넓죽 받아 덩석 베어 물더니 이내 세 칸 좌석에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운 채 웃어젖힌다. 터져 나오는 행복감을 못 참겠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다.

그녀는 마침내 컷볼까지 별걸게 달아올랐다. 어떤 상처 이길래, 얼마나 영혼이 힘들었기에, 저 이는 정신을 놓아버렸을까. 연민을 넘어, 문득 그녀는 친근한 감정이 일었다. 이내 그녀도 태연히 애플파이를 꺼내 남자와 마주보며 맛있게 씹었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지도 모르는 남자……. 그녀는 천진무구한 그 눈빛에 잠시 설렌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심정이 되었다. 좌석 등받이에 누긋이 등을 기대고 앉은 남자는 파이를 한 입 먹고 그녀를 한번 보고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무심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이다. 이제 남자는 그녀를 뚫어지도록 바라보고 있다. 고요와 평온이 담긴 눈빛! 그녀가 파이 한 개를 더 권하자 남자는 한 입 먹다말고 또다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어찌지 못하고 있다. 그녀도 긴 좌석에 별러덩 누워 맘껏 웃어젖히고 싶어진다. 전철간이 떠나가도록. 전철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쳐다본다. 아랑곳 않고, 그녀는 조용히 그와 마주 웃으며 애플파이를 마저 먹었다. 이윽고 그녀가 내릴 역이 되자 그녀는 빵봉지의 파이들을 모두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오늘 밤 푹 잘 것이다.

남자의 그 눈빛은 브람스의 ‘자장가’ 를 닮았다.

여름

진수지

아이를 달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 울기 시작하면 터져버린 비닐봉투 마냥 잡아 묶어도 모양새는 좋지 않고 흘러나간 것을 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여름 소나무 아래 매미와 꼭 같은 소리로 앵앵거리는 어린아이를 어찌지도 못하고 있는 사내는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얘야. 엄마 어디 있는데 여기 혼자 서있어.”

발을 끄는 버릇이 있는지 뒤축이 닳아버린 어린애의 핑크색 슬리퍼가 뽁뽁거렸습니다. 대답하기 싫다는 표시겠지 싶어 사내는 대화를 포기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으앙!”

조용히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그만 슬리퍼가 뽁뽁거리며 소리를 내도록 발을 동동거리며, 아이는 여름햇살 아래 달구어진 홍시 마냥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었습니다.

“거 거기 애 좀 조용히 시켜요. 시끄러워서 원.”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자 이제는 다른 동네사람들도 아이가 우는 책임이 사내에게 있다는 듯 눈치를 줍니다. 사내는 화가 납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슬쩍 결눈질로 보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사내는 자리를 피하려고 달려갑니다. 뽁뽁대는 슬리퍼 소리가 쫓아옵니다. 살살 걸어가던 사내는 걸음을 빨리하다 슈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유. 이제 못 쫓아오겠지. 아주머니 거기 시원한 사이다 하나 주세요.”

꿀꺽꿀꺽 목을 축이던 사내는 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고 잔돈을 받았습니다.

“자 오천 원. 천 원짜리 세장. 오백 원 짜리 하나. 저기 꼬맹이가 먹은 아이스크림 값까지 천오백 원.”

사내는 그제야 ‘담배’ 간판 밑에 하드를 쪽쪽 빨고 있는 어린애를 봅니다. 어지간히 울었는지 때 국물이 온 얼굴에 얼룩덜룩합니다.

“근데 애 좀 씻겨야지. 요새 세상에 저리 지저분한 애가 어디 있어. 아빠가 키우면 더 신경 써야 하는 법이야.”

아는 척을 하는 슈퍼 아줌마에게 사내는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사내는 아이를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다리도 짧은 게 달리기도 잘하는지 저어기 동네 공터에서 여기까지 꽤 먼 거리를 쫓아왔으니 뛰어봤자 숨만 잡니다. 또 뛰어봐야 땀만 나지요. 사내는 공주가 그려진 장난감을 하나 들고 아주머니에게 천 원짜리 하나를 건넵니다. 이제 달래볼 생각인가 봅니다. 문을 밀고 나가니 아이는 아이스

크림 냉장고 옆으로 살짝 비켜납니다. 사내는 말없이 산 것을 내밉니다. 아이는 망설이다 그 반짝이고 핑크빛 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가자.”

아이는 내민 손을 잡고 사내와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참 걸음이 느려서 사내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한 아이가 사내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사내는 무시하고 계속 아이를 끌고 갑니다. 아이가 손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사내는 갑자기 화가 치미는 것을 느낍니다.

“뭐. 업어줘?”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리 울었으니 기운이 없을 법도 하지요. 사내는 참을 인자 세 개를 그리며 아이에게 등을 내밉니다.

“너 어디 가서 내가 아빠라고 하면 안돼. 그럼 나 혼사길 막혀.”

다짐하듯 혼잣말을 건네는 사내는 아직 총각인가 봅니다. 등 뒤에서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사내는 어쩐지 아이가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이가 깽깽 공원을 서성이는 사이 너울너울 노을이 집니다. 아이는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석양무렵 외 1편

허광웅

그런 곳에서 고향 여자를 만나리라고는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었다. 그런 곳이란 그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찾아가는 허름한 여관을 말한다. 그곳에는 낮에 잠깐 들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 여관주인은 주로 생활이 궁색한 과부나 가윗돈이 필요한 가정주부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불러주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여관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곳에서는 3만원이면 여자를 살 수가 있었다. 3만원이란 돈은 그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여자의 정조 값치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가 그곳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고부터다.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자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몸을 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깝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징그러운 짐승 대하듯 했다. 그는 상처 후 혼자 살고 있는 회사의 한 동료로부터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여관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 여자를 만나던 그날도 그랬다. 그는 늘 상대하던 4,50대 과부들에게는 식상한 터라 여관주인에게 한물 간 과부 말고, 좀 젊고 색다른 여자를 불러달라고 특별히 청을 넣었다. 여관주인은 그런 여자는 만원이 더 비싸다고 했지만, 그는 비싸도 괜찮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 비스듬히 누워 한참을 기다리는데 노크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때까지 상대하던 여자들 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였다. 살찌지 않은 몸피에 얼굴도 곱살했다. 가까운 마트에 갈 때나 입을 것 같은 편안한 옷차림이었는데 실제로 여자 손에는 한 대형 마트의 상호가 찍힌 쇼핑백이 들려있었다. 여자는 그를 보는 순간 흠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 같다는 표정이었다. 그로서는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

“왜, 어디서 본 사람 같소? 나는 댁을 처음 보는데…….”

그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여자가 혹시 마음이 흔들려 그냥 나갈까 봐, 그는 서둘러 옷을 벗었다. 여자는 뭔가 미심쩍다는 표정인 채 마지못해 느릿느릿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팬티차림으로 옷을 벗는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뿌리가 뜨뜻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빨리 반응이 오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막 브래지어를 벗으려던 여자가 뭔가 생각이 났는지 씩곳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 혹시 J읍에 안 사셨어요?”

여자의 얼굴에는 무언가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번에는 그가 뜨악해졌다.

“고향이 J읍이요?”

“그때, 혹시 버스 운전 안 했어요?”

“댁이 어떻게 나를 아요?”

그는 속으로 재빨리 여자의 나이를 가늠해봤다. 그가 J읍에서 버스를 운전할 무렵이면 여자 나이는 열대여섯 정도였을 것이다. 이웃에서 살았나, 혹시 친구의 여동생인가, 아님 내가 아는 사람의 딸인가? 그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하는 낭패감마저 들었다. 그가 그렇게 해매고 있는 사이에 여자는 어느 새 얼굴에서 경계심을 싹 걷어내고 장난기가 넘치는 눈웃음을 가득 피우고 있었다. 여자가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아저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매일 타고 다녔거든요.”

여자는 J읍에서 꽤 떨어진 산골 면소재지에서 읍내 고등학교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다고 했다. 2년 내내 그가 모는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3학년이 되면서 읍내로 나와 자취를 했다고 묻지도 않는 말도 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다. 그는 안도했다.

그 무렵이면 그가 33살 때쯤이고 아내와도 행복했을 때다. 그 여자 역시 꿈 많은 여고생일 때다. 차도 귀하고 운전사도 대접 받던 시절이었다. 그가 모는 버스가 차라고는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하기 짝이 없는 시골길을 야생마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질주하던 때다. 예쁘고 상냥한 아내에다 귀엽고 예쁜 딸, 넘치는 젊음과 건강에다 꼬박꼬박 월급도 잘 나오겠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던 때였다.

“팔자가 박복하다보니 별 희한한 인연도 다 있네. 이 넓은 서울바닥에서……. 그나저나 아저씨도 많이 늙으셨네요. 그 땐 참 멋있었는데. 훗훗, 내가 짝사랑도 했는데…….”

여자가 한참을 키득거리더니 우울한 표정으로 팔자타령을 했다. 박복한 팔자 때문인지 여자의 얼굴에는 기미가 잔뜩 끼여 있었고, 브래지어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아저씨, 돈 있으면 맥주나 한 잔 사주세요. 맨 정신으로는 좀 그러네요.”

그는 사타구니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부풀어 오르던 뿌리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었다. 그도 입안이 말라오던 참이라 맥주 두 병을 시켰다. 잊고 살아온 고향이 생각났다. 그로서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향이었다.

J읍은 그가 태어나 자랐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지금은 형편없이 침체된 곳이지만 집집마다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 J읍은 근처에 있는 탄광들로 해서 흥청댔다. 한창 때는 강아지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소문이 났던 곳이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가 낙산사고로 죽자 그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는 걸로 학업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는 자전거포에서 일을 했다. 시골바닥에서 그 나이에 취직이라고 할 만한 곳은 그곳 말고는 없었다.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라니,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담배와 술을 배웠고, 저녁에는 당구장 일을 거들며 빈둥거렸다. 느는 것은 술과 담배, 그리고 당구 실력뿐이었다. 차라리 군 입대는 하나의 구원이었다. 운 좋게 수송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 군에서 배운 운전기술을 밀천 삼아 덤프차 운전사로 서른이

다 될 때까지 여기저기 공사판을 떠돌았다.

그렇게 떠돌다가 아내를 만났다. 아내 역시 시골다방을 떠돌 때였다. 아내는 상냥했고, 긴 속눈썹으로 눈웃음을 잘 쳤다. 두 사람은 눈이 맞아 곧바로 동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 다 부초 같은 유랑생활에 지쳐있을 때였다. 공사판을 따라 집시처럼 떠도는 신혼생활이었지만 꿈같이 달콤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딸이 태어나자 그는 객지생활을 접고 고향인 J읍으로 돌아가, 읍에 다 차부를 두고 면소재지를 오가는 버스기사로 일을 했다. 고향에서의 생활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다.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치여 죽이는 사고를 냈고,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다 나왔다. 그가 교도소에 가있는 사이 아내가 누군가와 바람이 났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 그런 의혹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고향을 떠났다. 서울에 올라 와 얻은 직업 역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다.

“아저씨,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설마 아직도 운전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맥주로 취기가 오른 여자의 얼굴에는 기미가 더 뚜렷했다. 여자가 걸치고 있던 브래지어를 풀었다. 박복하다더니 여자는 젓가슴도 빈약했다. 목과 젓가슴이 술기운 탓인지 온통 불그스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파란 정맥 한 가닥이 희미하게 흐르다가 사라진 가슴골 양쪽으로 새까만 유두가 빈약한 젓가슴에 매달려 있었다. 여자는 뒤이어 팬티를 벗으려고 했다. 그는 여자를 제지했다. 그날, 그는 여자를 안지 않았다. 안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었다. 풍선의 바람처럼 빠져나간 욕망은 다시 돌아와 주지 않았다. 욕망이 돌아오기를 굳이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만원을 더 보태어 5만원을 주고 그냥 나왔다.

알람시계가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다급하게 울었다. 그는 여자의 발가벗은 몸 위에서 격렬하게 엉덩이를 들썩거리던 중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빨리 끝내려고 허둥댔다. 시계가 놀란 오리새끼처럼 짹짹거리며 사정을 재촉했지만 끝내 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쳐 시계의 목을 거칠게 비틀었다. 잠이 깨자 여자는 사라졌고, 어떻게 생긴 여자

인지 도통 기억나지 않았다. 여인숙에서 만났던 그 여자 같기도 했고, 생판 처음 보는 여자 같기도 했다.

시계는 잠들기 전에 맞추어 놓은 새벽 3시에 정확하게 그를 깨웠다. 시계에서 흘러나오는 액정글자판의 미미한 불빛을 제외하면 방안은 깜깜한 어둠이었다.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죽어서 땅 속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사실 누워있는 곳이 반지하방이니 땅 속에 누워있는 셈이다. 어제 저녁에 마신 술기운 탓인지 머릿속은 연무가 낀 듯 맑지 않았다.

그는 아쉽게도 결말을 보지 못한 정사를 더듬다가 설핏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대책 없이 잠 귀신에 끌려 들어가 비몽사몽 가물대던 그는 언뜻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위치를 켰다. 방안에 가득 고여 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눈꺼풀에 붙어있던 잠 귀신도 놀라 달아났다. 대신 녹내장을 앓고 있는 눈이 시리도록 부셔왔고 가벼운 어지럼증마저 느껴졌다. 그는 늘 깊이 잠들지 못했고, 꿈자리 또한 어수선했다. 어지럼증은 뱃멀미 같았다. 방금 환각과도 같은 꿈의 바다를 어지럽게 항해하다 막 육지로 올라온 셈이니 뱃멀미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빛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다.

지금 집에는 그 혼자뿐 아무도 없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 딸은 집을 나가 산지 오래 되었다. 강남 어디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딸은 서른이 넘었는데도 시집갈 생각은 않고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 딸은 마지못해 두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디밀고는 곧장 일어났다.

그의 아내는 한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는 지금 쯤 환자의 침대 곁을 지키거나, 자고 있을 것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아내는 한 중풍환자의 간병을 맡고부터는 일을 핑계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벌써 반 년이 넘었다. 언젠가 아내를 만나러 찾아간 병원에서 설핏 본 환자는 중풍에다 70살 가까운 나이라 했지만 피동피동해 보였다. 비싼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돈 걱정 없는 팔자 좋은 영감 같았다.

아내는 그 영감태기의 간병을 맡은 후로 이혼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아내는 얼굴 맞대고 같이 사는 게 도무지 징글맞고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아내가 징글맞고, 버스기사 생활이 지긋지긋하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속내야 어떻든, 적어도 하나뿐인 딸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하지 않고 부부로 남아있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아내는 갈라설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J읍에서 살 때도 그랬지만, 아내가 애당초 정숙한 현모양처가 아니라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40대 때, 아내가 보험 일을 할 적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뭔가 미심쩍은 냄새를 풍겼다. 그때도 아내는 징글맞고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를 겪었었다. 아내가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정황으로 봐서 틀림없이 그 영감과 무슨 일이 있지 싶었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은 꺼낼 수가 없었다. 더구나 다 늦은 나이에 이혼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팬티 바람으로 주방으로 나가 가스레인지 위에다 라면 끓일 물을 올려놓고 화장실로 갔다. 방광이 가득 찼는데도 소변은 쉬 나오지 않았다. 그는 뼈근한 통증을 느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전립선비대증 때문이었다. 소변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직업 탓이기도 했지만, 육십 살이 넘었으니 그런 병을 가질 나이이기도 했다. 더구나 젊은 날 공사판을 떠돌 때, 몇 번 성병을 앓았던 전력도 있고 해서 그의 비뇨기계통은 녹슨 배관처럼 엉망이 된지가 오래였다. 성능이 형편없이 저하되어 있는 그의 배수펌프는 한참 후에야 작동하기 시작했다. 오줌은 불품없이 위축되어 있는 꼭지를 통해 찝끔찝끔 떨어졌고 용무를 마쳤음에도 빠근한 잔뇨감으로 개운하질 않았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통증이 또 느껴졌다. 통증은 얼마 전부터 뜬금없이 찾아왔다가 또 그렇게 사라졌다. 그때마다 잠깐 신경이 쓰였지만 그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라면국물로 쓰린 속을 달랜 후 밖으로 나갔다. 바깥은 서늘했고, 아직 캄캄한 밤이었다. 그러나 4시 30분 첫차인 자신의 버스를 출발시키려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 골목에 세워둔 그의 자가용은 어둠 속에 암전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 높은 ‘프라이드’ 라는 차 이름과는 달리, 프라이드라고는 조금도 느낄

데가 없는, 10년을 훨씬 넘긴 고물차였다. 새벽 일찍 회사주차장까지 가려면 자가용 말고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고물차는 그에겐 마누라보다 딸보다 더 긴요한 동반자였다.

그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거리는 아직 선잠에 빠져있었다.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와 심야영업을 하는 택시들이 간간히 지나다닐 뿐 거리는 적막했고 도로는 한산했다. 출퇴근 시간대의 막막한 자동차 물결을 생각하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가속페달을 지그시 밟았다. 프라이드는 텅 빈 거리를 늙은 조랑말처럼 헐떡거리며 달려 나갔다.

“일찍 나오셨네요.”

당직근무 중이던 총무가 입이 찢어지라 하품을 하면서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먼저 출근부에 날인을 한 후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 뽑았다.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종이컵은 따뜻했고, 커피는 구수했다. 이제 커피가 들어갔으니 그의 몸 구석구석은 싸움터로 나갈 채비와 각오를 다질 것이다. 오랜 습관을 통해 그의 몸 각 기관들은 그렇게 길들어 있었다.

버스는 마구간에 매어놓은 늙은 말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처지라 버스도 노선도 후진 것만 배당되었다. 싱싱한 버스와 뭉 좋은 노선은 젊은 것들 차지였다. 그렇다고 내놓고 불평할 일은 아니었다. 계약직으로나마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할 처지였다.

그는 운행준비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느끼고 있던 잔노감을 처리했다. 그의 비뇨기계통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지 제법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는 다시 사무실에 들려 총무로부터 요금 박스를 배정 받아 버스로 향했다.

그는 그때부터 오후 2시까지 1회 운행에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노선을 여섯 번 돌아야 한다. 중간 중간에 짧은 휴식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코스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해야 한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뚫리면 뚫리는 대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 돌아야 한다. 장거리버스처럼 먼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는 길이 아니라,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되풀이 되풀이하는 지루하고

따분한 길이다. 그 길은 자신이 살아온 길처럼 재미없는 길이고, 희망 없는 길이고, 우회가 허용되지 않는 길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변속기어를 힘차게 넣고 천천히 발을 뗐다.

그가 네거리에서 좌회전 차량들의 꼬리를 물고 출발했을 때 신호등이 막 바뀌고 있었다. 그는 앞차를 뒤쫓아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보행자신호는 아직 적색이었으므로 그는 서둘렀다. 그 때 우회전해 오던 소나타 한대가 갑자기 버스 앞으로 달려들었으나 그는 보행자 신호를 보느라 미처 소나타를 보지 못했다. 그 순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소나타가 깎하는 비명을 지르며 급정거를 했고, 그가 몰던 버스도 소나타의 좌측 후미를 스치면서 급하게 정지했다. 막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이 놀라 물러났다가 소나타와 버스를 번갈아 노려보며 뭐라고 욕들을 하면서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버스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소나타는 뒤쪽이 움푹 찌그러들었고 미등이 깨져 길에 흩어져 있었다. 놀란 나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소나타의 운전자는 소심해 보이는 중년여자였다. 사실 소나타가 그냥 지나갔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으나, 소나타의 교통규칙준수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문제는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타고 있던 승객 한사람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의자모서리에 부딪쳐 다친 일이었다. 50대 남자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를 본 승객들이 놀라 술렁거렸다.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손수건을 꺼내 지혈을 시키고 있었다. 다행히도 네거리모퉁이 근처에 병원간판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연락처와 버스 번호를 메모해 주며 병원에 데려가도록 부탁했다. 네거리에는 벌써 차량들이 영키고 있었다. 근무 중이던 경찰이 달려와서 상황을 살피고는 스프레이로 두 차의 바퀴위치를 표시한 후 차를 빨리 빼라고 지시했고, 승객들 일부는 투덜대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휴대폰으로 회사에 다 사고내용과 병원위치를 보고한 후 사고 뒷수습을 부탁했다.

그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종점주차장으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이었다. 교대시간은 원래 오후 2시였지만 사고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그는 오후반 근무자인 김씨에게 버스를 인계한 후 늦은 점심

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갔다.

어깨가 빠근했고 사타구니는 묵직했으며 신경은 넘마처럼 녹초가 되어있었다. 좁은 운전석에 앉아 꼼짝없이 온 신경을 쏟아 부은 시간만 꼬박 7시간이었고 더구나 사고까지 쳤다. 접촉사고야 별것 아니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그게 문제였다.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교통사고라면 무조건 엄살을 떨며 한뭉텨 뜯어내려고 한다. 사고야 회사에서 일단 처리하겠지만 핸들을 계속 잡으려면 상당액은 변상해야 한다. 그로서는 일진이 사납기 짝이 없는 개떡 같은 날이었다.

그는 시장기에도 불구하고 늦은 점심을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수저를 놓았다. 뱃속에 뭔가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밥 대신 소주 한 병을 뱃속에다 부어 넣었다. 술이 들어가자 묵직한 기분이 좀 풀리는 듯 했고 가라앉았던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았다. 식당을 빠져나오자 지금부터 뭘 하지하는 막막한 기분이 그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평소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내의나 양말 따위 미뤄놓은 세탁물을 빨 시간이었으나 지금 같아서는 귀퀴한 지하방으로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큰 길을 따라 지하철역 쪽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는 늘 못해 먹을 직업이 시내버스운전기사라고 생각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막막하고 한심했다. 애초에 핸들을 잡은 것이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된 단초였고, 군대에 갔을 때 수송부대로 배치된 것이 화근이었다. 그때 운전을 배우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든, 적어도 평생을 핸들에 의지해 밥 먹고 사는 팔자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때부터 35년간을 줄곧 길 위를 떠돌며 살아온 셈이다.

그는 한참을 걸다가 중학교 때 가장 절친했던, 지금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 친구와는 가끔 만나 술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만난 지도 꽤 지났으니 지금쯤 시간을 좀 빼앗아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는 마침 자리에 있었다. 친구는 늘 그랬듯이 호탕한 목소리로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내가 먼저 전화를 한다하면서도 어영부영하다가 늘 네 전화를 먼저 받는다며 미안해했고, 저녁에 소주나 한

잔하지는 말을 먼저 꺼냈다. 친구는 퇴근 후 7시쯤 자기네 회사 근처에서 만나자며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보니 4시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다시 난감했다. 그는 3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궁리하다가 성인영화 여러 편을 번갈라 상영하는 전철역 근처에 있는 3류 극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시간을 속절없이 죽여야 할 때 가끔 찾아가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시들어가는 성욕을 자극해 보기도 하고 피곤을 달래며 즐기기도 하는 곳이었다.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 안은 킁킁했고 퀴퀴한 냄새도 여전했다.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스크린에서는 남자주인공이 여자와 막 정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드문드문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좌석 너머로 보였고, 영화 보다는 라이브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커플의 모습도 보였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영화보다 그들의 라이브가 더 자극적이었다. 그는 스프르 잠에 빠져들었다.

친구는 근처에서 소주 마시기 좋은 집은 이집 밖에 없다면서 전에 몇 번 같이 가본 적이 있는 곱창구이 집으로 그를 안내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 할 뻔했을 정도로 벌써 손님들로 흥청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어있는 구석자리 하나를 겨우 차지하고 앉았다.

“별일은 없지?”

“별일은 뭐……”

그는 친구와 잔을 부딪치고는 소주잔을 한 입에 털어 넣었다. 친구는 별일이 없지 않는 모양인데, 하면서 잔을 채워주었다. 그는 그 잔도 바로 비웠다.

“야, 좀 천천히 마셔라. 무슨 일인데?”

친구는 눈으로 대답을 재촉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난 후 그는 아내가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저간의 사정들을 퍽퍽 이야기했다.

“이유가 뭔데? 너 혹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징글맞고 지긋지긋하다나. 한마디로 별 볼일 없다는 거

겠지. 사실 별 볼일 없기도 하고…….”

“요즘 여자들은 다들 왜 그렇지. 황혼이혼이 무슨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으니 말이야.”

“아무래도 그 영감태기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영감태기라니?”

“간병하고 있는 그 늙은이 말이야. 아무도 없는 1인실에 밤낮으로 붙어 있는데 무슨 짓들을 하는지 누가 알아?”

“설마, 늙은 중풍 환자라며?”

“말이 중풍환자지 피동피동해 보이더라고. 게다가 돈도 많은 듯 하고…….”

이번에는 친구가 반쯤 남아있던 소주잔을 털어 넣고는 잔을 다시 채우더니 연거푸 마셨다.

“실은 나도 같은 처지야. 난감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아직은 어영부영 같이 살고는 있지만…….”

돌판 위에서 지글거리던 곱창이 사정을 끝낸 성기처럼 쪼그라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연신 담배를 피우며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실내는 시장바닥처럼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좌석마다 둘러앉아 제 각기 자신들이 처한 처지에 대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시시하며 때로 쓸쓸한 것인가에 대해, 더러는 지나간 옛사랑의 추억에 대해 우울한 목소리로, 혹은 성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도 술에 취해갔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주 끊겼고, 그 때마다 스산한 바람이 가슴 밑으로 지나갔다. 취한 시선 너머에서 세상은 온통 일렁이고 있었다.

“너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것은 없지?”

“이 판에 몸뚱어리라도 성해야지.”

“기회가 오면 이거라도 한번 써 봐. 진짜니까 도움이 될 거야.”

헤어질 때 친구는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던 파란 알약 두개를 건네며 사용법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얼마간 말없이 나란히 걷다가 길모퉁이에서 헤어졌다.

아내가 전화를 해온 것은 그가 마지막 운행횟수를 채우고 종점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아내는 종점근처 다방에서 기다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툇 끊었다. 아내는 그가 일을 끝내는 시간을 가늠하고 전화를 한 듯했다.

다방에는 아내 말고 다른 손님이 없었다. 아내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문을 열고 들어설 때 한 번 힐끗 쳐다보고는 그가 다가갈 때도, 앞자리에 앉을 때도, 눈도 맞추기 싫다는 노골적인 표정으로 시선을 줄곧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마시고 난 빈 커피 잔과 누런 봉투가 하나 놓여있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텔레비전을 보며 하품을 하고 있던 종업원이 냉큼 다가와 주문을 재촉했다. 그는 커피라고 짧게 말했다. 그가 커피를 채 다 마시기도 전에 아내가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면서 말했다.

“곧 병원엘 들어가 봐야하니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이거 이혼 서류예요.”

“.....”

“우리가 이미 물 건너 간 사이임은 당신도 잘 알 테니 이제 깨끗하게 도장을 찍읍시다.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도장만 찍어주면 서류접수는 내가 할 테니까.”

“꼭 이렇게 해야겠어. 왜, 그 영감태기가 같이 살재?”

그는 난감하고 무기력했으나 아내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아내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면 1주일 후에 찾으러 오겠다며 서류를 두고 웅하니 나가버렸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한참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참, 개떡 같은 인생이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개떡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세삼 난감하고 막막해졌다.

“이건 제약회사에서 나온 진짜니까 효과가 있을 거야,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가짜하고는 다를 거야.”

그는 며칠 전 친구에게서 얻어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던 파란 알약을 떠올렸다. 친구는 진짜임을 누차 강조했다. 정식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산 것이라고 했다. 일을 치르기 전, 적어도 30분 전에 먹어야 한다고 했다. 친구도 당뇨 때문에 그 약의 효과를 빌려야 마누라를 안을 수 있다며, 먹어보니 약효는 틀림없더라고 했다.

그는 그 여자를 찾아가 보리라 결심했다.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망서려온 터였다. 그는 그날 이후 근 두 달 만에 그 여관을 찾아갔다. 입구의 좁은 방에서 방문을 열어놓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주인 여자가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오랜만에 오셨네. 왜 그리 안 왔수? 단골집을 다른 데로 옮긴 줄 알았네.”

“전에 그 여자를 좀 불러주시오.”

“전에 그 여자라니, 누굴 말하나?”

“거 왜 좀 젊은 여자 있었잖소. 만원이 더 비싸다고 한 여자….”

“아, 종기엄마. 그 여편네 어디 다른 데서 뛰는지 여긴 그만 뛴는데. 그때 다녀가고 바로… 그 날 무슨 일이 있었수? 맥주도 같이 마시더니?”

“무슨 일이 있긴…….”

“그렇게 장승처럼 서있지만 말고 들어오시구려. 그 여자보다 더 젊은 여자를 불러줄 테니…….”

그는 혼란스러웠다. 여관에 오기 전에 친구의 당부를 상기하며 알약을 미리 먹은 상태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알약의 효과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자를 안아본지가 꽤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모르는 여자가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더분하고 마음씨 좋게 생긴 여자가 끝까지 애를 썼지만 결국 되지 않았다. 친구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그 약은 그의 욕망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여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다가 돈을 지불하자 미안한 얼굴로 변했다.

그는 여관 골목을 빠져 나왔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오른 쪽 엄지발가락이 다시 육신거렸다. 그는 길 잃은 사람처럼 얼마동안 망연히 서 있다가 이윽고 갈 곳을 찾았다는 듯 병원간판이 붙은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통풍(痛風)같은데요. 약주 좋아하시죠?”

진찰을 마친 의사는 술을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다.

“통풍에는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곱창 같은 기름진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요산이 쌓여 생기는 병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하는데 중풍과는 관계가 없으니 크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통풍? 도대체 그런 병도 있었나. 그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다.

그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셔왔다. 자신의 남루한 삶을 위로해 주는 것은 술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몹시 취한 날이면 고향 J읍에 있을 때 아내가 바람났던 생각이 떠올라 아내를 괴롭히기도 했다. 아내가 지긋지긋해 하는 것 중에는 아마 즐기차게 마셔대는 술과 의처증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사는 3일치 약을 지어주면서 정확한 검사결과는 3일 후에 나오니 다시 들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빠져 나오면서 괜히 병원에 들렀다고 생각했다.

바깥은 석양이었다. 길가에 서있는 은행나무 밑에 셋노란 잎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행인들은 떨어진 은행잎들을 무심히 밟고 지나다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막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집어 올렸다. 그는 그 은행잎을 보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은행나무 한그루를 떠올렸다. 고향 J읍에서 버스를 몰 무렵에 지나다니던 한 작은 마을 입구에 서있었던 나무였다. 수령이 몇 백 년은 되지 않은 그 거대한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온통 셋노란 잎으로 변해 혼절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멀리서 보면 한그루의 찬란한 황금나무였다. 바람에 흔들릴 때면 노란 잎사귀들은 작렬하는 것 같았다. 그때의 가을은 그 은행나무를 보는 것만으로 그지없이 아름답고 행복했다.

큰 건물의 유리창에 얼마간 노을이 반사되더니 곧 어둠이 내려 깔리기 시작했다. 도로를 짝 매운 채 꼬리를 물고 흘러가던 차량들이 하나 둘 전조등을 밝히고 있었다. 한참을 건다보니 길옆 골목 안쪽에 순댓국밥집이 보였다. 국밥집을 보자 그는 시장기를 느꼈다. 그는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국밥집에는 것처럼 사는 게 고단해 보이는 중늙은이 두 사람이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힐끔 시선을 던졌다. 주인여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눈짓으로 주문을 청했다. 그는 국밥과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이 개떡 같은 세상에 술을 마시지 말라니…….

그가 국밥집을 나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어느 수채화 전시장 풍경

인사동에 있는 한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집에서나 입을, 헐렁하고 어두운 색깔의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베레모를 쓴 남자 한사람. 남자는 방명록에다 뭘 쓰고 있었다. 쓰기를 마친 남자는 여자와 웃으면서 무슨 말을 나누었다.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얼른 보아 남자도 화가인듯 싶었다.

그 여자가 전시회를 열고 있는 화가라는 것을 쉽게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결코 잘 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좀 뚱뚱해 보이는 몸매를 헐렁한 원피스에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한산한 전시장을 찾아준 내가 몹시 반가운 눈치였다.

전시장은 그리 넓지 않았고 전시된 그림 또한 한 30여 점 될까 싶었다. 풍경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로 꽃을 그린 20호 내외의 수채화들이었다. 나는 천천히, 가능한 천천히, 아주 진지한 태도로 그림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는 것이 새로운 미를 창조해낸 화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그림이 아닌가.

수채화들은 투명하고 순연했다. 그러나 그림 제목은 온통 사랑타령이어서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사랑>, <사랑의 환희>, <사랑의 슬픔>, <도도한 사랑>, <마지막 사랑> 등등…… 꽃을 사랑으로

형상화 했는지, 사랑을 꽃으로 형상화 했는지. 녀석이 말했던 그림이 <첫사랑>이었던가?

출입구 한쪽 테이블 위에 도록(圖錄)과 팸플릿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도록을 집어 들면서 말했다.

“그림들이 참 좋군요. 혹시 그림을 살 수 있는지요?”

“마음에 드시는 그림이라도 있어요?”

그녀가 배시시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웃음이 맑고 선해 보였다.

“저 <첫사랑>이 저에겐 좋아 보이는군요. 사실 그림에는 문외한입니다만…….”

며칠 후, 나는 전시장을 다시 찾았다. 전시장은 여전히 한산했다. 혼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녀가 조용히 반색을 했다. 내가 전시장을 다시 둘러보는 동안 그녀는 너덧 발치 떨어진 거리에서 애매하게 서성거렸다. 나는 <첫사랑> 앞에 오래 서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란 그림 앞에서도 오래 서있었다.

“저 두 그림을 사고 싶습니다. 값이 얼마든…….”

내가 전시장 가운데에 놓여있는 탁자에 앉자 그녀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랐다. 커피를 따르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에 처음 나온 서툰 장사꾼처럼 난감해 하는 표정으로 그림 값을 이야기했다. 나는 내 명함과 선금금으로 100만 원 권 수표 한 장을 건넸다. 그림은 전시회가 끝나는 날, 나머지 돈을 치루고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친구 녀석이 사랑했던 여자다. 그녀는 내 친구와 대학4년 내내 열렬히 사랑했던 사이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내 친구 녀석이 먼저 배신하고 부자집 딸과 결혼했다. 그 녀석은 지금도 처가 덕에 여전히 잘나가고 있지만 내내 첫사랑을 못 잊어하는 나쁜 놈이다.

녀석과 나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녀석이 며칠 전 술이나 한잔 하자며 불러내더니 그녀의 전시회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동안 술자리에서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었다. 남자나 여자나 늙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녀석은 도록 하

나를 꺼내더니 자기 대신 그림 한 점을 사달라는 부탁을 했다. 바로 그 <첫사랑>이라는 그림이었다. 값은 달라는 대로 주고 사 달랐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시회에 간 것은 순전이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다.

1년 전,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뭐해? 창밖을 좀 쳐다봐요, 가을하늘이 너무 좋아요.”

수화기를 들자 그녀의 소녀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전화는 늘 나를 소년처럼 행복하게 만들었다.

“뭐하긴, 그대에게 보낼 메일을 쓰고 있었지.”

“정말이지? 기분 너무 좋다. 뭐라고 쓰고 있었어? 궁금하다.”

“궁금해? 그럼 좀 있다 열어 봐.”

나는 늘 네가 그림다.

너를 알기 전의 내 모든 시간들은 무의미했다.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의미가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다.

그림다, 보고 싶다, 입 맞추고, 안고 싶다.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사랑, 나의 연인아!

그날, 나는 구입한 두 그림 중 <첫사랑>은 친구에게 갖다 주었지만, <마지막 사랑>은 내가 가졌다.

학생문단 | 수필

노정숙

정애령

최경호

한성희

隨筆

모든 죽음에는 타당성이 있다

노정숙

무슨 죄에 해당할까.

내가 죽인 많은 것들 - 10년 넘게 눈 맞추던 천리향, 오종종한 하얀 꽃이 내뿜는 향은 어찌나 여문지 온 집안을 코티 분내로 감쌌다. 한란과 풍란도 몇 해는 기품스런 꽃대를 밀어 올렸다. 키 큰 선인장 상제각은 게으른 내게 딱 맞는다며 예뻐했는데 어느 날 보니 열없이 물러 내렸다. 그리고 보니 오랫동안 눈길 주고 말 걸던 그들의 부재를 가책 없이 지나쳤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눈이 몹시 붓고 검붉은 멍이 들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다. 통증은 서서히 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회복되겠지만 갑자기 쓰러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 남을 것 같다. 내 몸이 자신의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미셸 투르니에는 병원에서 심장비대의 판명을 받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했다. ‘내게 암으로 인한 더러운 죽음이 아닌 심장으로 인한 깨끗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지’ 삼빱하게도 말한다.

암은 일찍 발견하면 완쾌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성공한 수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 것 같다. 더디게 맞는 죽음이 그가 말하는 더러운 죽음이란 말인가.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아주 느리게 죽음과 손잡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할아버지와 겹쳐져서인지 종종 아들을 남편으로 알았다. 오래 전의 기억은 생생한데 가까운 때의 기억은 망각 속에 있다. 그로 인해 천진天真과 노회老獪의 시간을 넘나들며 난감했던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내내 그런 건 아니었다. 가끔 반짝하고 정신이 들 때면 고맙다며 겸연쩍은 모습을 보여 우리를 더 잔하게 했다. 할머니는 정신을 놓은 채 10년 넘게 기대어 살다가 98세에 겨우 떠났다.

힘들게 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애통해 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이별을 했지만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다. 할머니의 더딘 죽음을 더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심장 질환은 대부분 한 순간에 떠난다. 단번에 완결할 수 있도록 죽음이 한 발짝 앞에 늘 잠복해 있다. 그야말로 단숨에 떠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죽음도 아무런 징후나 예고 없이 삼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혈압약에 빈혈약까지 열심히 챙겨먹는 것을 보면 내게도 어떤 공포가 있기는 한 게다. 오래 전부터, 부르시면 언제든 ‘네’ 하고 가겠다면 말은 객쩍게 부린 혈기였나 보다.

어떤 이별에도 넉넉한 시간이란 없다. 죽음 앞엔 오직 황망함과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지난번 어머니와 병원순례를 할 때, 침침한 눈은 더 이상 안경이나 수술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하고, 부쩍 심해진 요실금 현상은 수술을 할 나이가 넘었다며 별다른 처치를 해주지 않는다. 발목의 관절염은 약보다 운동을 하라고 권했다. 마음 상해하는 어머니를 보며, 적극적인 처방을 받지 못한 것이 내 탓인 양 면구스러웠다.

80년을 넘게 부린 몸이 어찌 빼격거리지 않겠는가. 헐거워진 뼈마디 마디와 힘을 잃은 근육을 어르고 달래며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한창인 마음은 속도를 잃은 몸에 보폭을 맞춰야 한다. 어머니의 마음 나이는 불혹에나 다다랐을까.

용납할 수 없는 무딘 몸과 아직도 꿈꾸는 마음의 엇박자에 최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 어머니는 요즘 퍼즐놀이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손과 뇌를 운동시키며 무뎠던 감각들을 불러오고 있다. 흩어진 그림을 모두 맞추고 난 뒤의 어머니 표정에서 언뜻 동심을 읽는다.

건강백서를 보면, 뇌가 튼튼하고 몸에 적당한 근육이 있으면 백세 이상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튼튼한 뇌의 조건은 쾌감을 느낄 줄 아는 긍정적인 생각과 플러스 발상이라는 걸 누가 모르는가.

때때로 고개 드는 날 선 감각들이 문제다. 내 따가운 눈총에 맞아 쓰러진 것들이 한둘이라. 몸과 마음에 불소통, 비호감, 몰이해 같은 부정의 시간이 많아지면 허락된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긍정도 부정도 성격이다. 내 성격의 뿌리를 살펴본다.

지천명도 넘었는데 소통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호감 안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 다리 건너 일어나는 사건들, 이해 못할 것도 없다. 늘 통 큰 척 말하는 게 함정이다. 돌아보니 경험 없이 뻔어낸 너그러운 처방들도 고백성사감이다.

‘언제 만나요’, ‘밥 한 번 먹읍시다’, ‘한 잔해요’ 상냥한 얼굴로 부도낸 말풍선은 얼마나 많은가. 풍선은 터지거나 바람이 빠지기 마련이다. 진실 없는, 아니 지키지 못한 말빛도 무거운 건 마찬가지다.

내가 유기하고 있는 베란다의 꽃 진 화분들이 이제사 눈에 들어온다. 어머니 장난감이라며 딸이 사온 열대어 블루베타, 그 우아한 자태에 감탄하며 얼마나 즐거워했던가. 그가 배를 뒤집고 물 위에 떠오른 것도 느닷없는 일이 아니 듯 죽음에는 타살성이 있다.

삶은 관계다. 숨 붙은 모든 것과의 지극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음은 삶에 끼어든다. 어머니의 무료한 시간을 헤아리니 자꾸 뒤통수가 당긴다. 언제쯤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심전력에서 벗어나 설렁설렁 보낸 만남들에 조문(弔文)을 바친다.

활주活柱

정애령

가끔 남간정사에 간다. 남간정사는 우암 선생이 말년에 강학하던 곳이다. 강학이란 단어가 맘에 든다. 비록 단어의 어감은 거칠게 느껴져도 가르치며 배운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부터 강학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강학의 비법이 활주 속에 숨어 있는 것만 같다.

남간정사에는 활주가 있다.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처마 끝에 세운 보조기둥이다. 활주 밑의 주춧돌은 독특하다. 높낮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나무로 집을 지었다. 그런데 돌이 귀한 곳에서 주춧돌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형에 따라 주춧돌의 높낮이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활주의 길이가 제각각인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건축이라고는 궁궐을 주로 많이 보아온 나에게는 길이가 서로 다른 활주와 높낮이가 다른 주춧돌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래서 들쭉날쭉한 활주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떠오르는 것일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조부모와 편부모,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아이들이 찾아온다.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로 발령 났을 때, 나는 별다른 편견 없이 아이들과 만났다. 열린 마음 하나면 아이들과 금방 친구

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이 짧았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수준은 제각각이었다. 연필 잡는 법이나 글씨 쓰는 방법이 서툴렀다. 글자를 몰라서 더듬더듬 읽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니 공부하고 싶어도 힘들었을 것이다. 내 눈에는 수업시간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중에는 까칠한 아이도 더러 있었다. 까칠했지만 똑똑했기 때문에 나는 몹시 안타까웠다.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대일 맞춤식 수업을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목표를 달성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겠다고 나는 약속했다. 벽에 스티커를 붙여서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점점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으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늘어나자 지역아동센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글자 한 자에도 정성을 다하고, 선후배까지 챙기기 시작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내 호주머니는 비어졌지만 마음은 행복으로 채워졌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내 활주의 길이는 똑같았다. 누구를 만나도 한결같이 대했기 때문이다.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똑같은 길이의 활주가 통하지 않았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길이의 활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득했다. 그렇지만 주춧돌의 높고 낮음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다. 활주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서툴렀다.

그래서 뒤늦게 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아이들의 타고난 성향에 맞추어 수업을 하고 싶었다. 장점은 키워주고 단점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적성 검사하는 방법도 배웠다. 요즘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가르치며 배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

남간정사의 활주를 떠올린다. 활주는 처마 끝에 서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보조기둥이다. 비록 보조기둥일지라도 누군가의 활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아이들은 나의 활주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아이들의 활주가 되고 있는 걸까.

희망의 언덕

최경호

2004년 6월 10일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임기를 마치면서 올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나 자신과 두 가지를 약속하였는데, 그 하나는 박경리님의 「토지」를 읽는 것이고, 또 하나는 2년 전 공무원직장협의 회장을 맡으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도(正道)를 걸겠다고 시작하였던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것이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 소설 「토지」를 광복절 날 읽기를 끝내면서 생명과 우리 민족과 민중을 생각하였다. 드디어 오늘은 또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날이다. 42.195km를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였던 4개월여 동안 완주 부담이 지배하였는데 오늘 드디어 두려움을 물리치는 날인 것이다.

춘천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전국에서 몰려 온 운동화 물결로 흥분의 도가니였고 운동장 입구는 마라톤용품 판매대와 각 동호회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어릴 적 운동회 같다. 출발 2시간 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와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왔다가 아내는 전화를 하였다. “아빠가 이번에 마라톤 뛰는데 너희들이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나의 말에 아이들은 시큰둥하였다.

아마도 녀석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아빠가 미웠던 것이리라. 아니 어쩌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미웠을 것이다. “아빠의 소원은 아빠가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라고 어느 날 소주 한 잔 거나하게 취해 이야기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2만여 명의 달리미들과 가족들까지 북적거리는 곳에서 나의 가족들은 나를 찾지 못했다.

출발 10분 전, 파이팅! 하는 나의 소리에 “무리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눈은 걱정 반이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사망자가 있었고 요즘 마라톤을 하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리라. 아니 어쩌면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6월초 신청접수를 하고 16119 배번호를 받으면서 119란 숫자가 째 째하였고, 기만적인 공무원노조특별법 결사반대 등판을 부착하고 달리는 데 걷는 나약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각오는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한 발 짝도 걷지 않겠다는 나와 의 약속은 처녀 출전하는 풀코스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를 전,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등반대회에 참여하여 중증 2급인 병철이를 업고 무리하게 삼성산을 올랐기 때문인지 발목이 시큰거렸고 온몸이 쭈셨다. 대회전에는 근육에 피로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리를 한 것이다. 어차피 내가 결정하고 행한 일이니 목표대로 완주에 최선을 다하자며 함성과 함께 출발선을 뛰쳐나갔다.

파이팅 하는 나의 모습을 핸드폰에 담은 아이들이 사랑스럽다. 이제부터 5시간은 철저히 나만의 시간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동안 하프 이상은 한번도 달린 적이 없어 오늘 주루 페이스 조절이 걱정되었다. 경험 달리미들은 인생에서처럼 마라톤에서도 유혹이 있으니 완주하기 위해서는

유혹 당하지 말라며 절대 오버페이스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운동장 한 바퀴도 달리지 못하였던 내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년 전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가겠노라고 생각하면서부터였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하던 공무원인 내가 공직에서의 행정내부 혁신과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되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그 길은 쉽지가 않았다.

3년여 전,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만들려고 하였던 후배들이 시장에게 충성스러운 과장급이상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발기인 대회가 무산되었던 것이 말해 주듯이 법으로 인정하는 직협 조차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이 어렵게 숨어서 설립한 직장협의회는 많은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나서기를 꺼려하는 공직 분위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들만 참여를 하였고 그동안 숨죽이며 할 말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터져 우리 임원들은 퇴근 후 모여서 앞으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임원들의 애쓰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비난을 하였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다.

2002년 10월, 2개 구청 개청과 함께 이루어진 대규모 인사에 불만이 있었던 자들은 “직협이 뭐하고 있느냐” 라는 비난을 하였고 열심히 활동하였던 임원들은 의기소침해졌다.

나는 힘들어하는 임원들에게 “사임하고 싶은 자들은 사임하라” 라고 하였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같이 활동했으면 하였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다. 혼자 남게 된 시공(時空)은 내가 이겨내기에 너무 힘들었다. 직협 청산의 배수진을 치고 같이 활동할 임원을 찾아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해 정부에서 제정 하려는 공무원조합법 반대를 위해 한양

대학교에서 있었던 집회에 홀로 참석을 하였고 그날 근화 발에 우리는 피를 흘리며 561명이 연행되었다. 나는 그날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알리고 조직을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였고 퇴근을 한 후 늦은 밤에 시화호를 달리며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며 울부짖었다. 그렇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공무원도 헌법에 의해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조합법을 만들려 하였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자라는 명칭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더 힘든 것은 친분이 있는 선배들이 “당신 이야기 들어 보면 빨갱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라며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반공교육의 효과(?)가 대단하다.

직협이 설립된 지 1년이 되던 2003년 6월, 904명이었던 조합원이 1년 사이에 1,23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우리는 진정한 노동자로서 다시 태어나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 부패를 척결하자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태양이 무섭게 내리 쬐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해 8월, 우리는 ‘깨끗한 공무원, 깨끗한 공직사회’ 라는 주제로 연인원 533여 명이 16일 동안 연가를 내어 땅끝 마을 해남에서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임진각까지 국토 548km를 종단하면서 지역과 공직사회에 신선함을 불어 넣었다.

이러한 상념을 깨운 것은 합성이었다. 저 앞 의암터널까지 이어진 형형색색 유니폼 달리미들의 와- 하는 합성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시원스럽게 펼쳐진 의암호 건너편에 질주하는 선두 그룹이 보였다. 저 마다 42.195km를 달리는 기쁨을 가슴 속에 간직하기를 거부하고 소리치는 합성 파도타기는 의암호가 요동치며 출렁이게 하였다.

쌀쌀할 것으로 예상했던 날씨는 따듯했다. 파란 하늘, 노란색으로 갈아입은 도로의 은행잎과 울긋불긋하게 물감을 뿌려 놓은 듯한 산의 단풍잎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가을 냄새가 향기롭다.

삼악산이 붉은 빛깔로 앞에 우뚝 서있다. 山色이 아름답다. 성어촌 앞 낮은 경사도는 부담이 없었다. 우리가 함성 파도를 일으켰던 의암 터널에서는 후미 그룹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함성과도 타기를 하고 있다. 저들도 우리 무리를 보면서 “어휴! 벌써 저기까지 갔네!” 하고 있을 것이다.

1km마다 설치한 거리 표지판은 페이스 조절에 도움을 주었다. 의암호 전경에 심취하였는지 달리다가 멈추어서 담배를 물고 호수에 젖어 있는 달리미는 언제까지 여유를 즐기려는 것일까. 하나, 둘 남편 구령에 맞추어 달리고 있는 부부 달리미들의 표정이 결연해 보인다.

10km 표지판이 보였다. 출발한지 1시간 1분, 일단 페이스 조절은 성공이다. 앞에 안산시마라톤클럽 이라는 등판이 보였다. 반가워서 “파이팅!” 하는데 다리를 절고 있는 달리미이다. “어라!” 저 앞에 달리는 주자들도 이상하다. 그들은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보조자가 안내를 하며 뛰고 있는 것이다. 가슴이 저미어왔다. 발이 뒤틀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저들은 얼마나 갑갑할까. 왜 달리는 것일까. 다리가 뒤틀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뿐, 저들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비장애인이자. 사지(四肢)가 멀쩡하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진짜 정신 장애자 아닌가.

“희망의 언덕”은 2001년, 7일 동안 사하라 사막을 달렸던 장애자 팀이다. 앞을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신체장애자들이 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여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한기와 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을 완주하는 인간 승리를 보면서 가슴이 찡하곤 하였다.

이를 전 삼성산에서 하늘을 쳐다보던 병철이 생각이 났다. 2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12살 이병철, 3급 장애의 불편한 몸으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최장원, 장원과 동급생인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늦깎이 영신, 그리고 나,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언덕이었다. 병철이가 내 등에 업혀서 몸부림을 칠 때 녀석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표현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 녀석은 정상에 올랐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채 내 등에 업혀 꽃씨가 담긴 풍선을 날리며 푸른 하늘을 보고 있었다.

꽃씨는 생명이고 생명은 희망이었다. 비록 1년에 한 번 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등반대회지만 오늘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하고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파이팅! 하는 내 목소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달리미가 놀라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다. 의암호 주변을 계속 헬기가 날아 다녔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년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내용의 ‘말아톤’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나 자신의 삶에서는 주역이지만 영화에서는 엑스트라인 셈이다.

어느 덧 20km를 지나쳤다. 2시간 1분, 하프기록이 2시간 이내 인 점을 감안하면 페이스가 조금 빠르지만 괜찮은 것 같다. 찰밥을 먹은 지 6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배꼽시계가 알렸다. 훈련팀장이 출발 전 나누어 준 파워젤을 장갑 속에 밀어 놓은 것을 잊고 있다. 앞에 찰떡 파이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그 자리에서 게 눈 감추듯 세 개를 먹어 치우고 물 두 컵을 벌컥 벌컥 들이키고서는 주저앉아 마구 먹어대는 달리미들을 뒤로 하고 내달렸다.

여러 차례 풀코스를 뛰었던 ‘바다와 갈매기’가 닉네임인 훈련팀장이 힘들게 발을 옮기고 있다. “파이팅!”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응답이 없다. 무척 괴로운 것 같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 속도로 가야 한다.’라고 했던가. 바셀린을 발랐는데도 피부 마찰로 사타구니가 쓰러왔다. 걷는 이들이 많아졌다.

현실 여건을 무시한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을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도로 위에 걸려있다. 어찌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정부도 각성하여야 한다. 헌법에 공무원은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

는 공무원이 무슨 근로자이냐며 인정을 하지 않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하여 2002년 마침내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옥죄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우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로 껌데기 공무원 노조법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 이러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만적인 공무원노동 조합 특별법 결사반대’ 라는 구호를 등에 부착하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저 앞에 춘천댐이 보였다. 약간의 경사도이지만 지친 후미 그룹에게는 버겁다. 신매마을 주민들의 열렬한 박수에 이어 춘천호 길목에서 응원하는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를 악물고 내달렸다.

시인 박노해는 내가 힘들 때마다 ‘너의 하늘을 보아’ 하며 나를 채찍질 하였다.

네가 자주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상념을 깨운 것은 가수 태진아의 동반자 노래였다. 페이스메이커가 댄 배낭 속에서는 트로트가 신나게 울렸다.

17년 동안 오직 혼불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영면(永眠)한 최명희 씨는 부부는 전생(前生), 금생(今生), 내생(來生), 삼생(三生)의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연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갈라놓고 있다. 아침 일찍 이곳에 온 동반자인 아내와 아이들이 고맙다.

이제 30km가 앞에 있고 힘이 들 때도 되었으니 흥겨운 음악을 들

으며 쫓아가자.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38km 지점까지 제 페이스를 유지하라고 하였는데 28km 지점부터 달려 35km까지 힘차게 뛰면서 이렇게 달리면 처녀 출전에 3시간대 선수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고 독약임을 알지 못했다. 근육 경련이 일고 손이 저려 왔다. 자원봉사를 하는 딸 같은 아이들이 “힘내세요, 완주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에 이를 악물며 수지침을 놓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양손을 내밀었다. 피가 휴지를 붉게 물들었다. 도로위에 누워 봉사자들에게 몸을 맡긴 달리기, 스트레칭 하는 달리기들, 종아리에 수지침을 맞아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달리고 있는 사람들……. 즐겨야 하는데 나를 비롯한 이들 모두는 서로 다르지만 뚜렷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 자신과의 싸움을, 나도 그렇지만 이들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릴 것이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나의 삶은 어디쯤 달리고 있을까?

동반자인 페이스메이커는 내가 수지침을 맞는 사이에 연기처럼 없어졌다. 군악대가 힘내라고 뿔뿔거리고 있어도 유혹을 먹은 다리는 물 먹인 숨이 되어 버렸다. 이제부터는 진정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힘들 때면 시화호를 달리며 옛날 힘들 때를 생각하고 이겨 나갔었다. 나는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주인공이었다. 심장병을 앓았던 바로 아래 여동생을 업고 심장재단을 찾아다녔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건축 일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이후 생계의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규모 작은 공장을 다니면서도 책을 놓지 못했고, 개발을 하려는 토지주가 대지(垆地)임대료를 턱없이 올려 20여 년 동안 살던 집이 철거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 했고, 24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영면하신 아버지와 안 해 본 일이 없이 고생하시는 어머니.

그래서 나는 시화호를 뛰었고 무릎 관절이 쭈시고 양쪽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도 산을 뛰어 올랐었다.

한 발짝도 건지 않겠다는 나하고 약속을 나는 지켜야 한다. 도로 위에 쓰러졌다가 다시 뛰고 있는 저들도 나와 같이 자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힘들면 저들도 힘들 것이다. 연세가 지극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숨차하면서도 달리고 계셨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을 외치며 나는 나의 길을 향했다.

시내로 들어서니 춘천시민들이 힘내라며 박수를 보내 주었다. 이곳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마라톤을 지역축제로 받아들이며 참가자들에게 진정 우려나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고 있는 것이다. 제1회 민족 언론상을 수상한 박해전 기자는 조선일보를 상업적이고 안보적이며 반민족지라고 하였다. 반민족지인 조선일보를 싫어하지만 춘천 마라톤 코스와 열렬하게 응원하는 춘천시민들 때문에 그 언론사가 주최하는 이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지부장 임기를 1개월 남겨 준 지난 5월, 전국 지부장들은 기만적인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광화문에 모였고 그날 60여 명이 경찰병력에 연행되었다. 생전 처음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나는 오래 전부터 읽고 싶었던 한권의 책을 펴 들었다.

‘전태일 평전’

한 목숨을 바치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던 열사의 말은 나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지난 해 전태일 열사의 추모제 날은 그해 들어서 가장 추웠다.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간 열사의 추모제는 항상 춥다고 하였다. 아직도 열사가 구천을 떠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숙연했었다. 나는 열사의 불꽃같은 숭고한 정신을 느끼며 더욱 마음을 강고히 하였었다.

그렇다. 나의 신체를 구속할 수는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정신까지 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달에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제정 반대를 위하여 공무원 역사상 초유의 파업이 있고, 참가자는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래서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열

굴에는 불안감이 끼여 있다.

2km가 이렇게 멀단 말인가. 차량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 잘 안 보이는데, 무슨 결사반대라는 등판을 붙인 선수, 힘내세요.” 그래 힘내자. 이곳까지 오면서 5km 마다 설치된 음수대에서 물과 스포츠 음료를 계속 마셨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았다. 땀도 이제는 흐르지 않았다. 결승점 운동장이 보이는데 속이 울렁거렸다. 가로수에 기대서 딸 같은 녀석들이 건네주는 원두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조금 나아졌다. 도로와 종합운동장 입구 양 옆으로 가족들이 도열하여 “힘내라 힘! 파이팅!” 을 외치고 있었다. 완주를 하였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지 결승점에는 가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달리미가 있다.

운동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가족부터 찾기 시작했다. 두리번거리는데 “은지 아빠” 하며 마치 울부짖는 목소리에 비로소, 아! 내가 해냈구나, 나와와 두 번째 약속도 지켰구나. 가슴이 벅차다. 사하라 사막의 희망의 언덕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만든다.’ ‘내가 살아있게 하는 희망’ 을 나와 내 가족과 춘천시민과 이곳을 찾은 수많은 달리미와 가족들에게 보여 주었다. 어쩌면 그들과 함께 달렸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이 열 걸음 보다 어깨 걸고 열 사람이 한 걸음 걷기를 희망하며 나는 달린 것이다.

두 다리야 애썼다. 그리고 고맙다. 다시는 풀코스를 뛰지 말라고 아내는 말했다. 아니 아내는 이번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그저 웃었다.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 내가 웃는 의미를,

신발

한성희

운동화가 없어졌다.

2년 넘게 헬스장 한 쪽 신발장에 올려놓았던 빨강색 줄무늬 운동화였다.

코팅된 운동화 끝이 좀 벗겨지긴 했지만 깔창에 공기가 들어가 걷기에 무척이나 편한 신발이었다. 처음엔 미처 신발 준비를 못한 초보자가 빌려 신었겠지 했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신발은 돌아와 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카운터에 운동화 이야기를 했더니 “혹시 메이커 신발이 아니었나요?” 하고 묻는다. 요즘 들어 부쩍 운동화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락카에 넣지 않고 신발장에 올려놓은 것은 책임질 수가 없단다.

그리고 보니 나는 운동화를 잘 잃어버렸다.

어릴 적에도 그랬다.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갈 때는 더 그랬다. 자주 잃어버리다 보니 새 운동화를 신고 가는 날에는 신발에 신경이 쓰여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다. 학교가 파하기 전부터 신발부터 챙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신발에 대한 조바심이 풀어질 쯤 복도 가장자리 내 번호에 놓여 있어야 할 운동화가 사라지고 없었다. 혹시 다른 자리에 잘못 놓아두었나 싶어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수업이 끝나고, 청소도 다하고 아이들은 하나, 둘 집

으로 돌아가는데 신발이 없는 나는 돌아 갈 수가 없다. 숫기가 없어 선생님께 말도 못하고 혹시 남은 신발이 있나 싶어 1학년부터 6학년 교실까지 신발장을 다 뒤지기 시작했다. 목조 건물에 한 학년이 2학 급씩 열두 개 교실이 나란히 붙어있는 복도는 초칠이 되어 반질반질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매끄럽다. 다른 날 같았으면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아이들에게 떠밀리지 않고 마음껏 미끄럼을 탔을 텐데.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다. 아무리 새 신발이더라도 발 사이즈가 맞아야 신을 수 있을 테니 내 또래의 3학년이나 4학년 중에 누군가 신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맨발인 나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1,2학년 것은 작아서 신을 수도 없다. 하지만 작은 신발장마저도 텅 비어있다. 5,6학년 교실은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날 때 까지 교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다. 그 교실에서도 남아 있는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집에 가야 하나. 요즘처럼 실내화라도 있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나무 바닥에 맨발로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새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무어라고 말해야 하나!

‘또 신발 잃어버렸나, 도대체 얼마나 덜 떨어졌기에 제 물건하나 못 챙기고 또 잃어버리고 오노?’ 하고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하늘이 캄캄해 진다. 발등의 천 조각이 닳아 찢어지고 발바닥 고무창이 뚫어져 물이 새기 시작하자 보따리 행상으로 어렵게 번 돈으로 사준 운동화였다. 엄마 볼 낫도 없다. 오늘도 수업 끝나기 전에 얼른 가서 챙길 걸…… 후회스럽기도 하다. 할 수만 있다면 신발 잃어버리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놓고도 싶다.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꿈에서 깨어나면 신발장에 운동화가 얌전하게 놓여 있을 것만 같다.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별 뵈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날 조회시간에 눈을 감게 한 후 운동화 가지고 간사람 조용히 손을 들라거나, 고무실로 찾아와 이실직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엄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미 신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땡땡! 마지막 수업 종소리가 울린다. 6학년 언니들마저 집으로 돌아간 복도는 행하니 정적만 감돈다.

남은 신발을 찾아 신발장을 다 뒤지고 있는데 퇴근 하시던 6학년

선생님과 마주쳤다.

“아직도 집에 안가고 뭐 하노?” 다그쳐 묻던 선생님은 두려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신발을 찾기 시작하였다.

복도의 신발장부터 교실 구석구석까지 다 뒤지다가 한 교실 쓰레기통에서 너털거리는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내셨다.

“할 수 없다. 이거라도 신고 가야지.”

선생님이 찾아주신 운동화를 받아 신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내내 엄마에게 야단맛을 두려움보다는 다 떨어진 신발이라도 신고 갈 수 있도록 같이 찾아주신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거렸다. 해가 저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사립문 밖을 서성이던 엄마는 다 해진 운동화를 질질 끌고 축 쳐져 돌아오는 내게 몽둥이쪼끔질 대신 혀를 꼴꼴 차며 “내그럴 줄 알았제.” 를 연신 내뱉으셨다.

신발이 없어 당장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아무렇게나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홀대했던 운동화가 더 생각나고 아쉽다. 편안하게 발을 감싸주던 폭신함도 느껴진다. 질 좋은 신발이 넘치는 요즘에도 신발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여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아프리카 아이들의 흙투성이 맨발도 떠오른다. 아직도 그 아이들에게 신발은 사치일 것이다.

신발 잃어버렸다고 지칭구들을 엄마도 안계시고, 신발 한 켤레가 그리 귀한 시절도 아닌데, 그날은 하루 종일 신발장과 락카를 뒤지고 헬스장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운동화를 살폈다.

잃어버린 신발보다도, 사람들이 다 떠난 마지막 시간 함께 신발장을 뒤져줄 누군가가 그리워서인지도 모르겠다.

학생문단 | 동화

김경훈
박민서

童
話

하늘 공전

김경훈

주지스님이 유치원 앞을 지나다가 병아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동자승은 주지스님이 사다준 병아리를 받고, 땡글땡글 감자 같은 얼굴에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 뒤로 병아리와 동자승은 절간 뜰에 있는 연못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둘은 신기하게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못가에서 병아리가 혼자 놀고 있는데 참새가 돌담으로 날아왔습니다.

“하늘에는 임금님이 산다? 참, 넌 모르겠구나. 날지도 못하는 바보!!!!”

참새가 놀리며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병아리는 연못에 날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했습니다. 그때 동자승이 병아리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벼리야? 벼리야?”

동자승은 절간 곳곳을 살폈습니다. 병아리는 바위 뒤에 꼭꼭 숨었습니다. 동자승은 지쳤는지 법당 계단에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담장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병아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동자승을 살폈습니다. 구렁이는 입맛을 다지며 눈을 부릅뜨고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동자승이 싸리비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 못된 뱀아, 벼리 곁에서 떨어지지 못해?”

“우서야? 우서야?”

병아리는 그제 서야 구렁이를 보았는지 애타게 불렀습니다. 구렁이는 놀라 달아나고, 동자승은 뛰어오다 싸리비를 마당에 휙 던졌습니다. 동자승은 병아리를 살포시 안았습니다.

“벼리야, 어디에 있었어?”

“혼자 있고 싶었어.”

병아리가 울먹였습니다. 동자승은 병아리를 헝가래 쳐주었습니다. 병아리는 공중으로 오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자승도 자신과 말이 통하는 병아리가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동자승과 병아리는 연못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병아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흰 구름 위에 하늘나라 임금님이 살고 있을까?”

“글쎄!!! 그건 왜?”

동자승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너도 몰라? 하긴 땅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임금님이 살고 있는지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

동자승이 입을 삐죽였습니다.

“참새가 있다고 말했어. 나도 언젠가는 하늘을 날거야. 꼭 날아가서 내 눈으로 확인할거야.”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동자승은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징검다리처럼 있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연못으로 왔습니다.

“우서야, 혼자 뭘 그리 중얼거리는 것이냐?”

“벼리하고 놀고 있어요.”

동자승은 손바닥에 있는 병아리를 보였습니다.

“우서가 그 동안 심심 했나 보구나. 병아리하고도 말을 다하고.”

“스님, 하늘에 궁전 있어요? 임금님 살아요?”

동자승의 말에 주지스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 보이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지. 그러나 눈감고 본다고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녀석도 참. 허허허.”

주지스님은 꺾꺾대며 동자승이 버린 싸리비를 주워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주지스님의 짧은 흰 머리에 파리가 몰래 앉았습니다. 병아리가 날개를 파닥이며 가리켰습니다.

“우서야, 저 할아버지 스님 머리 좀 봐.”

“하하하. 내가 싫어하는 검은콩을 쌀밥에 올려놓은 것 같다.”

동자승은 너스레에 웃었습니다.

“검은콩!”

“난 정말 싫어.”

동자승은 입을 빼죽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난 검은콩처럼 하늘을 날고 싫어.”

“벼리야!!!! 내가 스님에게 하늘나라 임금님에 대해 물어봤어.”

“정말! 뭐라 했어.”

병아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음…… 연못에 비취진 산도, 나무도, 구름도 다 진짜래. 히히히.”

“그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임금님은 정말 있다는데. 여기 연못에도 있네.”

“정말!!!! 그럼 하늘까지 날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살펴보면 되겠네.”

병아리는 연못에 있는 구름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거짓말!!!! 있긴 뭐가 있어.”

병아리가 투덜댔습니다.

“연못 속 저 숲에는 엄마 잃은 예쁜 아기 사슴이 살고 있다. 히히히.”

동자승은 병아리를 안았습니다. 동자승은 웃음보를 터뜨리며 법당으로 갔습니다. 병아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왜 저러고 웃고만 있어?”

“내가 법당 청소를 하면서 맨날 간지럽게 하거든.”

동자승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힘들 게 청소하고 있는데도, 앉아만 있잖아.”

“그럼, 부처님도 오줌 뉘?”

“연못에 있는 물이 모두 부처님이 몰래 오줌 누 거다.”

동자승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정말이야.”

“근데 날마다 저러고 있으면 다리 아프겠다.”

“아니. 법당 문을 닫아 놓으면 혼자 춤을 추고 놀아.”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 춤추는 것 봤어?”

“아니. 못 봤어.”

동자승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치, 엉터리.”

“정말 춤을 춘다니까.”

“우서는 거짓말쟁이.”

“아냐, 정말이야. 법당을 맨날 청소해도 먼지가 쌓인단 말이야. 그
건 다 부처님이 춤을 추며 놀기 때문이야.”

동자승은 법당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부처님이 춤을 추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뜯린 문구멍으로 안을 훑쳐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은 여전히 웃고만 있습니다. 해우소를 가던 주지스님이 동자승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우서야, 뭘 그리 보는 것이냐?”

“부처님이 춤을 추나 보고 있어요.”

동자승은 문구멍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뭘!!! 부처님이 춤을 춰?”

“네.”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아, 니가 훑쳐보고 있는데 너 같으면 춤을 추겠어?”

“몰래보고 있는데요.”

“부처님도 몰래 널 보고 있단다. 아주 오래 전부터.”

“정말요?????”

“허허허.”

주지스님은 너털웃음을 보이며 해우소로 갔습니다. 동자승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처님, 진짜로 저를 훑쳐보고 있었어요? 그럼, 밤마다 마루에서 오줌 눈 것도 다 봤겠네요.”

동자승은 칭얼대며 문을 광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춰 뒤 돌아 말했습니다.

“치사해요, 흥.”

“우서야, 너도 잠자지 말고 부처님이 연못에 오줌 누나 감시해.”

병아리가 속삭였습니다. 동자승은 밤마다 구멍 난 창호지 문으로 연못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법당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해우소를 갈 때도 안을 살핀 다음에 들어갑니다. 동자승은 똥을 누며 병아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벼리야, 밖에 나가서 망봐. 부처님이 훑쳐 볼 것만 같아.”

“부처님도 냄새나서 여긴 안 올 거야.”

“그런가!!! 참, 벼리야. 내일 스님 장에 가신데. 같이 가자.”

“와아아, 신난다.”

병아리는 좋아서 폴짝폴짝 뛰다가 퐁퐁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벼리야, 조심해. 여긴 냄새나니까 연못에 가서 기다려.”

“고마워, 우서야.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병아리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자승은 똥을 다 똥인지 바지를 올리고, 밖을 살폈습니다. 병아리는 하늘을 나는 참새의 모습을 따라하며 연못에 비취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멈춰했습니다. 길 다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아리는 숨을 멈추고 뒤를 살폈습니다. 구렁이가 무섭게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았습니다. 병아리는 벌벌 떨며 조금씩 뒷걸음쳤습니다.

“우서야? 우서야?”

병아리는 울먹이며 동자승을 불렀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도 날 수 있게 해 달라 빌었습니다.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오자 병아리는 연못에 있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병아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때가 없자 구름으로 뛰어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병아리는 허우적거리며 동자승을 불렀습니

다. 연못으로 천천히 걸어오던 동자승이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구렁이는 동자승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동자승이 연못에 닿았을 때에는 벌써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울먹이며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병아리와 동자승은 연못 밖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의 얘기를 들은 하늘나라 임금님은 마음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임금님은 구름으로 짠 옷을 병아리와 동자승에게 주었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은 구름옷을 입고 공중으로 동둥 떠올랐습니다. 병아리는 잠자리를 따라 다녔습니다.

“와아아, 신난다. 드디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

“벼리야, 그렇게 좋아.”

“어!”

“사실 나도 좋아. 히히히.”

동자승은 웃으며 법당 처마에 달린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우서야, 점점 법당에서 멀어진다.

“그러네. 부처님, 하늘에서 다 지켜 볼 거예요. 조심하세요. 흥.”

동자승이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쳤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은 하늘 높이 떠올라갔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을까?”

“임금님이 옷을 선물해 줬잖아.”

하늘나라에 닿자 정말로 궁전이 있었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은 임금님을 만나러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은 놀이동산으로 갔습니다. 구름으로 만든 바이킹도 타고, 청룡열차도 탔습니다. 구름썰매를 타고 궁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신나는 노래가 들렸습니다.

“우서야, 웬 노랫소리지?”

“글썸!!!!”

동자승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은 노래가 들려오는 곳으로 갔습니다. 뜰 들머리에는 ‘살이여, 안녕’ 이라고 써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 번 들어가 볼까.”

동자승은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온갖 새가 신나게 노래를 불

렸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 똥똥이들은 살을 빼기 위해 춤을 추었습니다. 임금님처럼 보이는 왕관 쓴 똥똥이가 보였습니다. 엉덩이를 실룩 실룩 뒤똥뒤똥 했습니다. 동자승과 눈이 마주치자 임금님은 한쪽 눈을 껌벅이며 웃었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꾸벅했습니다.

“임금님, 구름옷 감사해요.”

“우서야, 저기 좀 볼래?”

“어디!!!! 잘 안 보이는데.”

동자승은 까치발로 두리번거리다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은 왁자지껄 웃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지 못하는 것에게는 날개가 생기고, 말문이 막힌 이에게는 말이 트이는 하늘궁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궁전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장님도 없고, 팔다리가 없는 이에게는 짝이 돌아 다시 팔다리가 생겼습니다. 병아리와 동자승은 구름썰매를 타고 하늘궁전을 즐겁게 돌아다녔습니다.

하니와 두니

박민서

햄스터는 마트 전시장에서 곱게 단장을 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 햄스터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햄스터는 주인 있는 가정집에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경만 열심히 할뿐 햄스터를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마지막 한 마리 햄스터는 마트에 혼자 있자니 밤에는 무섭고 추웠어요. 친구가 있는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햄스터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나를 데려가면 주인한테 즐겁게 해줄 텐데’ 하고요. 그러나 하나 남은 햄스터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빈이는 며칠 전부터 엄마를 졸랐어요. 동물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는 경빈이가 말 잘 들으면 사줄게 하고 무심코 말을 해버렸어요. 경빈은 동물을 갖고 싶은 마음에 엄마 말씀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경빈의 마음을 읽었나 봐요.

엄마랑 마트 가는 날이 왔어요. 마트 3층에 애완동물 있는 곳으로 갔어요. 토끼도 있었고, 물고기, 가재, 거북이 여러 동물과 생물이 살고 있었어요. 경빈이 눈에 반짝하고 동물 한 마리가 보였어요. 경빈이

는 그 동물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엄마! 나 햄스터 사줘요.”

엄마는 햄스터가 한 마리만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경빈아! 한 마리는 외로워서 안돼요. 나중에 많이 있을 때 암컷과 수컷을 함께 사 줄게.”

“싫어요. 한 마리도 좋아요. 햄스터 사주세요.”

경빈이는 엄마가 마음이 바뀔까봐 불안해서 한 마리라도 사고 싶었어요.

경빈이 고집으로 엄마는 햄스터를 샀어요. 집도 사고, 바닥에 깔아 줄 톱밥을 사고, 운동할 수 있는 쳇바퀴도 샀어요. 햄스터가 필요한 살림들은 모두 샀어요. 경빈이는 무척 좋아서 구름다리를 걸어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경빈 집으로 데리고 온 햄스터는 하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 밖에 없다고 하니로 지었어요. 하니도 나도 이제 친구가 있구나 하고 너무 기뻐요. 하니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서 외로웠어요. 마트에 있을 때는 사람이라도 많아서 구경할 수 있어서 조금은 나았는데 성우가 유치원에 가버리고 나면 하니는 심심했어요.

아침에 경빈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니는 속삭였어요.

“경비아! 경빈아!”

이건 무슨 소리지?

“엄마 나 불렀어요?”

엄마는 경빈이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어디선가

“경빈아! 나아 하니.”

경빈이는 깜짝 놀랐어요. 하니가 말을 하다니, 경빈이는 놀래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하니가 말을 해요.”

“뭐라고? 우리 경빈이가 잠이 덜 깬구나?”

엄마는 경빈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경빈이는 엄마 손을 잡고 하니한테 갔어요.

“하니야 다시 한 번 나를 불러봐.”

햄스터 하니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해바라기 씨만 먹고 있었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기만 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경빈이는 하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시 하니가 말을 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니를 보았어요.

“경빈아! 놀래지마. 나는 특별한 햄스터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법을 가진 햄스터란다. 마트에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사람 말을 알아듣고 배울 수가 있었어. 그런데 경빈이하고만 대화할 수 있어. 왜냐면 경빈이도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경빈이 네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경빈이는 하니를 선택하면서 그 초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거야. 하니가 경빈이에게 마법을 걸었거든. 그래서 경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과 동물에게 대화할 수가 있어.”

“와! 정말 신기하구나.”

그때 엄마는 유치원 버스가 와서 얼른 나가야 된다고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경빈이는 작은 소리로 하니에게 갔다 올게 하고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경빈이는 유치원에서든 하니 생각만 하였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빈이는 하니부터 보았어요. 하니는 해바라기 씨만 열심히 까먹고 있었어요. 앞발로 씨를 잡고 이로 먼저 껍질을 벗기고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엄마는 슈퍼에 갈 건데 경빈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엄마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 햄스터에게 가까이 갔어요. 엄마는 늘 따라다니던 경빈이가 웬일로 집에 있겠다고 하니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하니가 경빈이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빈아! 나 혼자서 심심해. 너 유치원에 가고 없을 때 너무 외로워. 나도 친구 하나 만들어줘.”

“알았어. 내일 마트에 가서 친구 하나 데리고 올게.”

경빈이는 엄마를 또 즐랐어요.

“엄마! 하니가 혼자서 심심한가 봐요. 한 마리 더 사주세요.”

엄마도 처음부터 걸렸던 문제였어요.

“그래 혼자서는 심심하겠구나. 친구를 만들어 주자꾸나. 그런데 어떡하지? 거기에는 아직 햄스터가 없는데.”

혹시나 하고 마트에 가봤더니 햄스터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빈이와 엄마는 하니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백화점과 마트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러자 겨우 한군데에서 같은 종류의 햄스터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경빈이는 얼마나 다행인지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 가족이 된 햄스터는 두 번째로 들어와서 두니가 되었어요.

하니와 두니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햄스터가 두 마리가 되자, 엄마는 밤새 딱딱딱 소리 내서 이를 갈아 밤에 시끄럽다고 베란다에 내다놔요. 하니와 두니는 밤에 너무 추웠어요. 따뜻한 곳이 그리웠어요. 베란다에 살고 있는 하니와 두니에게 미안해서 경빈이가 아끼는 선인장을 친구하라며 하니와 두니가 잘 보이는 곳에 두었어요. 엄마는 선인장이 가시가 많아 경빈이가 다칠까봐 버리라고 하는 것을 경빈이가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우고 있었어요.

아침에 경빈이가 일어나자 하니와 두니는 얘기를 했어요.

“경빈아 우리 추워.”

“그래? 나도 추웠어. 우리 엄마는 난방을 너무 아끼신단 말이야. 하니와 두니도 추웠구나.”

경빈이는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니와 두니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침에 태양이 붉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경빈이는 태양을 보니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태양이 세 개라면 더 따뜻할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태양을 세 개로 만들 수 있을까? 경빈이는 고민을 하며 꽃이 예쁘게 핀 선인장을 무심코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화분에 있는 선인장이 말했어요. 놀란 경빈이는 뒤로 넘어질 뻔 했어요. 이번에는 선인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니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빙그레 웃고만 있었어요.

“내 몸에 있는 꽃잎 세 개를 따다가 태양을 향해 날려 보내봐.”

경빈이는 호기심으로 꽃잎 세 개를 따서 태양을 향해 날려 보냈어요. 그러자 큰 태양이 세 개로 쪼개어 지더니 하늘에 세 개의 태양이 떠 있는 거였어요. 경빈이는 신이 나서 하니와 두니에게 다가갔어요. 태양은 각자 하나씩 경빈이와 하니, 두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는 춥지 않아서 이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태양 하나는 경빈이를 따라 다녔고, 태양 하나는 하니만 따라 다니고, 또 태양 하나는 두니만 따라 다녔어요. 이들은 같이 있으면서 함께 놀고 함께 살았어요. 하니와 두니는 시간이 흐르자 졸음이 왔어요. 그리고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니와 두니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을 지닌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태양이 계속 따라 다니니 잘 수가 없었어요. 하니가 말했어요.

“태양아 너도 자면 안 되겠니? 우리는 낮에는 자고 밤에 놀아야 돼.”

그러자 태양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경빈이도 만찬가지였어요. 태양이 늘 따라 다니니 밤에는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옆에 있으니 덥기도 했어요.

“태양아 너 그만 따라다녀. 너도 너희 집에서 자고 널 아침에 만나자.”

태양은 대답을 안 했어요. 성우는 괜한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추워도 참을 걸 하고 후회도 했어요.

하니와 두니도 이제 태양이 싫었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잘 수도 없고 계속 이만 같았어요.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갑자기 경빈이는 하니와 두니에게 궁금했어요.

“너희는 왜 딱딱한 쇠붙이에 이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니? 아프지 않아?”

“응. 우리는 앞니가 계속 자라나거든. 그래서 커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앞니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데?”

“앞니가 커지면 턱 밑으로 이가 튀어나와 우리 몸이 다치게 되거든.”

“그래서 하니와 두니는 날마다 이를 갈구나.”

“응.”

“경빈아! 우리 부탁이 있어.”

“뭔데.”

“저 태양 좀 이제 보내 주면 안 되겠니?”

경빈이도 그러고 싶었어요. 잠도 못자고 앞니가 아프도록 운동만 해야 하는 하니와 두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경빈이도 밤낮없이 따라 다니는 태양이 싫었어요. 경빈이는 다시 선인장에게 다가가 태양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선인장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왜 안 되는데?”

“그건 내 몸을 뽑아서 태양을 향해 날려 보내야 돼. 그렇게 되면 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야.”

경빈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선인장도 태양이 세 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는 수 없이 성우에게 말했어요.

“내 몸을 뽑아서 태양에게 던져. 그리고 내 몸에 남은 꽃잎 하나를 다시 땅 속에 묻어줘. 시간이 많이 흘러 5년 후에 나는 다시 새싹이 돌아날 거야. 그동안 하니와 두니, 경빈이를 볼 수 없어서 슬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

경빈이는 선인장에게 미안했어요. 5년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펐어요. 모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빈이는 태양을 향해 힘껏 선인장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태양은 순식간에 하나로 등쳐 버렸어요.

“휴. 정말 다행이야.”

한 몸이 되는 태양도 기뻐했어요.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은 태양은 하루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니와 두니는 밤에 추운 것을 이겨내려고, 바닥에 깔린 휴지를 입으로 잘게 잘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플라스틱 작은 통 안에다 곱게 집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경빈이가 유치원에 가고 없을 때, 하니와 두니는 그 곳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학생문단 | 시나리오

김명자

戲曲

그림일기

김명자

[시놉시스]

- 제 목 : 그림일기
- 주 제 : 이혼이 가져오는 이시대의 사회문제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안고 살아 가야하는 상처와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워줘야 할 것인가?
- 집필의도 : 가정파탄이 만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린 자녀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싶었다.
- 줄 거 리 : 할머니와 범수, 진수 세 식구가 함께 산다. 노인은 잠든 손자의 머리맡에 놓인 그림일기를 열어본다. 노인은 거기에서 어린 손자가 상상 이상으로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
- 등장인물 :
주 인 공 / 김범수(초등학교 일학년, 친구를 좋아하고 쾌활함, 7세.)
보조인물 / 할머니(철저한 기독교신자, 자나 깨나 기도함, 71세.)
김진수(범수 동생, 똑똑한 유치원생 어린이, 5세.)

그림일기

S#1. 기다림

진수와 범수가 연속만화 ‘엄마 찾아 삼만리’를 보며 할머니를 기다린다. 방바닥에 벌렁 엎드린 채 아이들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TV에 집중.(두 다리를 발랑거리며……)

S#2. 붕어빵

시장 가방을 든 노인 째 걸음을 하고 있다. 날은 저물고, 휴대폰은 계속 울린다. 집 앞에 다 달았는데 또 벨이 울린다.

“할머니! 빨리 와.” 진수의 목소리다.

노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아이가 우르르 뛰어 온다.

진수 : 할머니! 이게 뭐야? (시장 가방을 만지며)

(할머니가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서 준다. 진수 봉투를 열어 본다.)

진수 : 와! 짱이다.(좋아서 깔깔 웃는다.)

(붕어빵 한 개를 꺼내서 형에게 주고, 저도 한 입 베어 물고……)

S#3.

한참을 엎드려 기도를 끝내고 일어난 노인 주먹으로 뒤 허리를 지근 지근 두드린다. 그리고 잠든 아이들 손을 만져보고 범수의 머리맡에 놓인 『그림일기』를 천천히 넘겨본다.

S#4. *월 **일 제목 : 보름달

보름달이 떴다. 엄마가 빨리 날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자막)

(침대에 누어있는 엄마 팔에 넝겔 두 개가 꽃혀 있는 일기그림)

베란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있는 범수의 뒷모습. 컷

S#5. *월 **일 제목 : 태풍

베란다 창문이 마구 흔들린다. 바람소리가 괴물 같다. 무섭다. 미국에 우리엄마가 있는 병원은 괜찮을까!(자막)

번개가 칠 때마다 잠자리에 든 세 식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S#6. *월 **일 제목 : 엄마가 보고 싶다

미국에 가려면 돈이 얼마 있으면 될까! 할머니가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자막)

그림일기를 다 보고난 할머니 긴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내려다본다.

S#7. 가족소개 시간(교실)

가족소개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한 아이가 범수 옆으로 다가온다.

친구 : 범수야, 니네 아빠 엄마는 왜 없니? (싱글거린다.)

범수 : 우리 엄마는 많이 아파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가고 아빠는 먼데로 돈 벌로 가셨어, 오래 있다 오신댔어.

친구 : 에이! 거짓말, 이혼했지?(비웃는 태도)

범수 : 뭐라구!! (발끈! 얼굴이 벌게진다.)

친구 : 이혼은 나쁜 거야 바보야, 그러니까 너희 아빠 엄마 나빠.

(여전히 싱글거리며 검지 손가락으로 범수의 볼을 쿡 찌른다. 주위에 모여든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다.)

범수 : 뭐야!! 이 자식!!

범수의 주먹이 친구의 얼굴을 친다.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눈 귀통이에 상처가 난다. 치고 패고 한바탕 난타전이 벌어지더니 두 아이가 다 코피를 흘리며 엉엉 울어댄다.

S#8. 상처

상처투성이로 들어오는 범수를 보고 놀래는 노인.

노인 : 누가 내 새끼를 이래 놔어? 응, 어떤 놈이여!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던 범수가 갑자기 얼굴을 들고 도전적으로 묻는다.)

범수 : 할머니! 우리엄마 아빠 이혼 했어요?

노인 : 아니,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함부로 지껄여.

범수 : 엄마 진짜 미국에 간 거 맞지요?

노인 : 그럼! 진짜구 말구! 엄마는 몸이 아파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가고, 아빠는 먼데로 돈 벌로 갔어, 네가 중학생이 되면 온다고 했지.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노릇이었다. 다만 이혼이란 말을 하기엔 아이가 너무 어렸고 이해가 될만한 나이를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었는데……)

범수 : 진짜지요 할머니?(석연찮아 다져 묻는다.)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놀려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S#9.

아이를 앞세우고 다리 부러진 안경을 들고 나타난 젊은 여인, 씨근덕거리며 다짜고짜 해 퍼붓는다.

여인 : 아이를 어떻게 키우길래 이렇게 폭력을 휘둘러요?

이것 좀 보세요. 안경 부러진건 고사하고 눈 빠질뻔 했잖아요. (아이는 눈구석에 피멍이 들고 앞 지락에 코피가 흘러내린 자국이 있다.)

노인 : 폭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댁에 아이는 사람을 함부로 알보고 무시하는 말 막하라고 가르쳤나요? 범수야! 이리 나오너라.

(노인은 범수를 앞에 세운다. 범수도 입술이 터지고 앞 지락에 피를 흘린 것은 마찬가지였다.) 보십시오. 때리고 얻어맞고 피 흘린 건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인 : 노인하고 얘기 못하겠으니 애 엄마 전화번호 대세요.

노인 :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돌아가시오. 그 안경은 내가 고쳐줄테니 놓고 가고.

(짜리고 서있는 여인을 뒤로 한 채 노인은 현관문을 쿵 닫아 버린다.)

S#10. 설날

세배하고 세배 돈 받는 장면, 할머니, 큰아버지 내외, 고모 고모부, 사촌들 다 모임.

세배 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간 범수, 문을 잠그고 세배 돈을 세어본다. 밖으로 나가며 밝게 웃는 범수.

S# 11.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는 범수.

노인은 여기저기 범수친구네 전화번호를 누른다. 그러나 한결같이

안 왔어요, 못 봤어요, 연속 메아리치며 사라진다.
아파트 앞에 서서 애타는 노인

S#12.

파출소에 신고하는 장면(경찰 받아쓰고 노인 대답하고)

노인 : 우리 범수 제발 좀 찾아 주세요.(노인 굽실거리며 애원)

경찰 : 할머니, 잘 알았습니다. 연락드릴 테니 집에가 기다리세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경찰의 표정에 실망하는 노인

언뜻 그림일기를 기억해내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집으로 들어온 노인 정신없이 범수의 가방을 뒤진다. 그림일기를 꺼내 들고 돋보기를 찾는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다 뒤지지만 설상가상으로 돋보기마저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 : 이놈의 돋보기마저 발이 달려서 달아 난거냐?

옆드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노인

밤이 깊어 갈수록 불안은 쌓여 상상에 상상을 거듭하고 있다.

밖은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 소리가 웅웅거린다.

엿그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서걱거리는 길, 셔터 문이 내려진 어느 상가 앞에서 오그리고 떨고 있는 범수, 어느 불량배에게 끌려가며 울며 실경이치는 범수, 장면들 오버랩

노인 : 안절부절, 이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새벽 4시가 가까워 올 무렵)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다. 수화기를 잡는 손이 파르르 떨린다.

노인 : 여 여보세요.

경찰 : 여기는 인천공항 경찰입니다. 김범수 어린이 할머니 되십니까?

지금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으니……

노인 : 아개! 아개!

를 거듭하며 울음을 토해낸다.

S#13. 환희

따뜻한 온돌방,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운 범수, 노인은 범수의 귀뿔과 볼을 어루만지며 많은 것을 생각한다.

노인 : 범수야!

범수 : 네!

노인 : 너……. 엄마 보고 싶지.

범수 :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노인 : 그래! 엄마 만나러 가자(노인의 깊은 한숨)

범수 : 정말이에요 할머니? 엄마 다 낳았어요?

(아이가 놀란 듯 벌떡 일어난다.)

노인 : 응, 다 나아서 왔어.(그러나 할머니는 근심스럽다.)

범수 : 그럼 왜 집에 오지 않아요?

노인 : 범수야! 그건……엄마가 다 얘기해 줄 거야.

S#14. 범수의 신나는 환상

그림일기 *월 **일 제목 : 눈꽃

눈이 내린다. 하얀 꽃, 노랑 꽃, 분홍 꽃, 하늘에서 눈꽃이 내린다.

엄마를 만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자막)

(엄마를 만난다는 감동의 환상으로 일어나는 현상)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고 서있는 범수의 뒷모습

S#15. 상봉

맥도널드 출구 바로 안에서 범수엄마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때 두 아이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금방 엄마를 발견한다.

범수, 진수 : 엄마!!

두 아이는 동시에 큰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엄마 허리를 휘감는다. 주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시선집중.

엄마는 두 아이를 품안에 꼭 안는다.

범수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껄떡껄떡 우는데……

진수 : 엄마, 빨리 햄버거 먹자.

엄마는 범수의 눈물을 닦아준다.

엄마 : 그래, 우리 2층으로 가자.
(아이들 손을 잡고 계단으로 오르는 뒷모습)

S#16. 평화

엄마 : 우리 범수, 진수 많이 컸네.
(엄마가 두 팔을 뻗어 아이들 볼을 만져본다. 탁자를 가운데 두고 엄마와 마주 앉은 아이들의 눈동자는 지금 유리벽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보다 더 반짝이고 있다.)

S#17.

진수 : 엄마, 왜 오래 오래 집에 안 왔어?
나 엄마 진짜 많이 보고 싶었다.
(햄버거를 크게 베어 물며 연신 웃는 모습)

엄마! 아— 해봐.

엄마도 먹어봐, 땃다 맛있어.

(키가 작은 진수는 일어서서 두 손으로 햄버거를 바쳐 들고 엄마 입에 대준다. 햄버거를 한번 베어 무는 엄마도 연신 웃는 얼굴이지만 눈가에 이슬이 젖은 게 눈물을 애써 참고 있는듯하다.)

범수 : 엄마 아픈데 벌써 다 낳았어요?

엄마 : 응, 다 낳았어.

범수 : 엄마! 미국에서 언제 왔어요?

(범수가 제법 어른스럽게 물어본다.)

엄마 : 응응, 요 요새 왔어.(말을 더듬는다.)

범수 : 할머니께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래 엄마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인천 공항까지 가는데도 참 힘들었는데 경찰한테 붙잡히고 말았어요.

엄마 : 범수야!

진수 : 네!

(비 오다 갠 날처럼 맑은 범수의 얼굴, 엄마를 뻗히 쳐다보며 웃는다.)

엄마 :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는다.) 범수야!!……이제……
엄마 기다리지 말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응?

(한참 아이들을 응시하고 있던 엄마가 그렇게 입을 열었다.)

범수 : 엄마! 그럼 우리랑 집에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엄마 : 범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는……갈 갈 수가 없어.

범수 : ……

금방 혼란스러워지고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범수의 어두운 그림
자. 범수가 먹던 햄버거를 내려놓는다.

S#18. 천사의 눈물

구석자리에서 이곳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 지겨운 듯 턱을 괴고 있
던 양 팔꿈치를 의자 뒤로 올리고 몸을 뒤로 재깎는다.

조금 후 더 못 기다리겠는지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온다.

남자 : 약속시간이 한참 지났어.(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서두는 눈치)

남자가 나타나자 몹시 민망해 하는 엄마, 금방 참새처럼 쫓알대던 아
이들은 입을 다물고 머쓱하다. 엄마와 남자를 번갈아본다.

엄마 : 범수야! 곧 할머니께서 이곳으로 오실거야. 자, 이거 들고 가. 응?
작은 선물상자 하나를 건네준다.

엄마와 남자가 나란히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범수, 엄마가 뒤 한 번
돌아보고 머뭇거리다 돌아서서 문밖으로 사라진다.

탁자위에 떨어지는 범수의 눈물.

물끄러미 바라보던 진수가 손등으로 범수의 눈물을 닦아준다.

끝내 탁자위에 엎드린 범수……

범수는 그 작은 등을 들썩이고 있다.

제3회 사이버문학상

성백선

유원희

심사평

당선소감

분합문 外 6편

성백선

보 기둥 위 쌓인 고요가
벽 치고 수장을 들인다
살대로 달빛무늬 낸 소목의 숨씨
칠흑에 간혀가는 서까래 밑
둔탁한 배목이 서너 개 박히고 나면
수직을 가늠하는 다림추의 미동도 멈춰 선다
단절된 껍에 동그마니 남아
떨그럭떨그럭 파동을 견디던 등자쇠
건너편 지도리에게 여음을 흘려 보내지만
동선은 보이지 않고 온기는 멀다
속살 드러내어 내밀한 눈빛 당기던 탕탕한 거리엔
마주앉은 속내끼리 경계를 허무는 소리도
천장 긁어 셋길 내는 쥐들의 부산함도
벽채 타고 반경 좁히는 고양이 아기울음도 그쳤다
품고 놓아주기를 반복하는 간극은
언제나 짧은 망설임을 남겨
은은한 창 같은, 거칠은 벽 같은 발자욱이

상 머뭇거리는 문전

나누어졌다 싶으면 어느 결연가 다시 합쳐져

누마루와 팔작지붕 사이 환했던 소통이

옹이 진 정적으로 무료할 즈음

설주를 에돌던 삭풍이라도 맞아들일 양

좁고 짧을지 모르는 생의 공간을

한 간 확장하듯

벽이었다가 문이기도 한 널

지금은 번쩍, 들어올려야 할 때

애어리염낭거미

누가 앞새 끝에
저토록 푸른 누각을 세웠을까
정교한 산실 들어선
우거진 수풀 한가운데
성자의 입김 가득할 것 같은 염낭엔
낙엽층을 배회하고 돌아온
성체가 몸 푸는지
부들 뿌리로부터 신음이 부화한다
산고를 둘러싼 우주의 소음들
한여름 어스름에 비껴가고
지금 막 앞에서 깨어난 어린 것들은
세상으로의 탈피를 시도하느라
생별을 입에 물고 있다
뱃속 그득 비정의 즈 짜 넣으면서
아, 살아있는 것들의 살고자 함은
이토록 뼈를 깎는 일이던가
생존의 늪지대에서

천적으로 변태한 새끼들에게
제 살과 뼈 뜯어 먹히고
어미의 골육을 포식한
패륜의 바다 위
거미 피륙으로 짠 섬이 전설로 흐르다
소리 없이 가라앉는다
세상의 푸르게 눈물겨운 것
다 흘려주고
말없이 형체 없이
하늘 가신 내 어머니처럼

독살꽃

멀리 갯바위 사이로 한 사내가 보인다
나는 팽이갈매기 눈으로 그의 움직임을 앞지른다
꽃지에서 굴혈포까지
조난의 시간 밑으로 흘러든 항로가
흙모래를 털고
어깨에 찰박이는 빨빛 그물이
촘촘한 하루치 숨을 토해내는
드문드문 난 들불의 흔적과 소나무 사이
간조를 기다리는
따개비 껍질 같은 오두막이 움푹하다
물때 맞춰 막아놓은 그의 생존이
수면을 차고 오르기를, 파닥이기를
간절하게 물은 빠져나갔건만
개펄 위 불쑥 솟은 뾰족한 독살
돌꽃 돌꽃
‘꽃만 나고 말았네유’
그의 비릿한 기다림에 나는 초저녁 붉새로 번졌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던
선사 수렵시대 바닷바람이
방과제에 부딪혀 해무 속으로 사라진 뒤
삶의 편린들 짝조름히 잣아드는 포구에선
도회지 어부들이 뱃길을 닫고 있었다
근근한 그의 어족은 격랑에 휩쓸려
꾸르륵 꾸르륵
해조음만 꽃 주위로 무성히 몰려다니고
나는 몸 구석구석 돌아난 돌꽃의 순을 따다가
그의 어장 가득한 물고기로 흐드러지게 피었다

뚜껑

오피스텔에서 내려다 본 운니동 기와집들
검은 뚜껑들이 다닥다닥 세월을 덮고 있다
뚜껑을 열면
그늘 쓰고 문명을 피해 들어앉았던
개화 덜된 세간살이가 비춰지면서
속속들이 차있는 나직한 군상들의 내부가
햇빛에 파르라니 눈 흘길 것 같다
뚜껑 속에 잠겨 있는
벽에 걸린 아이 낙서의 표정
마당 가운데 흐르는 수도의 사계절
개집 옆 작은 화분들의 자투리 여유
담장에 널린 이불의 낮과 밤
대문에 세워둔 자전거에 감긴 거리
한 사람당 할당된 시간과 공간이 뽁뽁 뭉쳐져
제자리에서 굴러가고는
세월의 뭉치마다
속도 다른 흔적들이

지워질랑 말랑한 뚜껑엔 다시
리모델링된 비밀번호가 채워지고
내 뚜껑은 24시간 개방돼 있어도
모호한 채 무늬만 내고 있는데
어느 날 열린 지붕 아래
테라스가 된 발 밑에서
내 뚜껑 속을 올려다보고 손짓하는
40년 전 상고머리 계집아이가 생경한 건
낮은 곳 앞서 흐른 삶의 기복들도
덮개 안에서는 그만치
출렁거리다 넘치고 싶었나보다

아침, 모네의 정원

그곳엔

빛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 부풀어오른 수련이

마알간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부신 눈으로 첫 빛을 밟는다

밤새 태양으로부터 달려 온

맨발의 하루가 뒤따르며

보폭을 키우는 사이

투명한 채색이 시작되고

흘뿌려진 햇발 위 조금씩

드러나는 색색의 일정들은

더 선연한 제 색을 찾아갈까

갓 깨어난 버드나무 아래

그림자 숨긴 여백이
새벽 내음을 코끝에 묻힌 채
살풋 정오의 계단을 살핀다
햇살들의 빼곡한 일과가
어제에 이은 연작의 색감을
연못 위에 띄우는 찰나,
아직 이른 아침이다.

바퀴

길모퉁이 담벼락에
뾰아떨어진 질주가 푸석하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루하루의 간격을 조율해 주던 삶의 속도들
어느 막다른 길목에 멈춰 선 것일까
울퉁불퉁한 일상 날렵히 나르던 회전은
비포장의 순간들을 갖길에 부러놓고
생애 어디 구간쯤 정체돼 있는지
온종일 시간 헛도는 소리만 험령하네
언제고 든든한 바람 넣은 탄력 위
회과람 신고 페달 밟으면
흥미한 내일의 여정에라도
동그라미 그려가며 오를 수 있을 텐데
역주행하다가, 전력투구하다가 가쁜 숨
평평히 고르고 원활유 주입하면서
모난 길 훌쩍 건너뛸 수도 있을 텐데
환상 속에서는 늘 가파른 언덕 다다른
바퀴가 신들린 발처럼 날아다니고
내 어제의 지체된 두 바퀴도
주어진 거리만큼은 완주하려는지
지금 막 막힌 길목을 우회하고 있네

갈릴레이 망원경

이미 일순간의 착시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투명한 유리 곱게 갈아 오목한 얼굴에 썼어요
겹겹이 둘러진 포물선 피가 벗겨져 나갔어요
알몸으로 원점에 서 있는 그대 우뚝하였어요
태양의 흑점을 찾듯 그대 심장을 더듬었어요
천체를 떠다닌 빛과 박동 소리가 몰려왔어요
가까이 반사된 자리에 홍염이 이글거렸어요
산란을 마친 낮이 밤의 깊이로 빠져들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거리가 환히 웃고 있었어요
쌍안에서 굴절하던 그대도 고색창연하였어요
시야를 가렸던 처음 내 눈은 선입견이었어요
흐린 초점 다시 맞춰 선명한 심상 포착했어요
그대 뒤돌아서면 반대편에 거울을 세워뒀어요
때론 도구도 정직하고 부드러운 눈길이었어요
관측을 마친 나는 목성의 가니메데가 되었어요
기꺼이 그대 곁을 들고 도는 위성으로 살았어요

별을 파는 여자 外 4편

유원희

남구로역에 발 뺀어 먹고 사는 삼성식품, 여자는
초저녁이면 문을 내리고
친정으로 별의 씨앗을 구하러 간다
하늘밭으로 나서는 여자의 손엔 망태가 없다
별의 씨앗을 담아오는 것은 손도, 호주머니도 아닌
언제부턴가 불쑥 튀어나온 그녀의 두꺼운 등이다
별은 진열하지 않고 등에서 하나씩 꺼내 판다
아침이면 가게 앞으로 쪼르륵 쪼르륵 발소리가 물려든다
직업소개소 봉고차에 실려 가지 못한 사내들이
밤새 염불로 고통받던 시커먼 한숨을 뱉어 낸다
여자는 별 하나씩을 사내의 가슴밭에 밀어 넣는다
별 키우는 법은, 입꼬리를 높이 올려 설명해주고
혹시 아프거나 칭얼거리면
반드시 진찰 받으러 오라는 눈짓도 잊지 않는다
물 건너에 텃줄을 둔 검붉은 손도
커피 자판기에서 아침을 들이키는 지팡이도
여자가 등에서 꺼내준 별씨 하나씩을 담아 간다

가게 앞엔 별 계단이 있다
그 별 계단에 올라 본 사람만이
여자의 키가 허리쯤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밥그릇은 작다
별씨를 가득 싣기엔 배보다 등이 불러야한다
여자가 TV를 보면서 사발면을 들이킨다
가을 가뭄에 말라버린 별들이 브라운관에서 우르르 쏟아진다
여자는 자꾸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1-day

동네 안경점에서 구입한 1-day 콘택트 렌즈, 아침마다 비누로 손을 씻고 렌즈 속에 내 몸을 집어넣는다 통통한 허벅지 한쪽은 남겨둔다 아차하다 쓸개 빠진 여자, 간이 배 밖에서 필떡거린 여자는 맵시가 없다 잘못 잠근 블라우스 단추는 그대로 둔다 하루쯤 옆으로 걸어도 좋을 것 같다 구두는 광을 내야한다 가끔 태양이 트림을 하면 1.0 시력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다 에스라인 몸매로 집을 나서 첫 번째로 만난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 아침 결혼식 주례는 신호등이 딱이다 아프리카 여자들처럼 배꼽에 피어싱을 한다 하루 세 번 결혼식에 그 정도의 멋은 기본이다 내 배꼽에 입을 맞춘 남자들은 쇠로 만든 콩깍지를 쉬운다 시계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웃 할 때 중혼 준비를 한다 이번엔 젓꼭지에 피어싱을 한 남자를 택해 헛바닥으로 마빈 게이* 노래를 연주한다 되돌림표가 없는 악보에 남자를 태운다 세 번째는 대머리 남자가 좋다 이마에 누드 문신을 그린다 두 명의 남편들이 축전을 보내온다 그래도 걱정 없다 똥똥해도 자고 나면 또 처녀, 내일은 내일의 렌즈가 필요하니까

*마빈 게이 - 미국 흑인 R&B 가수, 음악프로듀서 1984년 45세 나이로 사망

담벼락 병동

대학병원 담벼락이 철거되고 있다
넝쿨장미의 인대들도 톱니바퀴에 몸을 내주고 있다
병실 유리창에서 담을 넘봤던 눈빛들이
동네 밖으로 산책을 시작한다
여름내 방문객들이 흘러준
보송보송한 사연들을 취재한 은행나무가
노란 쪽지를 병실로 휘휘 날린다
양손 보따리에 끌려 다닌 발걸음들
무너진 담벼락에 눈물과 한숨을 맡겨 놓고
억지웃음으로 병실로 향한다
뒤뚱거리는 발자국에서 배냇냄새가 기어 나오고
머리를 붕대로 감싼 흰체어 노인은
길 건너 죽집에서 햇볕을 끌어다 쓴다
의족으로 키를 맞춘 목발 아이는
대학꽃집 화분에 제 발목을 심는다
구로시장 앞은행이 의자들도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 또 무거운 하루를 받아낸다
세상의 가위질에 굵힌 골목길들이 회진을 기다리는 동안
온 동네가 회복실로 옮겨간다

작업복 이력서

드르륵 드르륵 귀를 세운 엄마의 재봉틀이
모락모락 솔뚜껑을 넘어갑니다
새벽 등성이를 넘어갑니다
드르렁 드르렁 아버지 지난 발자국들도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니다
누비처럼 앉아있는 부스럼딱지 위로
데굴데굴 실밥 타고 굴러갑니다
골목길을 짊어졌던 갈지자 걸음도 끌려 와
꽂꽂 실밥 속에 묶여집니다
너털웃음에 덧댄 침 자국이 보일까봐
재봉틀 바퀴가 너스레를 떨니다
아버지 얼굴에 웃음소리가 풀리지 않도록
꼭꼭 실밥을 동여맵니다
흐린 손금을 풀어 마지막 실밥을 동여맵니다
아버지 키가 한 뼘이나 자랐습니다

구로동에 PENGUIN이 산다

구로2동 우체국 계단 입구를 지키는 펭귄 우편함
앞 집 구두 수선 노인과 수다를 떨다
가끔 행인이 밀어 넣은 편지를 받아먹고
관할지역과 타 지역으로 나뉜 두 입을 움질움질 거린다
아침이면 우편함에서 뒹뒹뒹 뒹쳐나와
저녁내 남극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스케이트에 싣고
슬로우 슬로우 킁킁 오른발, 왼발을 동네 이불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층집 세발 할머니네는 노란 스쿠터를
편식하는 경식에겐 크릴새우를
33번지 노처녀는 총각을
아래층 새댁은 아파트 당첨권을
통통한 은아에겐 비키니 수영대회 포스터를 배달하면
구로동 한낮에 오로라가 떠오른다
구로디지털단지엔 온갖 펭귄들이 돌아다닌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집안의 펭귄들이
우편번호부를 뒤적거린다

심사평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와 계간 『시작』이 주관하는 제2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심사는, 674명이 응모한 가운데 풍성하게 치러졌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고, 오래 연마된 시의 행을 따라가는 일은 실로 즐거웠다. 특히 캐나다, 일본 등 국외에 거주하는 응모자들을 대하면서 심사위원들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이 다국적인 문화를 수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학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시편들의 내용과 형태는 다양한 연령과 삶의 모습을 추측케 했는데, 이를 통해 아직도 문학이 사회 전반에 녹아 있다는 희망도 얻게 되었다.

예심을 통해 올라온 응모작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김강식, 김수정, 김지영, 성백선, 송하얀, 유원희, 이종숙, 현혜숙 씨(가나다 순) 등 여덟 분의 작품에 주목하였다. 완성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느껴졌지만, 이들의 시편들에는 모두 시적 안정과 변화를 주도해가는 힘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것은 결코 단기간의 습작으로 얻을 수 없는 힘이어서, 독자의 내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시의 완성도, 언어구사 능력, 구성력 등 다각적인 차원의 논의를 거친 끝에 세 명의 후보를 다시 선정하였다.

우선 김지영 씨의 작품 중에는 「모란꽃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선암사 원통전의 모란꽃살문을 통해 설화 속 시간을 바라보는 눈길의 섬세하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작품들의 편차가 심해 아깝게도 최종 논의에서는 제외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논의된 후보는 성백선, 유원희씨였다. 이 중 유원희 씨의 작품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시로 감싸 안는 진정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언어 반복, 시적 반전의 미약함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비해 성백선 씨의 작품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깊이가 남달랐고, 내용과 형태의 완결성에도 무리가 없었다. 특히 「애어리염낭거미」는 거미의 생태를 어머니의 삶으로 반전시키는 시적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리하여 심사위원들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유원희 씨의 작품을 가작으로, 성백선 씨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당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번 응모가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 당선자에게는 거듭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당선자를 낸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시인의 산실이 되길 기대한다.

당선감

■ 당선 - 성백선

〈시 쓰는 기쁨과 아름다움〉

입춘이 갓 지난 봄의 문턱에서 뜻하지 않은 당선 희소식을 접하게 되니 놀라움과 설렘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수많은 나와 만나며 시의 행간을 더듬던 시간 속에는, 저만치 나갔은 빛들과 거의 잊혀져 가는 기억들이 단절을 벗고 소통의 한 길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대로의 삶에서 한 가지씩은 더 보태어 살고 싶은 간절한 무엇이 있을 터, 그것이 詩라는 이름으로 내게 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높이 끌어올리고, 단단한 느낌표를 곤고한 삶에 새겨 주었다면 이 얼마나 위무 어린 독려이며 가슴 벅찬 행진일까요.

이제 다시 돌아 올 봄 앞에 시간의 얼굴을 씻고, 연듯빛 시어를 펼쳐 꿈 먹은 길을 향하려 합니다. 그 길에 눈부신 슬픔과 아름다운 아픔이 서려 있길 바라면서 울통불통하고 휘어진 길이 더 묘미 있는 건, 힘들어 지칠 때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손 잡고 함께 나누는 온정의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란 것도 잊지 않으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와 미흡한 점이 많은 시를 당선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드리고, 밤늦도록 컴퓨터를 켜안고 시의 언덕을 오르내리던 내게 건강을 염려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며, 언제나 정신적 든든한 후원자이신 이동순 교수님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습작의 과정을 즐겨 준 시창작 문우님들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 가작 - 유원희

터널 속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내 몸을 사각사각 먹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싶어 거리공원으로 갔습니다. 겨울바람만이 나를 껴안고 울어줄 뿐이었습니다. 내 가슴이 그렇게 쪼글쪼글 말라 갈 때 ‘별을 파는 그녀’ 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등에서 꺼내 준 별씨를 받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고, 때론 아프다고 칭얼거리는 별. 별이 있어 내 삶이 더욱 간절해지고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나의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소식에 맨 먼저 생각나는 하늘에 계신 할머니, 사랑합니다. 문학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글을 치열하게 쓰도록 지도해 주신 오봉옥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회의, 흥시, 뿌리문학회, 세들회, 시사랑 동아리 회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신이 내게 선물해 준 친구 화옥에게 이 기쁨을 바칩니다.

SDU 디지털 문학 · 제3호 · 2009

발행인 오봉옥

편집장 유원희

편집위원 박민서, 현혜숙, 박혜란, 김정애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02)2128-3097

<http://writing.sdu.ac.kr>

인쇄 2009년 2월

발행 2009년 2월

편집 삼호인쇄

주소 서울 서초 양재 275-1

전화 02-589-0072

